

100 YEARS OF LEGACY

A History of the American Methodist Korean Women's Mission Foundation

100년의 유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야기

100년사 출판위원회 지음



여리북스



100 YEARS OF LEGACY

A History of the American Methodist Korean Women's Mission Foundation

1924 - 2024

100년의 유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야기

100 YEARS OF LEGACY
A History of the American Methodist Korean Women's Mission Foundation

100년의 유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야기

100년사 출판위원회 지음

출판위원장

김혜선

저자

유연희

디자인·인쇄

디자인빛(designbit.co.kr)

출판사

여리북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624

02-3276-3747

www.scrantoncenter.org

발행일

2025. 6. 16

ISBN 979-11-991830-0-1



여리북스

발간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래베나에서 열린 지방여성교회 모임에서 한 여성의 마음에 발아한 작은 선교의 씨앗은 오늘날 한국선교 140주년, 유지재단 100주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향한 미국 감리교회 여성들의 사랑이 복음의 빛이 되어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은 구한말의 혼란과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미국 감리교회의 후원은 이 땅에 배움과 생명,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심어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배움과 발전을, 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사회관에서는 생활의 기술과 지혜를, 교회에서는 구원과 존재의 변화를 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받는 이들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유지재단이 설립되었고, 한 사람의 결심과 머나먼 땅에서의 헌신과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재산 관리의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계속해서 새 길을 열어왔습니다.

유지재단 100주년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복음의 빛을 더욱 멀리 비추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꿈꿉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정해 이사장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축사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Women in Faith)를 대표하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69년, 선구적인 감리교 여성들은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에게 복음과 교육,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전하기 위해 해외여성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를 창립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1885년, 메리 F. 스크랜턴(Mary F. Scranton)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한국 땅에 첫 씨앗을 뿌렸고,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그 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1924년 창립된 유지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자원을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여성 교육, 환자 치료, 복음 전파 등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단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활기찬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함께 축하합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사무국인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는 이 역사적 선교의 현대적 표현으로 자리하며, 아시아 여성들에게 희망과 리더십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여성 선교사들이 뿌린 믿음과 용기의 씨앗이 오늘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0주년을 맞아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한국의 여성들과 한국 감리교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기쁘게 되새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여성과 어린이가 온전히 발휘하며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뜻깊은 이정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유지재단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대대로 이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Sally Vonner 사무총장 및 대표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축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0년 전 미국 남, 북 감리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100년 전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을 설립해 선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교육, 의료, 전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습니다.

1886년, 미감리회 해외여성교회의 초대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은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복음의 빛과 함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이화학당의 지교들을 설립했고, 지방에도 많은 여학교를 설립해 여성 교육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 선교활동 140년과 유지재단이 걸어온 100년의 발자취는 한국 여성교육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교 중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화의 졸업생들은 여성 선교사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보여준 헌신과 나눔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정신은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역을 통해 이어지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선교적 유산을 이어받아 국내외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향숙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축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를 대표하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여성교회전국연합회는 128년의 유구한 역사를 거쳐 선교와 교육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거친 변곡점을 지나오면서도 우리 여성교회는 세계 최대 여성 단체 중 하나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신앙의 신념으로 방방곡곡 순행하며 섬긴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러한 뿌리를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역사 연구와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불릴 때 멀리 서양의 여성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여성들과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전도부인”들과 초기 교회 여성들은 당시 여성교사들과 함께 복음 전파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구휼 등에 힘썼고 이를 통해 한국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를 알려준 이들 선배 여성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성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감리교회 여성들과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지금까지 보여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지재단의 기도와 지원이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역으로 확장되어 여성 지도력 개발과 선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것에 감사드리며, 여성교회전국연합회도 그 귀한 뜻을 나누며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숙 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제 1 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I885~
I924

약어, 일러두기 12

서문 14

1. 맨 처음 이야기 23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탄생과 해외선교 23

유지재단의 누룩이 된 두 여성 25

스크랜턴 대부인의 선교사 파송 26

선교 초기 한반도 상황 28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초기 선교 28

서울 선교기지 확보와 선교활동 개시 29

2.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36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의 조직 36

선교지 재산위원회 37

일제강점기 상황과 조선부인회 활동 37

3.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41

교육사업 41

의료사업 62

전도사업 71

사회사업 90

제 2 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

I924~
I945

1.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 96

초기 선교와 부동산 소유 96

유지재단의 설립 배경 97

1920년의 허가주의 법인과 1924년의 인가주의 법인 98

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99

법인 설립시 부동산 상황과 목록 106

유지재단의 “규정사항”(정관) 117

2.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118

교육사업 118

의료사업 127

전도사업 135

사회사업 146

3.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과 1930년대의
선교 상황 154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1930년) 154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성교회의 창립 156

여성 목사안수와 전도부인 제도 확립 157

교회와 선교사의 수난 158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159

4. 1940년대의 선교 상황 160

선교사 철수 160

만국부인기도회 사건 162

감리교회혁신교단 창설과 전쟁 지원 162

일제의 적산관리법에 의한 유지재단 재산의 적산화 163

제 3 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

1945~
1958

1. 해방, 남북분단, 선교사 복귀와
유지재단의 재산 회복 168
 - 선교사 복귀 169
 - 유지재단의 재산 회복 169
2. 한국전쟁 중의 선교활동 171
 -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의 선교 재개 171
 - “죽음의 행군” 173
 - 전쟁 중에 돌아온 선교사들 174
 - 임시 수도 부산에서의 선교활동 175
 - 대전 선교의 확대 177
3. 전후 복구를 위한 대전협의회(1954년) 181
 - 대전협의회 181
 - “감독호소기금” 182
4. 한국전쟁 후의 선교활동 184
 - 전후 복구를 위해 달려온 여성 선교사들 184
 -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 191
 - 1950년대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 목록 198

제 4 장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I

1958~
2007

1. 미국 선교부와 한국 감리교회의 관계 재정립 210
 - 선교비 관리와 미국 선교부와의 관계 211
 - 미감리교회 여선교회와 대한부인선교부의 선교정책 212
 -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선교정책 변화(1967년) 213
 - 온양선교정책협의회(1968년) 214
2.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구조개편과
1960년대 선교 상황 217
 -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구조개편과 “64 합의문” 217
 - 미연합감리교회(UMC)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MW)의 출범 220
 - 1960년대 대한부인선교부 세대교체 221
3. 대한부인선교부와 유지재단의 활동 223
 - 재산 회복과 보호 225
 - 재산 매각과 매입 225
 - 재산 교환 226
 - 재산 무료 양도 226
4. 유지재단의 재산 이양 228
 - 온양협의회 내용에 따른 재산의 매각, 매입, 기부 229
 - 6개 사회관에 기본재산 제공 232
 - 사택 매각을 통한 국내선교 지원 234

제 5 장

스크랜턴 대부인에서 스크랜턴 여성리더십센터로

2007~

1. 유지재단의 해외선교 시작과 그 배경 240

- 20세기 후반 미국과 한국 교회의 변화 240
- 미여선교회 100주년기념 워킹 컨퍼런스와 선교 방향의 전환 241
- 미여성국과 한국 여성기관의 관계 재개 242
-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독자적 활동 재개 243
- 학교법인 이화학원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244

2.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과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창립 248

- 새로운 이사회 구성 248
- 첫 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 248
-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창립예배 250
- 북미주이화여고동창회 스크랜턴 장학금 250
- 미 여선교회의 일본 웨슬리재단 및 웨슬리센터 설립과 한국 유지재단과의 관계 254
- 세계선교부와의 관계 255

3.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선교활동 256

- 스크랜턴 장학금 256
- 인턴십 프로그램 260
- 여성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262

맺는 말 287

미주 290

참고문헌 308

부록 320

- 부록 1 The Agreements of '64("64 합의문")
- 부록 2 Financial Policy of Women's Division (여성국의 재정 정책)
- 부록 3 메리스크랜턴여성센터 및 글로벌여성리더십센터의 창립 안내 편지
- 부록 4 여성 선교사, 선교사 부인 명단

출판위원장 소감 346

저자 후기 348

약어

연례보고서, 정기간행물, 회의록

- AMMK** *The Association of Methodist Missionaries in Korea* (감리교선교사협회 회의록)
- AMSM**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Siberia-Manchuri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남감리교회 시베리아-만주선교회 연례보고서)
- GAL** *The Gospel in All Lands*(1880-1903년, 미감리교회 해외선교부가 발간한 초교파 연례 선교잡지)
- HWF** *The Heathen Woman's Friend* (1869-1896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월간 선교잡지)
- KMF** *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41년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발행한 선교잡지)
- KR** *The Korean Repository* (1892년 1월-1898년 4월, 한국 선교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발간한 초교파 선교잡지)
- KWC** *The Annual Report of Korea Woman's Conference*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 연례보고서)
- MCC** *The Minutes of Central Council Meeting* (기독교조선감리회 중앙협의회 회의록)
- MEC** *The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Mission Conference,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연례보고서)
- MECS** *The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연례보고서)
- MV** *The Missionary Voice* (1911-1932년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 선교잡지, 그 후 World Outlook으로 개칭)
- WFMS** *The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70-1940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보고서)
- WFMS** *The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879-1909년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보고서)
- WMC** *Woman's Missionary Council* (1910-1939년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보고서)
- WMF** *Woman's Missionary Friend* (1896-1940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월간 선교잡지)

일러두기

“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미국 북, 남 감리교회 중 북 감리교회는 미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C)로 남쪽은 남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MECS)로 부른다. 북 감리교회의 경우 선교 초기에는 미감리회, 미이미교회, 예수교 미감리회 등으로도 불렸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두 교단의 여성교회는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되기 전까지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둘 다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W-FMS)였으나, 남감리교회는 1910년부터 the Woman's Missionary Council(WMC; 부록 6 선교사 명단에서는 남감리교회 소속을 모두 WMC로 표기)로 바뀌었다. 두 교단의 통합(1939) 후에는 the Woman's Society of Christian Service(WSCS)가 되었다(1971년 United Methodist Women[UMW], 2022년 United Women in Faith[UWF]로 개칭). 한국에서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조선부인회,” “조선부인선교부,” “대한부인선교부”로 차례로 바뀌었고,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Women's Board of Foreign Mission(WBFM), 여성사업(Women's Work) 등으로 썼다. 이 책에서는 두 기관이 인접해 기술될 때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를 넣어 구분하기로 한다.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경우에만 “선교사”라 부르고, 선교사의 부인도 똑같이 선교 활동을 했지만 구분하기 위해 “부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해외여성교회 선교사였다가 조선선교부 소속의 선교사와 결혼해 남편과 사별 후 선교사로서 활동을 이어갈 경우(예를 들면, 로제타 홀 부인)도 “부인”이라 부른다.

“한국,” “한국인” 고유명사나 필수적인 경우 외에 구한말부터 현재까지의 나라와 국민에 대해 ‘한국’과 ‘한국인’으로 일컫는다.

“서울” 수도명은 조선시대에 한성(1395년 이래), 일제강점기에 경성, 해방 후(1946년부터) 서울로 쓰였다. 이 책에서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이라 칭한다.

한글 표기 옛 한글은 고유명사 외에는 가급적 현재 한글로 바꾸었고, 옛 지명(송도, 제물포 등)은 현재 지명(개성, 인천 등)으로 바꾸었다. 한자 책명도 한글로 바꾸었고 띄어쓰기를 했다.

학교명 일제강점기 동안 1938년까지 초등학교가 보통학교로, 중등학교가 고등보통학교로 불렸고, 1938년 3월 3일자로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 초등학교가 소학교로, 중등학교가 중학교(남) 및 고등여학교(여)로 불렸다. 이 책에서는 포괄적으로 종종 “여학교”라고 부른다(예를 들면, 배화여학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후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다. 그중 한국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외적 성장의 측면에서 인구비례나 참여율을 고려할 때 선교 강국이라는 이름이 실로 타당하다. 이 책에서는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한국을 선교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유지재단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WFMS)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1924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다. 실제 선교활동을 시작한 후 40년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에 유지재단의 100주년 선교 역사서는 실제 선교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약 140년의 흔적을 담게 되었다.

이 책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뿐 아니라 남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WFMS, 1909년까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와 동명)가 한국에 파송한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도 유산으로 포함한다.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들은 별도 유지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을 통해 일했지만, 여성의 선교 현장에서는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와 긴밀히 협력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된(1930, 1939) 이후에는 하나의 여성선교회로 활동했다. 일제강점기까지의 선교 역사를 다룰 때는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라고 구별하여 기술할 것이다. 두 교단이 연합한 1939년은 일제강점기 말 선교사의 강제추방 시기(1940-1941)와 비슷하므로 그 시기까지는 구분하고, 해방 이후에는 사역을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업에는 물적, 인적 자원이 나란히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과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헌신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하는 선교 헌금의 모금과 효율적인 배분이 복음 전도에 핵심 역할을 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인격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복음의 기치는 어떤 식으로든 물질 제공과 맥을 같이 했다. 유지재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곳곳에서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섬기고 나누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교회, 학교, 병원, 사회관이 생겨났다. 1923년까지 형식적인 유지재단은 없었으나 여성 선교사 및 선교사 부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 여성의 의식과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낸 선교 헌금은 한국 여성의 척박한 처지를 변화시키는 단비가 되어 영혼 구원은 물론 물리적인 삶의 질적 향상에 일조

했다. 선교헌금이 만들어낸 재산은 유지재단 인가 후에는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됨으로써 근대 여성 선교에 기반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유지재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초기 유지재단은 재산의 변화를 관리하는 법인으로 기능했기에 유지재단 자체만의 서사와 감성이 그리 풍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단의 기록물도 세세한 역사를 쓰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유지재단 자체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재단설립 과정, 재산의 매매, 이양, 기부, 사용 등에 대한 기술에 국한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선교 헌금은 영혼 구원의 유용한 도구이기에 그 헌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선교사역의 현장이야말로 유지재단 역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유지재단의 재산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지원하면서 한국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유지재단만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지재단을 일구어내고 유지재단 재산을 활용해 선교한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도 간단하게나마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헌신과 뜻은 유지재단의 역사와 함께 현재와 미래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시기 구분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선교사들의 변경된 조직명 및 유지재단의 설립과 주요 재산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유지재단의 활동은 여성 선교사 조직 및 선교사역과 맥을 같이 하기 때

문이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조직을 만들었는데 동일한 조직이지만 명칭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세 차례 변경되었다(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 조선부인선교부, 대한부인선교부). 조직명이 바뀐 시기는 미국에서 남, 북 감리교단의 통합과 선교사 철수라는 주요 역사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1885-1924)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의 한국 선교 개시 및 여성 선교사들의 조직인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전반기인 유지재단 설립(1924) 직전까지의 선교활동을 다룬다.

제2장(1924-1945)은 유지재단 설립부터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한 일제강점기 하반기의 선교활동을 다룬다. 이러한 공식 명칭이 있었지만 주로 “여성선교부,” “부인선교부”라고 불렀다. 1939년 미국에서 남, 북 감리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The United Methodist Church) 두 여성교회도 통합되었다. 이때 미국에서 조직 이름을 The Woman's Society of Christian Service(WSCS)로 바꾸었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여성 선교사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여 Women's Division of Christian Service(WDCS)라고 했다. 이때부터 선교비는 하나의 미국 감리교회에서 보내왔다.

제3장(1945-1958)은 해방부터 1950년대 말까지 다룬다. 특히 여성 선

교사들이 전쟁 동안과 전쟁 후에 펼친 선교 사역 및 그에 따른 유지재단의 재산 변화를 다룬다.

제4장(1958-2007)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후 유지재단 명칭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어 “대한부인선교부”로 바꾸었기에(1958), 이 명칭으로 활동한 재단의 역사를 기술한다. 여기서는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에 재산을 이양하기로 결정한 온양선교정책협의회(1968), 재산 이양 상황, 재단의 활동 등을 다룬다.

제5장(2007-현재)은 여성 선교사들, 유지재단,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독자적인 활동 재개 및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 SWLC)의 설립(2007), 활동, 비전 등을 다룬다.

책의 내용은 여성 선교사들의 주력 사업인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서술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재산 변화를 다룬다. 때로 별도의 글상자에 주요 정보와 사건을 비롯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 중 몇 분에 대해 조명한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420여 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한국에서 섬겼지만 지면상 그들의 활동, 헌신, 개인사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전도부인을 비롯한 한국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분들의 선교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순간이 있다. 그럼에도 이 책

에서 한국 여성의 삶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고 성장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사진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UMC Digital Galleries(“©GCAH”[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로 표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그리고 여러 역사서에서 왔다. 역사를 공들여 사진으로 남기고 수집하고 공유한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감사드린다.

유지재단 100년 역사서를 통해 독자들은 선교사, 특히 여성 선교사, 전도부인,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작은 몸짓이 되고, 앞으로 유지재단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PART

1

1885
~
1924

제 1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885-1924년)

1. 맨 처음 이야기
2.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3.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제 1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885-1924년)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WFMS)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설립한 종교 재단법인이다. 이 유지재단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 6월 16일에 법인설립을 최종 인가받았다. 선교를 시작한지 40년 만에 재단법인이 된 것이다. 그 전까지 미감리교회를 비롯해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회나 국내 교단들의 재산은 선교사나 한국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점차 선교사업이 다방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교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배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유지재단 제도가 없었고, 일제강점기 시작 후 1910년대에는 일본인 종교재단만 설립인가를 받아 재산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20년대야 미감리교회 유지재단을 비롯해 다른 외원 선교회와 국내 교단들이 일제히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2장 서두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펼쳐진 선교 역사를 먼저 돌아보고자 한다.

1. 맨 처음 이야기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탄생과 해외선교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1869년에 탄생했다. 미국 여성이 선교할 능력을 갖추게 된 데는 세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남북전쟁(1861-1865) 동안 사회 활동을 경험한 것이다. 둘째는 19세기 후반부에 급증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는 교회 여성이 연합 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에 교회 여성은 개체교회를 섬기는 여성봉사회(ladies aid society)에 속했다. 여성봉사회는 점차 개체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모임이 되기 시작했고 연회 조직으로 성장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 부인들의 선교 보고를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다. 1869년 3월 클레멘티나 버틀러(Clementina Butler)와 루이스 파커(Lois Parker)는 보스턴의 여성교회 모임에서 인도 여성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여성은 남성 의사와 접촉할 수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여성을 위한 학교가 없는 상황이므로 여성 의사와 교육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 감리교 여성은 인도 여성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 듣고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여성들은 1869년 한 해 동안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설립, 정관 작성, 선교 잡지(*The Heathen Woman's Friend*) 발행, 선교사 파송 등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다.¹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목적은 교회 여성들을 동원, 연합하여 여성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며, 해외 기독교인과 전도부인을 후원하는 데 있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WFMS) 창립자들

당시 보스턴 지역 목사들은 여성의 선교조직을 승인했지만 교단 본부의 선교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여성의 모금운동이 교단 선교비 모금에 방해가 될 거라고 염려했고, 여성이 그러한 모금운동을 할 능력이 있을지도 의심했다. 그래서 당시 선교부 총무였던 존 더빈(John P. Durbin) 박사는 “여성이 돈을 모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했다.² 에드워드 에임스(Edward Ames) 감독도 여성 선교조직에 반대하며 “모금액의 4분의 3은 조직 유지비로 사용될 것이다”고 폄하했다.³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1869년 11월 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외선교를 시작했다.⁴ 교육자 이

사벨라 토번(Isabella Thoburn)과 의사 클라라 스웨인(Clara Swain)을 인도에 파송한 것이다. 또한 1871년 중국, 1874년 멕시코, 남미, 일본, 불가리아와 유럽, 1879년 아프리카, 1882년 미얀마, 1885년 한국, 1887년 이탈리아, 1903년 필리핀 등지로 해외선교를 확대해갔다.⁵

여성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여 해외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을 한 비혼 여성이 많이 생겨나 선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이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선교사역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선교사 계약서에 계약기간(5년) 동안 비혼으로(as a single woman) 지낸다는 조건을 넣기도 했다.⁶ 해외선교는 여성이 본국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남성 지도자들의 반대를 겪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사려 깊은 이들은 이 교회 내 여성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버려 두라. 이런 운동은 전에도 있었다. 반대하지 말고 그냥 두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남감리교회 여성의 해외선교는 사라지기 커녕 역동적이고 두드러진 운동이 되었다.

유지재단의 누룩이 된 두 여성

1883년 9월 한국 선교와 유지재단의 누룩 역할을 할 두 명의 여성이 오하이오 래베나(Ravenna)에서 열린 지방여성교회 모임에 앉아 있었다. 한 여성은 루실 볼드윈(Lucille B. Baldwin)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약간의 돈”을 맡길 테니 한국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⁸ 또 다른 여성은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로 내한한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이었다. 스크랜턴은 여러 지방 모임에서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해외여성교회 모임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같은 지방회에 참석했던 두 여성은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Extend the Gospel to Women by Women)는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회의 표어에 따라 한국 여성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다. 한 여성의 지정헌금과 또 다른 여성의 헌신은 미래에 한국 여성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스크랜턴 대부인의 선교사 파송

메리 스크랜턴은 “기독교 사역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유능한(efficient)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선교사 자격심사를 통과했다.⁹ 그녀는 1884년 11월 볼티모어에서 열린 해외여성교회 총실행위원회(General Executive Committee)에서 파송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을 담아 “시란돈(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도 때로 “대부인”이라 부르기로 한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7개 지회는 선교비를 모아 스크랜턴 대부인에게 첫 해 3,303달러를 지원했다.¹⁰ 미감리교회 선교부가 아들 스크랜턴 가족에게 선교비 3,200달러(생활비 1,200달러 포함)를 배정한 것보다 많았다.

스크랜턴 가족 3대(2세 손녀 어거스타 포함)와 아펜젤러 부부는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2월 27일 일본에 도착했다. 당시 한국은 갑신정변 후 정치상황이 불안했기에 선교사들은 순차로 가기로 했다. 먼저 아펜젤러 부부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도착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닷새 후 일본에 되돌아갔다. 5월 3일 스크랜턴 선교사가 혼자 내한했을 때는 상황이 안정되어 정동의 선교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스크랜턴 대부인과 나머지 일행은 6월 20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스크랜턴과 합류해 역사적인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스크랜턴 선교사 가족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

선교 초기 한반도 상황

서구 개신교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때는 한반도의 격변기였다. 내적으로 조선왕조(1392년 건국)는 무능한 왕실과 지도층, 관리의 부패와 민중 착취, 그로 인한 민중의 저항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러시아, 청나라, 미국, 프랑스 등 열강의 개방 요구와 침략, 특히 일본의 침략이 두드러지는 상황이었다.

고종과 개화파는 외국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강해지자는 개화자강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경계했다. 외국인은 기독교 포교는 물론 개항장 밖에서 거주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었다. 미국 선교사들은 외국인 중 가장 많았고, 개항장 밖에서 사는 유일한 미국인이었다. 고종이 의료와 교육 사업은 허락했기 때문이다.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초기 선교

미감리교회는 1885년 한국선교회(Korea Mission)로 시작해 1904년 한국선교연회(Korean Mission Conference), 1908년 한국연회(Korea Annual Conference)로 발전했다. 미감리교회는 선교가 확장되어 1920년대 14개의 지방(districts)을 가졌다.

남감리교회는 10년 늦은 1895년에 한국선교를 시작했다. 남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1878년 설립)는 1897년 조세핀 캠벨(Josephine P. Campbell)을 한국에 첫 선교사로 파송했다.¹² 남감리교회는 1897년에 한국선교회(Korea Mission), 1918년에 한국연회(Korea Annual Conference)로 발전했다. 남감리교회는 서울, 개성, 춘천,



조세핀 캠벨 선교사

원산에 선교기지를 두고 주변 지역으로 선교를 확대했다.

두 교단은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교회로 통합될 때까지 한국에서 별도로 선교했다(미국에서는 1939년에 통합). 그러나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협력하며 일했다. 스크랜턴 의사와 대부인은 한국인 남성, 여성 전도인을 남감리교회에 보내주어 초기 선교를 도울 정도였다.¹³

서울 선교기지 확보와 선교활동 개시

미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기지를 연 곳은 서울 정동이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1885년 10월 서울 정동에 초가집 19채와 주변 부지를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선교기지로 매입했다.¹⁴ 이듬해 초가집을 모두 헐고 선교사 사택, 학교, 기숙사 용도로 대규모 한옥을 건축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도 옆에 선교기지를 마련하고 각각 남학교와 병원을 열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해 미국 공사관은 외부(외교부)에 패지(牌旨, 등기부) 발급을 요청했고 외부가 패지를 발급해주었다.¹⁵

유지재단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 정동의 선교기지는 선교 초기의 재산목록 1호이다. 특히 왕궁 옆, 양반가, 외국 공사관 동네, 다양한 교파의 해외선교회가 정착한 동네라는 위치와 더불어 규모 면에서 그러하다. 최초의 여학교, 최초의 여성병원, 최초의 여성공동주택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원했기에 학교와 병원을 열고 학생과 환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곧바로 복음 전도를 시도했다. 그들은 정부가 종교 활동을 묵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교회 건축, 사역자 양성, 복음 전도, 문서사업 등을 적극 실행했다.

선교사와 전도인은 즉시 선교를 서울 외곽과 지방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1887). 미감리교회는 여러 선교기지에서 진료소(dispensary), 예배처(chapel), 매일학교(day school)를 열어 교회를 성장시켰다. 거점 교회가 성장하면 주변 방방곡곡에 교회와 학교를 열었다. 선교사는 순회목회자, 교사, 행정가 등 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곧 한국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일을 분담했다.

한국 선교를 위한 첫 헌금: 루실 볼드윈(Lucille B. Baldwin) 부인

볼드윈이 1883년 9월 레베나지방 여선교회에서 드린 선교헌금은 한국을 잘 모르던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와 회원들에게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게 했다.

볼드윈은 애크론(Akron) 지방의 맨리(Manly)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국 선교 지정헌금에 대해 이렇게 썼다. “*Christian Advocate*(미감리교회 기관지)에서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읽었을 때부터 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십자가 깃발이 한국에 꽂히고 한국 전체가 선교 군병들의 캠프파이어로 둘러싸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제가 지시하지 않겠지만 그 돈이 중심이 되어 주님의 금과 은이 모아지고 그게 도움이 되어 한국에 복음의 빛이 닿게 된다면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¹⁹

볼드윈은 이후에도 선교헌금을 보냈다. 미감리교회가 정동 양반가를 벗어나 사대문 밖 빈민을 섬기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건축 사업을 지원했다. 그녀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볼드윈(여성)진료소, 볼드윈예배당, 볼드윈여학교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첫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



스크랜턴 대부인은 미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약 50세였던 때에 어떻게 52세의 나이로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을까?

코네티컷 출신의 스크랜턴 대부인은 40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했다. 그 후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돌보며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아들은 뉴욕의과대학(현재 콜롬비아대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결혼하여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했다. 스크랜턴 대부인도 아들 부부와 살면서 거기서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활동을 이어갔다.

1884년 오하이오의 스크랜턴 가족 집에 일본에서 활동하던 메리맨 해리스(Merriman C. Harris) 선교사가 방문했다.²¹ 그는 스크랜턴에게 한국에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아들 부부는 선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 해 여름

스크랜턴 의사는 장티푸스로 한 달간 앓고 난 후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대부인은 나이를 생각해서 선교사가 되기보다는 아들 부부를 보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지도자들은 대부인이 직접 선교사로 갈 것을 요청했다.²²

한국에서 스크랜턴 대부인의 활동은 크게 교육사업과 전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육사업으로는 한국 최초의 여성 학교인 이화학당(1886)과 매일학교들, 여성 신학교(1894)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대부인의 전도사업은 정동교회와 상동교회를 비롯해 수원과 경기도 곳곳에서 전도사업을 펼쳤고 전도부인들을 지원했다.

대부인은 안식년을 모국에서 보낼 때마다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성 선교사 숙소인 메리스크랜턴기념관(1898년 동대문),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드기념예배당(1901년 상동교회) 등 건축사업을 지원했다.

대부인은 70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1901년 7월~1904년 10월 미국 병가) 몸이 회복 되자마자 선교활동에 전념했다. 대부인의 마지막 9주년을 곁에서 돌본 알타 모리슨(Alta I. Morrison) 간호사에 의하면, 대부인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고통이 극심했을 때는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소서”(Give me a calm, a thankful heart...)라는 가사의 찬송을 부르곤 했다.²³ 스크랜턴 대부인은 내한 25년째 되던 1909년 10월 8일 새벽 향년 77세의 나이로 상동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대부인은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염려하자 본인은 한국에서의 선교를 희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²⁴ 한국 여성 교육의 개척자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활동한 스크랜턴 대부인은 선교를 특권으로 여긴 한국 땅,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묻혔다.

Heathen Woman's Friend

VOL. XXI.

MARCH,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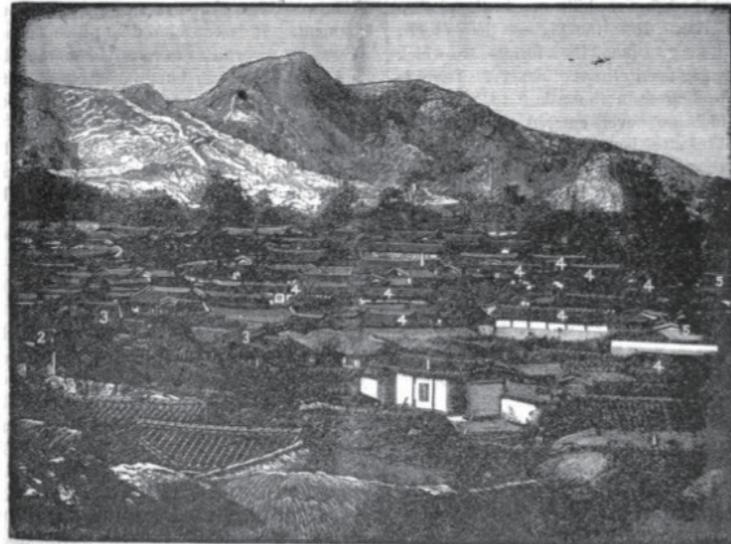
No. 9.

A SECTION OF THE FOREIGN SETTLEMENT, SEOUL, KOREA.

BY MRS. M. F. SCRANTON.

This picture is more nearly a representation of things as they used to be than as they are at the present time. In some parts of Seoul changes have gone forward during the last five years with a rapidity which has been somewhat

were old and dilapidated, and were taken down to widen the street, and also to give clear and clean breathing space to the various compounds. The little low building in the foreground, marked No. 1, is Dr. Scranton's hospital gate



astonishing to the natives, and has given a degree of comfort to foreign residents. I presume it is needless to say that all improvements have been the work of foreigners.

A mass of the buildings which are seen in the lower part of the picture exist no longer. They

and gateman's house. No. 2 is a corner of one of his hospital wards. The buildings marked No. 3, or rather the ground on which some of them stand, belong to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the upper one is our hospital. The Presbyterian Board property is

초기 정동 선교기지 모습을 소개한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잡지(1890)



미감리교회 서울 선교사들 (1909) ©GCAH; 뒷줄(왼쪽부터): 존스 의사, 버딕 목사, 스웨어러 목사; 가운데 줄: 존스 부인, 케이블 부인, 해리스 감독, 스웨어러 부인, 모리슨 양, 프레이 양; 앞줄: 반버스키크 의사, 마커 양, 케이블 목사, 엘벗슨 양, 터틀 양



미감리교회 평양 선교사들 (1909) ©GCAH; 뒷줄(왼쪽부터 성인만): 베커 목사, 빌링스 목사, 로제타 홀 의사, 폴웰 의사; 가운데 줄: 로빈슨 양, 노블 목사, 노블 부인, 앞줄: 릿 노블, 루퍼스 부인, 헤인스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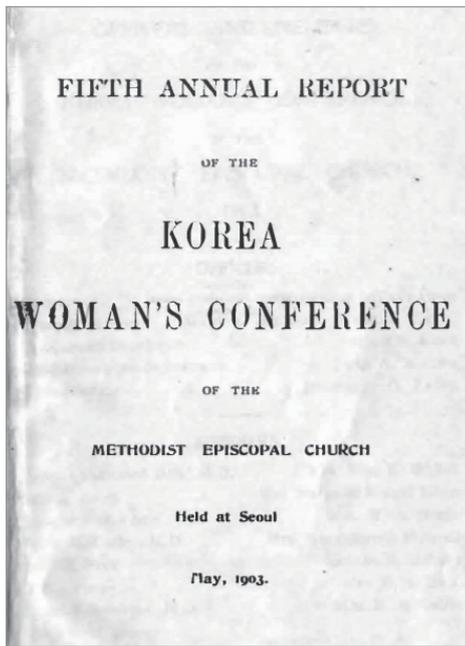
2.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의 조직

선교 개시 14년 후인 1899년에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사들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The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Korea, 이하 미감리교회 부인회)를 만들었다.¹⁶ 회원은 선교사,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선교사 부인(무급), 그리고 소수의 한국 여성이었고, 주요 결정권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사들이 가졌다.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연례적으로 모여 임원 선출, 결의 사항, 지역 및 부문별 선교활동 보고 등을 다루었다. 바로 이 미감리교회 부인회가 유지재단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조직이었다(1924).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 명칭은 유지재단을 설립하며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성교부,” “부인선교부”라는 약칭이 1970년대까지도 쓰였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회 연례회의록(1903)

선교지 재산위원회

1914년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산하에 선교지 재산위원회(Property Committee 또는 Field Property Committee)를 두게 되었고 3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선교지 재산위원회의 역할은, 미감리교회 부인회가 선교 사업의 확장 및 신설에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을 알아보는 일이다. 예를 들어,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시골 매일학교로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또는 둘을 마련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재산위원회에 요청했다.¹⁷ 그러면 재산위원회가 마땅한 부지를 찾아서 뉴욕의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본부에 필요한 기금을 요청하는 식이었다. 본부는 이런 요청에 대해 해외여성교회 재산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했다.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했다. 1923년까지 이렇게 생겨난 재산은 유지재단 설립시 재산으로 등록되었다. 선교지 재산위원회는 유지재단 설립 후에도 존속해 유지재단과는 별도로 사택, 차량 등 재산의 보수, 관리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일제강점기 상황과 조선부인회 활동

선교를 시작한 지 약 20년 되었을 무렵 일제는 일련의 침략 단계를 밟아 1910년부터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의 삶은 물론 선교에도 매우 어려운 때였다. 일제의 정책은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 국토의 약 40%를 불법으로 탈취하여 일본인 회사와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은 임야도 50% 이상을 탈취했다. 일제는 「회사령」(1910), 「조선광업령」(1915) 등 각종 법령으로 한국인의

산업을 착취하고 경제발전을 억압했다. 수많은 한국 농민은 소작농이 되어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해야 했다.¹⁸ 교인들도 이주를 해서 이들 지역에서 선교가 시작되었다.

일제가 공포한 여러 법령과 규정이 선교활동을 크게 저해했다. 기독교인은 일찍 근대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므로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일제는 선교사와 교인을 통제하고 억압하고자 했다(예를 들면 1911년 “105인 사건”). 교회는 일제 통치로 인한 한국인의 빈곤화와 해외이주, 1919년 3.1운동 후 교인의 도피 등으로 교인 및 헌금 감소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유치원사업과 사회사업을 새로 펼쳐서 이 분야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추가되었다. 1920년대에는 교파 간의 연합사업이 두드러졌다. 연합으로 운영했던 많은 학교, 병원, 기관이 현재 독자적인 재단법인을 갖게 되어서 각 교파가 투자한 선교기금은 한국 사회에 제공한 선물로 남게 되었다.

목회자로서의 여성 선교사들

선교 초기에 한국의 한 지성인이 선교사에게 말해주었다. “한국을 얻으려면, 여성들을 얻으려면 어머니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전체가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²⁵ 남성 선교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성들의 목회자였다. 한국 상황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의 탄생 배경이 된 인도 상황과 비슷했다. 남녀의 도리, 역할, 공간을 철저히 구별하는 내외법 때문에 여성만이 여성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선교사는 미감리교회 선교부의 규정에 따라 부부 선교사의 파송지에서 여성 사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²⁶ 그럼에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선교사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선교사업을 펼쳤다.



WFMS 선교사(1898) © *Fifty Years of Light*

윗줄(왼쪽부터): 릴리안 해리스, 루이자 로드와일러, 메리 스크랜턴, 조세핀 페인, 엘라 루이스
아랫줄: 메리 커틀러, 넬리 피어스, 룰루 프라이, 로제타 홀

교파별 선교구역과 여성 선교분야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는 정해진 선교구역이 있었다. 서구 개신교 교파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지역을 나누어 선교구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 평양 등 도시에서는 모든 교파가 함께 선교할 수 있었다. 미감리교회는 서울, 인천, 수원, 공주, 영변, 평양, 해주를 중심으로 선교했고, 남감리교회는 서울, 개성, 원산, 춘천, 철원을 중심으로 선교했다. 이들은 대표 도시였고 실제적 지리 범위는 주변의 시골 전역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공주는 천안, 태안, 충주, 강경까지 포함했다. 이러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확장하여 지방(district) 수를 계속 늘려갔다.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여성 선교사들도 이들 지방의 거점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을 펼쳤다.



해주 여성선교센터와 사택 ©GCAH

3.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여성 선교사들의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사업이 교육이었고, 모든 교육이 전도였다.²⁷ 연례보고서에서 여자신학교와 간호원양성소에 대한 보고가 교육사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전도사업과 의료사업에 나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교육사업

구한말에 교육이란 상류층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사업을 펼쳤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늘 부족했지만 주일학교, 사경회, 기숙학교, 매일학교(초등학교), 순회학교, 야학, 성경학원(신학교), 맹아학교, 간호원양성소 등 다양한 배움터를 열고 창의적으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열었다.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은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사립학교규칙”과 “조선교육령” 때문에 교육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는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시설과 재정요건을 강화해 사립학교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수많은 사립학교가 인가를 받지 못해 문을 닫거나 비인가 학

교, 서당(글방), 야학으로 운영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중등, 고등교육의 팽창을 막는 우민화정책과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했다. 여학교의 예를 들면, 1938년까지 한국인에게는 고등보통여학교(여고보) 학제를, 일본인에게는 그보다 높은 고등여학교라는 학제를 적용했다. 한국인의 여고보 취학률이 일제강점기 내내 1%를 넘지 못한 반면, 한국 내 일본 여성의 취학률은 1930년대 후반에 약 50%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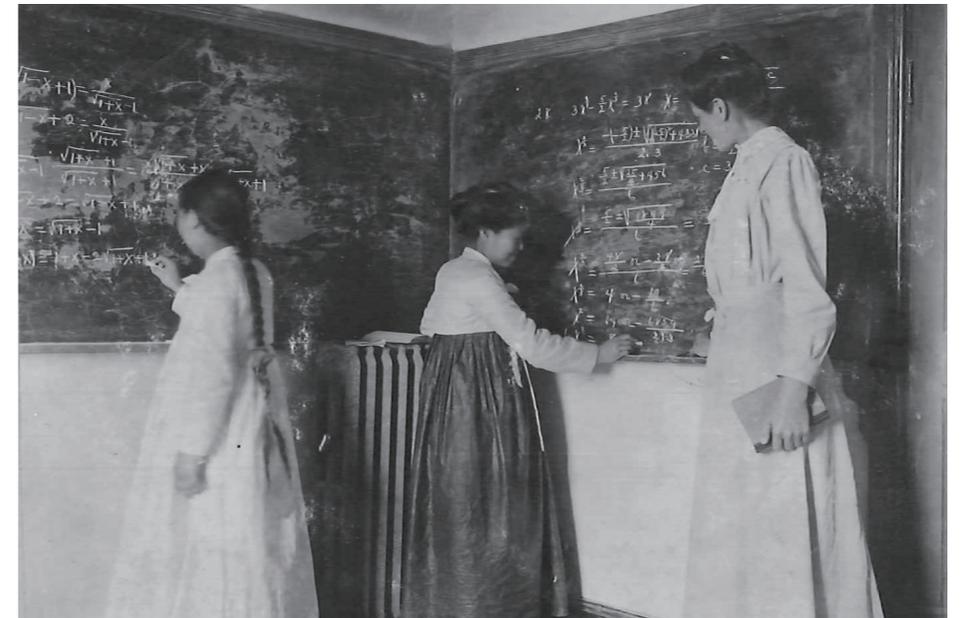
여성 선교사들은 일제의 정책을 수용하여 통제를 피하는 한편, 유치원을 신설하고 최대한 보통학교와 고등과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에 인가받은 한국인 여성 중등교육기관(여고보)은 10개 정도였는데, 그 중 감리교 학교가 절반이 넘는 정도였다.²⁹

서울(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열었지만(1886) 소녀 교육을 위한 학교가 아예 없던 시대에 서양 선교사가 시작한 학교에 딸을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다. 1886년 영어를 배우려고 왔지만 약 3개월 만에 떠난 김씨 부인(정부 관리의 첩) 후에 첫 공식 학생 2명은 가난 때문에 맡겨진 한 아이와 전염병에 걸린 엄마와 함께 길에 버려진 네 살배기 아이(별단이)였다.³⁰ 첫 해동안 스크랜턴 대부인의 학교는 가난한 소녀들을 돌보고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아 왕실로부터 사액현판과 외국인을 보호하는 호위병사인 기수(旗手)를 받았다(1887).³¹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의 남학교와 병원도 각각 배재학당, 시(施)병원이라는 사액현판과 기수를 받았다.



정동 이화학당 ©Fifty Years of Light



이화학당에서 대수를 가르치는 헤닉(Haenig) 선교사(1910년대) ©GCAH

1910년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이화학당에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 사범과를 개설하여 거점 선교지에서 유치원 설립과 교사 확보를 꾀했다.³² 이화학당의 지교도 서울에 계속 생겨났다.

1880년대 말 선교가 서울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스크랜턴 대부인은 서대문에서 애오개여학교를, 남대문에서 공옥여학교(1895)를, 동대문에서 볼드윈진료소(Baldwin Dispensary, 이화대학병원으로 발전), 볼드윈예배당(Baldwin Chapel, 동대문교회), 볼드윈매일학교(1892; 1906년 동대문여자보통학교로 발전)를 열었다. 이들 세 지역에서 시작한 선교는 현재 유력한 기관 및 교회로 발전했다. 학교와 동대문 병원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된 후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지역의 아현교회, 남대문교회, 동대문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재정 지원과 여성 선교사들의 활약이 많았다. 그러나 교회와 목사 사택의 경우 기독교조선감리회가 1930년 설립된 후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1926년 설립)의 재산으로 등록되었다.³³

남감리교회의 캠벨은 1898년 남송현(남대문)에서 소년, 소녀 5명으로 매일학교를 시작하고 여자사경반(Bible Class)을 만들어 전도부인 양성을 꾀했다.³⁴ 1898년 8월에 학교와 여성 선교부를 고가나무골(종로구 내자동)로 옮기고 캐롤라이나학당(1903년 배화학당, 1909년 배화여학교로 개칭; 현재 배화여중고, 배화여자대학교)을 열었다.³⁵ 배화여학교는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주력 교육기관이 되었다. 남감리교회는 고양읍교회와 광희문교회 등지에도 매일학교를 열었다.



배화학당 교사와 학생(1906)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평양, 영변, 해주(미감리교회)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허을) 선교사는 평양에서 교인의 딸인 시각장애인 오봉래(Prudence)를 가르치기 시작해 최초의 특수학교인 평양 맹아학교로 발전시켰다.³⁶



초기 평양 맹아학교 ©GCAH



로제타 홀과 평양 맹아학교 졸업생들(1915) ©GCAH



루이스 감독을 환영하는 영변 여학생 ©GCAH

1896년 매티 노블(Mattie W. Noble) 부인이 거실에서 9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정진여학교는 정의여고보로 발전했다(1923).³⁷ 진남포여학교의 고학년 학생들은 한학을 배우기 위해 남자 옷을 입고 날마다 남학교 수업에 갈 정도로 배움에 열심이었다(1906).³⁸ 노블 부인과 폴웰 부인이 1899년 시작한 “전도부인 양성과”(Women’s Training Class)는 헨리에타 로빈스(Henrietta P. Robbins) 선교사의 노력을 통해 1923년 신축 건물을 가진 “여성성경학원”(Bible Woman’s Institute)으로 발전했다.³⁹

평안북도 영변에서는 에델 에스티(Ethel M. Estey) 선교사가 소녀, 소년 승덕학교(1906)와 승덕중학교(1909)를 설립했다.⁴⁰ 해주에서는 1900년대 초반 메리 힐만(Mary R. Hillman, 힐만)과 룰라 밀러(Lula A. Miller, 미라) 선교사가 의정여학교(1909; Lucy Scott Memorial School)를 설립했다. 1911년 해주에는 소녀 매일학교가 5개 있었고 학생은 200명이었다.⁴¹



채플 시간을 위해 이동하는 영변 송덕여학교 학생들(1913년 캠벨기념관 신축) ©GCAH

인천, 수원, 이천, 원주, 강릉(미감리교회)

인천에서는 1892년 마거릿 벤젤(Margaret Bengel) 선교사가 영화학당을 열었다(현재 영화초교, 영화여자상업고교, 영화국제관광고교). 영화학당을 중심으로 인천 전역과 주변 섬들에 매일학교가 계속 늘었다.

수원에서는 1902년 스크랜턴 대부인이 수원읍교회(현재 종로감리교회)에 삼일여학교를 열었다.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한 순회교사가 8-9개의 매일학교를 방문하며 가르쳤다.⁴² 이천에는 1907년 양정여학교(현 양정여중고 전신)가 설립되었다. 원주에는 1910년대 초에 매일학교와 학사(hostel)가 생겼다. 1914년 제시 마커(Jessie B. Marker, 마거) 선교사는 여성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학원을 시작했다.⁴³ 1915년 원주의 여성교육 풍경은 메리 힐만 선교사가 보여주는데, 밤마다 나가서 여성들을 야학으로 데

려오고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 젊은 며느리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느라 애썼다.⁴⁴ 1918년 일제가 황성 매일학교를 폐쇄하는 바람에 원주·강릉지방에 매일학교가 하나도 없었지만 대신 9세까지의 아동을 가르치는 예비학교(sub-primary)가 4개 있었다.



수원여학교 ©GCAH



원주 선교사 가족과 한국인 지도자들 ©GCAH

공주, 천안(미감리교회)

1905년 앨리스 해먼드 샤프(Alice J. Hammond Sharp, 사에리시) 선교사가 공주읍에서 설립한 명선여학당은 1915년 영명여고보로 인가받았다. 샤프는 논산(1909), 강경(1914), 경천(1914) 등지에서 매일학교를 열었는데, 「기독신보」는 강경 만동여학교 첫 졸업식(1917)에서 다른 데서는 흔한 졸업장을 부모들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모습(요동지시)에 대해 전했다.⁴⁵ 천안은 1917년 지방(district)이 되면서 스웨어러(L. M. Swearer) 부인과 에이다 매퀴(Ada McQuie, 귀애다) 선교사가 여성사역을 맡았고 1922년 천안읍 교회에 유치원을 설립했다.



샤프 선교사(맨 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와 영명여학교 교사, 학생들(1915) ©GCAH



공주 유치원 ©GCAH

개성, 원산, 춘천, 철원(남감리교회)

개성은 감리교회의 대표 선교기지였다.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들은 특이하게도 남학교로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1899년 아레나 캐롤(Arrena Carroll, 갈월)은 인삼을 저장하던 초가 “쌍소나무집”을 구입해 남학교를 열었다. 소녀 교육은 1903년 새디 하보(Sadie B. Harbough)가 여아 대상으로 주 1회 가르치며 시작되었다. 1904년 캐롤은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 선교사와 크램 부인(Mrs. W. Cram)과 함께 기숙학교인 두을라여학당(Tallulah Hargrove Memorial)을 열었다(1917년 호수돈여자보통학교로 발전).⁴⁶ 1916년 처음으로 유치원을 신축해 열었고 이어서 호수돈 동, 남, 북 유치원을 냈다. 개성의 또 다른 여학교는 주로 기혼여성, 만학 여성을 위한 미리흠(Mary Helm)여학교였다(1906년 크램 부인이 “성경학교”로 시작해 1922년 인가).⁴⁷ 여성 교역자 양성을 위한 “송도여자성경학원”(Bible Training School, 1908년 설립)은 초기에 학생들이 각자 식량을 가져와 3개월간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⁴⁸

원산에서 아레나 캐롤과 메리 노울즈(Mary H. Knowles) 선교사는 1903년 루씨건잉금(Lucy Cunningham) 기숙학교(“루씨여학교”)를 열었다.⁴⁹ 1919년에는 루씨건잉금 유치원을 시작했다.⁵⁰ 노울즈가 1906년 5, 6칸 초가집을 매입해 “반렬방”(The Class Rooms)으로 시작한 여성사역자 양성학교는 1908년 서양식 건물의 원산성경학원(“Alice Cobb 성경학원”)으로 발전했다(1923년 학생 95명).⁵¹ 1923년 무렵 원산의 거의 모든 교회는 여성과 소녀를 위한 야학을 운영했다.⁵²

춘천의 경우, 1909년 무스(Magnolia D. Moose) 부인이 집에서 시작한 강원도 첫 여학교가 1911년 4년제 “사립정명여학교”로 발전했다. 1924년에는 대판리에배당 터(현재 조양동)에 새 건물을 지었다(1937년 폐쇄).⁵³ 1910년 로라 에드워즈(Laura E. Edwards, 애도시)와 앨리스 노이스(Alice D. Noyes) 선교사가 춘천에 부임해 부인사경회, 정명여학교, 주변 지역의 매일

학교를 운영했다.⁵⁴ 철원에서는 1921년 무어 부인이 집에서 시작한 여자야 학교가 크게 발전했다.



개성 남부유치원 ©『호수돈백년사』



원산 루씨여학교(1910년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한국선교 25년 후인 1910년에는 매일학교가 51개, 학생 1,786명으로 증가했다.⁵⁵ 학생이 늘어날 때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학교를 확장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이었다. 새로운 토지 매입과 건축을 위한 기금은 주로 미국 여성교회 본부와 지회, 개인과 교회의 지원에서 나왔다. 남감리교회는 선교사 개인의 모금을 금한 반면, 미감리교회 선교사들은 교단의 현금 및 모금과 부딪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모금을 할 수 있었다.⁵⁶

한국인은 많은 학교, 병원, 예배당, 건물의 이름을 한국명으로 불렀지만 선교사들은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 영어명으로 불렀다. 예를 들면 평양의 정의여학교는 건축비를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펜실베니아 와이오밍지회가 지원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와이오밍여학교(Wyoming Memorial Girl's School)라 불렀다(1902). 그 후 새 건물이 필요해 뉴잉글랜드 독지가의 후원으로 근처에 2층 벽돌건물과 평양 최초로 4층 건물인 레베카 윌리엄즈(Rebecca J. Williams) 기념관을 차례로 지었다.⁵⁷ 연회록에는 수많은 기부자의 이름이 나오고 선교사들은 그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기관과 건물 이름에 남겼다.

오랫동안 유지재단의 재산목록에 들어 있던 여학교들은 초기에 주요 선교기지에서 설립된 후 계속 성장해 현재까지 존재하는 학교이다. 북한을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서울 이화, 인천 영화, 수원 매향, 이천 양정, 공주 영명 등이다. 시골의 매일학교들은 교사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문화가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 지역 유지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마련하고 교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났다. 시골 매일학교들은 유지재단 설립 시 재산목록에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일제 교육령에 맞추지 못한 매일학교들이 통합, 폐쇄 등을 겪으며 재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도 유지재단 재산으로 남아 있던 시골 매일

학교는 강화 신문리 보고암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사라지고 재산만 남아 있었다.⁵⁸

남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910년에 기숙학교 3개(서울, 원산, 개성에 각 1개)와 학생 265명이 있었고, 매일학교 6개(서울 2, 개성 2, 원산 1, 춘천 1개)와 학생 223명이 있었다.⁵⁹ 학교 부동산과 운영비는 계속 증가했다. 개성의 예를 들면, 1921년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미리흠기숙사가 금방 차서 대기자들을 위해 옆집을 매입하려고 준비했다.⁶⁰

남감리교회 여선교부는 별도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과 재산을 함께 운영했다. 그래서 서울의 배화여학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 유치원, 미리흠여학교, 송도여자성경학원, 원산의 루씨여학교, 유치원, 원산여자성경학원, 춘천의 정명여학교가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며(1925) 재산으로 등록되었다(국가기록원 문서번호 CJA0004766).

스크랜턴 선교사의 교육관



이화학당 초기 학생들 (1890년대) ©GCAH

스크랜턴 대부인과 교육관을 공유했을 법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하면, 교육은 한국인과 한국적인 것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했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 소녀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조선인을 보다 나은 조선인으로 만드는 데 만족한다. 우리는 조선이 조선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⁶¹

소녀 매일학교

선교사들은 많은 교회에서 매일학교(초등과정)를 열었다. 매일학교(day school)는 기숙학교가 아니라 매일 통학한다는 의미였다. 소년, 소녀 별도의 매일학교도 있었고, 학생이 적을 때는 소년소녀 매일학교도 있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사들은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매일학교에 자원을 먼저 투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소녀 매일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해서 운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교인들이 먼저 딸을 학교로 보내도록 독려했다.⁶² 교회는 공간, 인력, 조직이 있는 곳이어서 쉽게 학교로 쓸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학교가 부족하던 시기에 “교회의 학교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⁶³

매일학교 교사는 여성 선교사들과 선교사 부인들이었고,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졸업생들이 전국 매일학교에서 가르쳤다. 매일학교는 전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펜젤러는 “이화학당 부인들(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사들)이 관리하는 매일학교들이 전도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고, 예배 참석이 늘고 있다”(1899)고 높이 평가했다.⁶⁴



초기 소녀매일학교 ©The Lure of Korea

박해 속에 학교에 가는 소녀들

많은 딸, 며느리, 아내가 학교나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부모, 시부, 남편의 폭력과 박해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자주 등장한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논산 영화여학교의 경우, 샤프 선교사는 조사(helper)의 어린 딸과 15세 소녀, 단 2명으로 여학교를 시작했다.⁶⁵ 15세 학생은 학교를 너무도 좋아했는데 들킬 때마다 아버지한테 맞았다. 샤프는 기록하기를 미국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서 가끔 맞는데 이 아이는 너무 배우고 싶어 해서 맞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딸을 혼사가 처음 들어오는 곳으로 시집보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소녀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최대한 밤에 몰래 나와 공부를 했다. 샤프는 아버지에게 딸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하며 겨우 설득했다. 실제로 샤프는 이 학생을 이화학당으로 보냈다.



강경 초가 교회에 묵으며 만동여학교 공사를 감독하는 샤프 선교사 ©GCAH

3.1 독립운동과 기독교 여성의 활약

1919년 3월 1일 한국인은 전국 규모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친 평화 시위였지만 일제는 몽둥이, 총, 칼 등의 폭력으로 대응했다. 일제는 3.1운동 배후에 종교들, 특히 기독교가 주축이라고 판단하고 교인들을 박해했다. 교인 21명을 교회로 모아 문을 잠근 후 불 질러 죽인 수원 제암리감리교회 사건은 그 중 한 예이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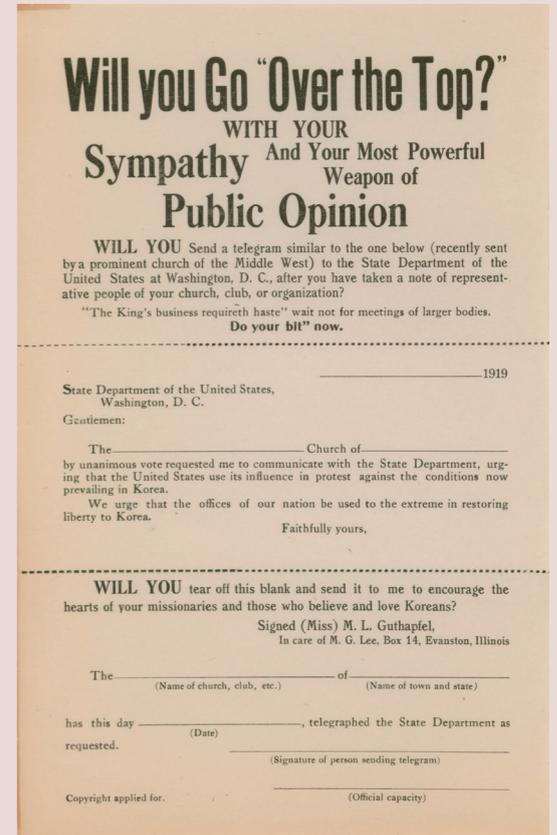
당시 인구의 1.3%였던 기독교인이 3.1운동으로 수감된 8,437명 중 24%에 달했다.⁶⁷ 여성만 살펴보면, 총 여성 수감자(176명)의 86%가 기독교인이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여성, 특히 이화학당과 배화학당 학생들을 포함한 여학생들은 3.1독립운동의 조직과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많은 여학생이 수감 중 모욕적이고 잔혹한 고문으로 사망했는데, 공주 영명학교와 서울 이화학당을 다닌 유관순의 예는 잘 알려져 있다.⁶⁸



유관순과 어윤희

개성에서는 여자성경학원 사감인 어윤희와 학생들, 호수돈여고보와 미리흠여학교 학생들이 비밀리에 준비해 3월 3-5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⁶⁹ 평양의 감리교 여성들은 3.1운동 직후 대담하게도 비밀 항일결사조직인 애국미감리교회 부인회를 결성하여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곧 장로교 여성들과 연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로 활동하다가 1920년 100여명이 체포되었다.

한국에서 약 10년(1903-1912)간 선교한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L. Guthapfel) 선교사는 3.1운동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했다(The Korea Campaign).⁷⁰ 구타펠은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고발하고,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하는 순회강연을 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국 독립을 청원했다. 한국정부는 구타펠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⁷¹



구타펠 선교사가 미국민에게 서명을 호소한 한국 지지 서명문(1919)
© 독립기념관(자료번호 1902)

호수돈여학교에 딸을 보내고

와그너 교장은 세 학기를 마치고 학부모를 보며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우리 학교는 전액 무료는 아니고 부모가 딸 교육을 위해 식량과 옷을 보낸다. 가깝게는 15리부터 멀게는 150리 길을 걸어서 아버지들이 쌀과 돈을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한 달 치 쌀 7되와 작은 옷 보따리를 등에 지고 온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역경, 비참한 가난, 무지, 미신, 억압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린 것보다 더 나은 혜택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려고 영웅적 노력을 기울인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의 자기희생은 딸과 딸의 교육에 대해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할 것이다.”⁷²



개성 호수돈여학교 본관(왼쪽)과 대강당 ©『호수돈백년사』

초기 기독교인의 교육열

일제의 침략이 깊어지던 시기에 한국인은 교육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교육구국운동”을 펼쳤다. 남감리교회 교육위원회 보고(1909)는 한국인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원했는지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복음화가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선도 기관으로 써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은 선교사업을 보존하고 완전하게 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교인들은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한다. 시골 교회들은 학교의 모든 비용을 딸 테니 제발 크리스천 교사를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⁷³

의료사업

선교 초기에 한국 사회에는 복음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의료 선교는 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초기 의료선교는 대개 의사 한 명이 작은 진료소에서 일하며 순회 진료를 병행했다. 그런데 여성 환자들은 스크랜턴의 시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근처까지 와서도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실정이었다. 여성 의사가 꼭 있어야 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1886년 첫 의사선교사 메타 하워드(Meta Howard)를 시작으로 서울, 평양, 인천 등지에서 의료사업을 펼쳤다.⁷⁴

남감리교회는 개성, 원산, 춘천에서 의료사업을 펼쳤다. 병원이 극히 적던 시대라서 각 병원은 시설과 인력에 비해 원근각처에서 오는 환자들이 넘쳤고 의료진은 복음전도까지 하며 일했다.⁷⁵ 남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 병원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여성 의사를 파송하지 않았고, 대신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병원에 간호사선교사를 파송했다. 미감리교회가 처음 의료사역을 시작할 때와 달리 선교 25년 후에는 여성도 여성전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상황이 엮보인다. 1910년 춘천과 개성의 새 환자를 보면 여성과 어린이가 남성 못지않게 진료를 받았다(춘천은 남성 713명, 여성과 어린이 572명; 개성은 각 1,192명과 1,048명).⁷⁶ 여성 선교사, 한국인 간호사, 전도부인 등의 도움으로 여성과 소녀가 서양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2년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을 시작으로 1913년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을 비롯해 계속해서 법령을 만들어 기독교 의료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다.⁷⁷ 특히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사 자격시험을 의무화한 것은 의료 선교를 심각하게 저해했다. 이에 미감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파는 세브란스병원의학교를 1913년부

터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공동 운영하며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서울, 인천(미감리교회)

1887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의사선교사 하워드는 정동에 최초의 여성병원을 열었고, 곧 정부로부터 “보구녀관”(Salvation for All Women Hospital)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은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신의 팔에서 땀 피부를 화상환자에게 이식해주었고(로제타 셔우드), 버려지는 중환자를 받아주고 왕복 28~64킬로 왕진을 다녔다(메리 커틀러).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잡지에 실린 메타 하워드 의사선교사의 보고 속 보구녀관(1890)



서울 정동 보구녀관 ©GCAH

1903년 커틀러는 마가렛 에드먼즈(Margaret J. Edmunds)와 보구녀관에서 간호원양성소(1912년 동대문으로 이전; 현재 이화여대 간호대학)를 열었다.⁷⁸ 또한 곧바로 간호복, “간호원” 용어, 간호 규칙 등을 최초로 만들었다. 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환자들은 “보구녀관의 간호원은 영국 여왕을 간호해도 될 만큼 훌륭하다”고 칭찬했다.⁷⁹

셔우드(홀)의 노력으로 한국인 여성 의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셔우드의 의료보조훈련반(Medical Assistant Training Class, 1891) 출신인 박에스터(김점동)는 볼티모어여자의학교를 마치고(1900) 의사 최초의 여의사 및 의료선교사로 보구녀관을 맡아 일했다(1901-1903). 박 의사선교사는 지방의 위생교육과 선교까지 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1910년 4월에 사망했다.



보구녀관 간호원양성소 제2회 예모식(1907) ©GCAH



박에스터(김점동), 최초의 한국인 의사선교사
© *The Story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로제타, 셔우드, 이디스 홀과 박에스터 부부(1895)
©양화진문화원



(왼쪽부터) 김해지, 김영흥, 안수경의 졸업사진. 뒷줄에 로제타 홀(왼쪽)과 메리 커틀러 ©Korea Woman's Conference(1918)

홀과 커틀러는 1913년 의학강습반(Women's Medical Class)을 열고 여학생 셋을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에서 수업을 받게 해 최초의 국내과 의사를 배출했다(1918년 안수경, 김영흥, 김해지).⁸⁰

동대문의 볼드윈진료소는 1912년 병원 신축으로 릴리언해리스기념병원(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이 되었다. 정동의 보구녀관과 간호원양성소도 동대문 병원에 통합되었다(1913).

홀은 1921년 인천에 제물포부인진료소를 열고 김영흥 의사에게 맡겼다(현재 인천기독병원).⁸¹ 1923년에 간호사선교사 버타 코스트럽(Bertha A. Kostrup)이 부임해 유아진료소를 설립하고 복음전도 및 위생과 건강법을 가르쳤다.⁸²



언덕 위 동대문 릴리언해리스기념병원과 아래 볼드윈교회(왼쪽 기와집) ©GCAH

평양(미감리교회)

홀(셔우드)은 1897년 순직한 남편(윌리엄 홀 선교사)을 기념해 “기홀 병원”(Hall Memorial Hospital and Dispensary)을 짓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광혜녀원”(Women’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을 열고 여성을 진료했다.⁸³ 1920년 기홀병원, 북장로교회 제중병원과 연합하여 “평양 연합기독병원”(Pyeng Yang Union Christian Hospital)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⁸⁴

원산, 영변, 해주, 공주, 원주(미감리교회)

미감리교회는 원산(1892), 공주(1903, 자혜병원), 평북 영변(1908, 제중원), 해주(1910, 구세병원), 원주(1913, 서미감병원)에 진료소를 열었다. 1916년 해주 구세병원에서 에지(S. Edge) 간호사선교사는 간호원양성소를 시작했다. 공주에서는 1923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간호사선교사 마렌 보딩(Maren Bording)이 부임해 여성과 어린이 의료사업이 발전했다.⁸⁵

개성, 원산, 춘천(남감리교회)

남감리교회는 1900년대 초반에 개성, 원산, 춘천에서 차례로 병원을 짓고 의료사업을 발전시켰다. 개성에서는 남성병원(南星, Ivey Memorial Hospital, 1907년 신축)이 유명했다.⁸⁶ 길버타 해리스(Gilberta Harris) 간호사선교사는 리드 부인과 함께 간호원양성소(Nurses’ Training Department)를 열었다(1911).⁸⁷ 원산은 1905년 구세병원을 건축했고 1922년 병원 확장 후 여러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다. 춘천에서는 1908년 춘천예수교병원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평양 광혜녀원(오른쪽)과 기홀병원 ©GCAH

서울 동대문 병원, 평양 광혜녀원, 제물포부인진료소는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설립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미감리교회 병원은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이었다. 개성, 원산, 춘천의 병원은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한국 여성이 기독교 복음과 교육을 만날 때: 조선 최초의 간호사 이그레이스와 김마르다

기독교 복음과 교육을 처음 접하고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국 여성의 이야기는 수없이 등장한다. 비참한 삶에서 신앙인이 되고 간호교육을 받아 간호사, 교수, 의사, 병원장으로 일하게 된 이그레이스(복업)와 김마르다가 그 한 예이다.

복업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종살이를 하다가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해 기어다니게 되었고 주인에게 쫓겨났다. 복업은 홀 선교사의 수술로 회복했고 1897년에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그레이스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이그레이스는 한국 여성 최초로 정부(총독부)의 의생(의사) 면허를 받았고(1914년 5월) 수원에서 부인의원을 개업했다.⁸⁸

김마르다(세례명)는 남편이 외출을 막으려고 오른손 손가락들과 콧등을 잘라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였다. 남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커틀리의 치료로 회복된 김마르다는 보구녀관에서 일하며 간호 일을 배웠다. 김마르다는 복음전도에 열정적이어서 병원을 거쳐 간 환자라면 누구나 그녀에게서 복음서 이야기를 들었다.⁸⁹ 그 후 보구녀관 수간호원이 되었고 1909년에는 학교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쳤다.



이그레이스와 김마르다(1908) ©GCAH

전도사업

모든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전도였기에 선교사와 한국인 전도자들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경, 찬송, 교리를 가르쳤고, 진료소에서는 성경을 비치해두고 전도인을 통해 환자들을 전도했다.⁹⁰ 어디서든 사역자 양성이 시급해 성경학원을 열고 성경을 비롯한 각종 교양교육을 제공하며 전도부인을 양성했다. 전도부인은 사역자, 교사, 간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시작한 최초의 개신교회인 정동교회는 처음에는 남성들만 모였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성 주일학교, 여성교회를 시작했다. 정동교회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구식 벨엘예배당을 건축(1897)한 후에는 가운데 휘장을 치고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정동교회 초기 예배당 ©GC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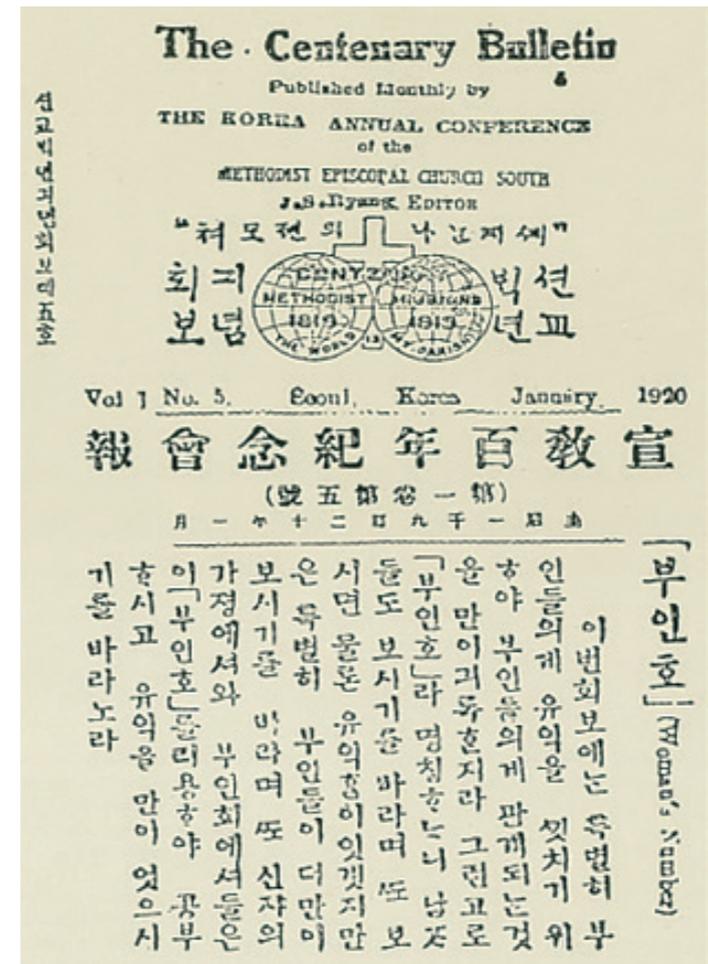
서울 서대문 충정로 로드와 일러성경학원(1917) ©Fifty Years of Light

1894년 스크랜턴이 시병원을 상동으로 옮긴 해에 대부인도 남대문에 선교지를 구입해 이주했고 여성들을 전도해 교인이 생겨났다. 5년 만에 출석교인이 500명(주일학교 200명 포함)으로 늘어서 1900년에 진료소 자리에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벽돌 예배당을 지었다(상동교회).⁹¹

서울에 여성 교인이 계속 늘어 200-500명이 모일 수 있는 연합사경회 공간이 필요했다. 남감리교회가 미국에서 진행한 모금운동인 “선교백년기금”에서 태화여자관 부지를 지원해 건축(1920) 후 연합사경회로 모일 수 있었다.⁹²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가 상동교회 안에 설립되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Korean women to Korean women)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인성경학원”(Bible Woman’s Training School)을 열었다(1894년; 1908년부터 남감리교회 여성교부가 함께 운영하며 “연합부인성서학원”으로 개칭).⁹³ 1917년에는 서대문 밖 죽림정(현 충정로)에 4층짜리 벽돌 건물을 마련했다(The Louise C. Rothweiler Bible Training School; 1920년 협성여자신학교로 개칭).⁹⁴

남감리교회의 선교는 고양읍교회(1897)와 남대문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⁹⁵ 여성 선교는 1987년 작은 여성반으로 시작해 전도부인 김세라와 백루이스의 활약으로 여성교회가 생겼다.⁹⁶ 1900년부터 배화학당의 루이스워커예배당(1901년 건축)에서 모이다로럼동으로 이전해 종교교회가 되었다(1910).⁹⁷ 캠벨의 중국인 양녀로 한국에서 섬긴 위도라는 주중에 구경꾼만 1,601명이 다녀갔다고 보고하며 “그들에게 전한 모든 말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국 복음화를 염원했다.⁹⁸



남감리교회의 선교 백주년 기념 회보(1920)

평양, 영변, 해주(미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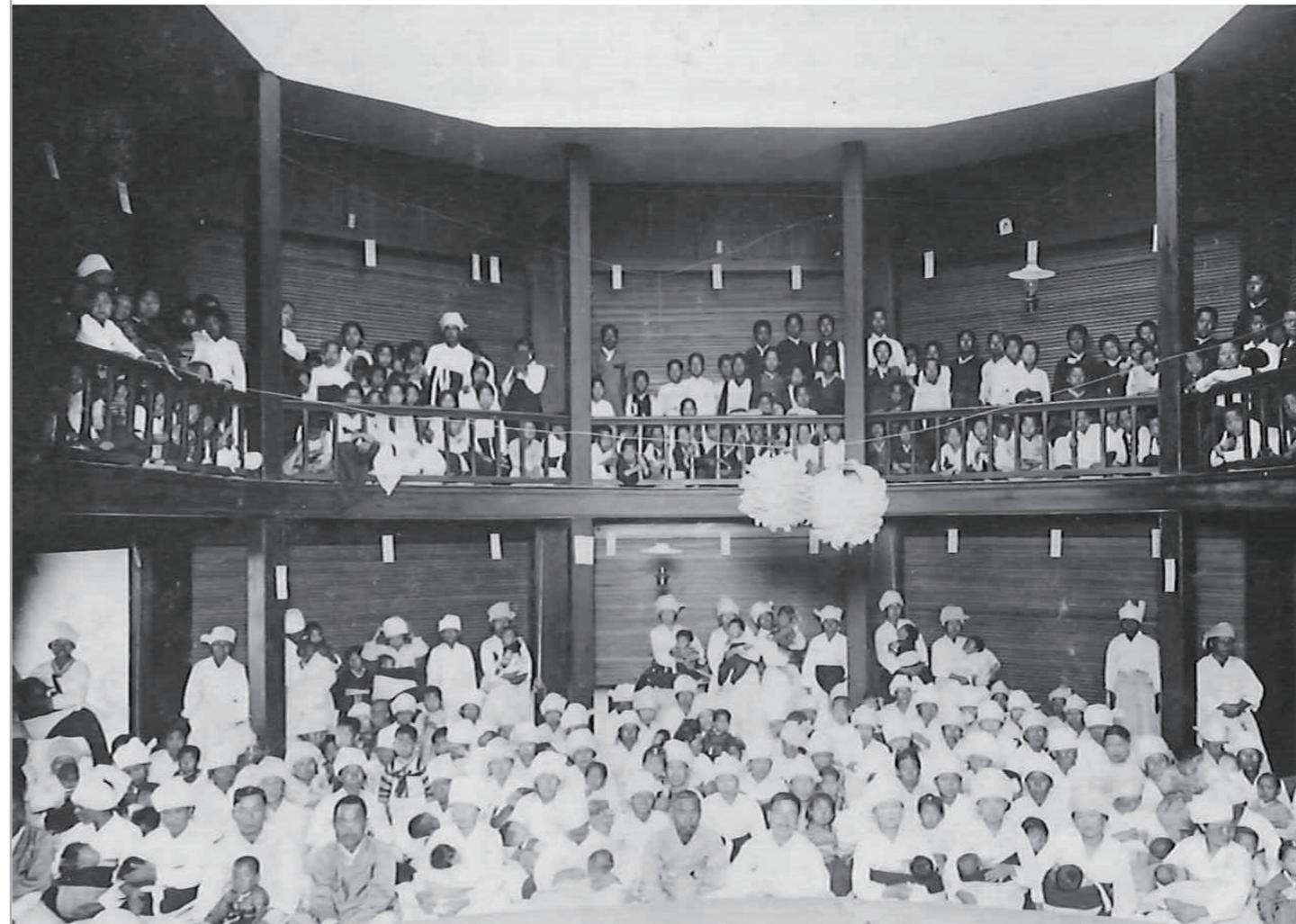
평양에서 미감리교회 초기 여성사역에는 로제타 홀, 매티 노블(Mattie Noble) 부인, 메리 폴웰(Mary Follwell) 부인의 활약이 컸다. 노블 부인이 남산현교회에서 시작한(1897) 여성 집회가 보호여회(여선교회, 1903)로 발전했다. 여성은 회비를 모아 근교에 전도부인을 파송해 교회를 개척했고, 1922년에는 만주에 여성 선교사를 파송했다.⁹⁹

평양 남산현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치며 2년 후 교인이 2,879명으로 늘어 한국 최대 교회가 되었다.¹⁰⁰ 남산재에는 남산현교회, 기흥병원, 광혜녀원,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평양맹아학교, 선교사들의 사택 등 감리교 마을이 형성되었다. 남산재는 서울 외에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와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다.



북쪽에서 활동한 십일조회 여성 ©GCAH

평북 영변에서는 에델 에스티(Ethel M. Estey, 1903년 부임) 선교사가 교회 여성이 시간의 십일조를 전도에 드리는 모임인 “십일조회”(Tithing Class)를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1909).¹⁰¹ 해주와 더불어 제물포 주변 23개의 섬을 맡은 스네이블리는 1910년에 101개 교회 중 91개를 가마, 배, 기차를 타고 방문했다.¹⁰² 해주의 여성 선교가 활발해서 그해 크리스마스에 모인 1,500명 중 3분의 2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다.



평양 남산현교회의 주일학교 건물 ©GCAH



평양 여자 성경반(시골반) ©GCAH



먼 길을 걸어 성경반에 오는 여성
©The Lure of Korea

인천, 수원, 원주, 이천, 강릉(미감리교회)

1910년 무렵 소수의 선교사(롤라 밀러, 메리 힐만, 조세핀 페인, 거트루드 스네이블리)가 서울, 인천, 평양까지 1,000리에 달하는 지역을 맡아 복음사역을 했다. 감리사는 그 어느 남성 선교사도 이 여성 선교사들처럼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한 것을 못 보았다고 칭송했다.¹⁰³ 1924년 수원지방은 선교가 활발해 여성 모임이 30개 있었다.¹⁰⁴ 당시 여성의 열성은 사경회에 참석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66명의 여성은 멀리서 오느라 발에 물집이 잡히고 심지어 발톱이 빠진 경우도 많았지만 교인들 집에 나누어 묵으며 사경회에 참석했다.

원주의 여성 선교는 메리 힐만(Mary Hillman)이 1915년에 부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¹⁰⁵ 이천은 힐만, 롤라 밀러, 해나 샤프, 거트루드 스네이블리(Gertrude E. Snavely) 등이 맡으며 큰 발전이 있었다.

공주, 천안, 홍성(미감리교회)

충청의 여성 선교는 1890년대 말부터 사역한 엘리스 샤프의 활약이 컸다. 1916년 공주 동, 서지방의 여성 교인(5,066명)은 평양(4,057명)과 비슷할 정도로 전도가 활발했다.¹⁰⁶ 천안지방은 1920년 여성과 소녀의 성경반 출석률이 약 40%에 달했다. 이에 윌리엄스(F. E. C. Williams) 감리사는 미국 어디서든 여성 교인의 40%가 10일간의 사경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놀라워했다.¹⁰⁷

개성, 원산, 춘천, 철원(남감리교회)

남감리교회의 개성 선교는 1897년 시작되었다. 여성 사역은 패니 힌즈(Fannie Hinds)와 아레나 캐롤 선교사의 부임으로 시작되었다.¹⁰⁸ 그 후

코들리어 어윈(Cordelia Erwin)과 루비 켄드릭(Ruby Kendrick) 선교사가 여성 사역과 주일학교를 맡았다. 1923년 두 지방 156개 교회에서 전도부인 22명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¹⁰⁹

원산의 여성사역은 1901년 캐롤과 노울즈 선교사의 부임으로 시작되었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으로 선교가 급성장해 동, 서지방으로 나뉘었다. 1923년 원산지방의 전도부인은 22명이었고, 여선교회는 48개(회원 500명), 유년(Junior) 여선교회는 21개(회원 300명)이었다.¹¹⁰

춘천은 매서인 나봉식과 정동렬이 파송되어(1898) 교회(현재 춘천중앙교회)가 생긴 후 양양, 강릉, 원주 등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성 사역은 무스 부인과 나마리아를 비롯한 전도부인들이 시작했다. 캐리 잭슨(Carrie U. Jackson, 차선)과 에드워즈에 의하면, “처음에 선교부에서 여자사업을 반대하는 이가 있었지만 사업이 발전하자 반대가 없어졌다.”¹¹¹ 에드워즈가 1915년에 연 “춘천여자성경학원”(Alice Thomas Bible Institute for Women)에서 우수한 전도부인들이 배출되어 강원도 지역의 선교를 활성화했다.¹¹²

철원은 1901년 지경리에 강원도 최초의 교회가 생긴 이래 계속 성장하여 1910년대 말 선교기지가 되었다. 1920년 7월 얼 앤더슨(Earl W. Anderson) 부부와 코들리어 어윈(Cordelia Erwin) 선교사가 부임하여 철원병원, 철원읍교회 새 예배당, 사택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다.¹¹³ 1923년에는 여선교사 사택을 건축할 만큼 여성 사업이 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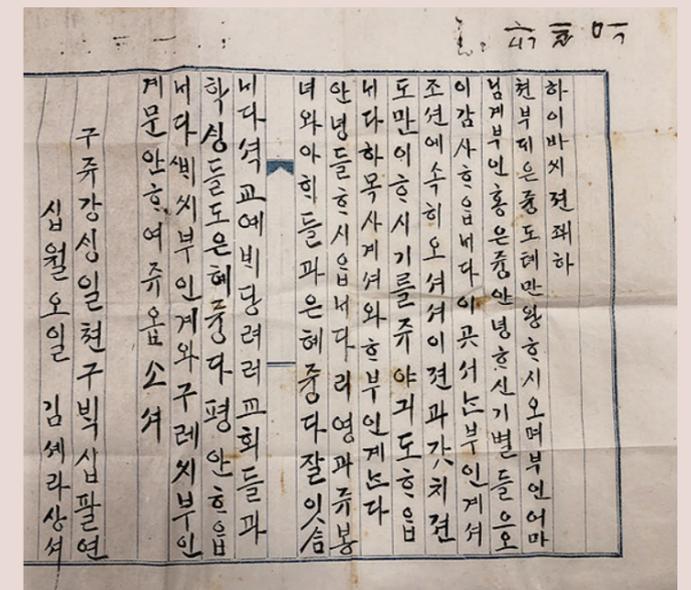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는 1920년대 만주 선교를 시작했다. 먼저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부는 한국인의 만주 이주가 늘어난 1920년대 초에 최나오미를 파송했다(1922-1926).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는 1923년 첫 선교사로 양우로더를 파송하여 하얼빈에서 배형식 목사와 동역하게 했다.¹¹⁴

김세라(Sarah Kim): 남감리교회의 첫 전도부인

김세라 전도부인은 열정과 헌신이 두드러졌다. 연회 보고서가 묘사하는 김세라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김세라는)… 올해도 열심히 일했다… 최근에 사람들은 악령을 섬기는 데 사용한 제문을 상당량 가져오며 과거의 믿음을 포기하고 교인이 되기로 했다. 김세라는 지난해 여성 6,912명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또한 쪽복음 4,250권, 신약전서 11권, 소책자 11권, 많은 찬송가, 달력 1,499부를 팔았다.”¹¹⁹

김세라는 수구문(광희문)교회의 여성 집회를 이끌고, 사경반에서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했다. 수구문교회에서 성인 17명과 어린이 6명이 세례를 받은 날, “교회를 세우는 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인 김세라는 기쁨이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¹²⁰



김세라가 석교교회 매일학교를 맡은 에바 하디에게 쓴 편지(1918)
© 종교교회

여성의 세례, 새 이름, 새 삶

초기에 여성 세례는 독특하게 진행되었다. 내외법 때문에 남성 선교사와 여성 교인이 대면할 수 없어서 휘장을 사용해야 했다. 북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전삼덕은 방 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낸 후에 머리를 내밀어 노블 선교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고 회상했다.¹¹⁵

여성은 세례 때 선교사로부터 종종 새 이름을 받았다. 여성은 고상하지 않은 이름으로 불렸기에 서양인은 조선 여성이 이름이 없다고 오해했다.¹¹⁶ 그러나 조선 문화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존중의 표시였고, 아이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한다는 풍습에서 “돼지” 등의 이름을 붙였다. 비록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받은 새 이름은 전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새 삶을 상징했다. 여성은 교회를 통해 교육을 받으며 잠재력을 일깨웠고 집밖으로 나와 교회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13년 정동교회에서의 여성 집회를 마칠 무렵 한 전도부인이 말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에 대해 생각하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 여자가 감독처럼 사회를 보았고 한국 여자가 성경을 읽었고 한국 여자가 찬송을 불렀고 한국 여자가 오르간을 연주했고 한국 여자가 기도를 했고 한국 여자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 여자들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 거듭 감사했습니다.”¹¹⁷



전삼덕(아래 중앙)과 평양 전도부인(1890년대)



김세지 전도부인

초기 여성 신학생들

밀리 앨벗슨(Millie M. Albertson) 선교사는 연합부인성서학원의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이보다 더 충실하고 성실한 학생들 무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성경 사랑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에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공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교사와 학생 양쪽이 열심히 노력한 후에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 어떤 미국 학생이 다음 정기간행물의 속편을 고대하는 것이 이 여학생들이 성경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길 고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서가 전부 출판되었다고 알리며 몇 부를 주문할지 묻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¹¹⁸



밀리 앨벗슨



부인성서학원 학생들 ©GCAH

전도부인(Bible Women)

전도부인은 한국 최초의 여교역자들이었다. 전도부인은 여성 선교사들의 언어, 문화 등의 제약을 보완하고, 내외문화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했다. 그들은 자원하거나 정식 월급 또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일했다. 처음에는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지만 신앙적 열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 점차 공식교육을 받았다.¹²¹

전도부인은 초기에는 낮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안방의 여성들을 찾아가 성경, 찬송, 교리서를 파는 권서인(매서인), 한글과 가정생활을 가르쳐주는 교육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미신적 주물(fetish)을 없애는 전통적 종교지도자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¹²² 점차 권서인 역할보다는 교회를 설립하고, 순회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미약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교역자 역할을 했다.

전도부인은 산골마을 수 백리를 걸어서 순회하며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도했다. 예를 들면, 김셔커스(Dorcas)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구석구석 2천 9백리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도했다.

“...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한 이유도 없이 예수에 대한 말만 들으면 그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못된 욕설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의 반대와 욕하는 말을 들었고, 어느 곳에서는 돈을 줄지라도 음식을 팔지 아니하므로 때때로 나는 자연 금식을 하고 다닌 적도 많다.”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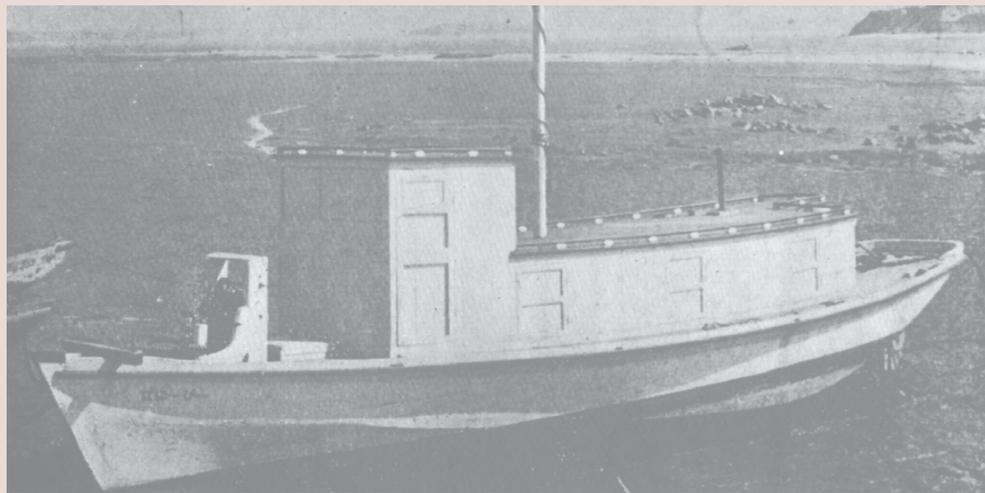


원산지방 전도부인(1920) ©기독교역사박물관

배를 타고 좌초 위기를 겪으며 순회전도를 하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선교사들과 초기 전도자들은 제물포지방에서 주변의 섬과 해주로 선교할 때 배로 다녔다.

“[작년에] ... ‘좋은 배 신시내티’호가 두 번이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 번은 약한 교회가 있는 작은 섬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도착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갑자기 조류가 몰려와 우리를 거대한 진흙 갯벌에 두어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또 한 번은 잘 가다가 폭풍이 몰아쳐서 파도를 뚫고 가야했다. 한동안은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나는 갈길 모르니’ 찬송을 부르며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다.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했고, 내리기 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께 감사했다.”¹²⁴



제니 B호, 선교사들이 도서지역을 순회 전도할 때 이용한 전용 배 중 하나
© Korea Woman's Conference (1929)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줄 것입니다”: 루비 켄드릭(Ruby Kendrick) 선교사



“한국인들이 너무도 좋아한” 선교사, “너무도 젊고 아름다운” 선교사, “사랑과 견과류를 가지고 다니며 예배 때 떠드는 아이들에게 슬쩍 건네 조용하게 만들던” 켄드릭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병사했다(1908년 6월).¹²⁵ 켄드릭은 한국 도착 얼마 후 텍사스로 보낸 편지에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주겠습니다”(If I had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고 썼다. 이 말은 양화진 묘지의 묘비명이 되었다.

켄드릭의 사랑과 헌신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북텍사스연회의 엡윗리그(청년회)에 생긴 켄드릭기념기금위원회는 1915년에 루비켄드릭선교회(Ruby Kendrick Council of Missions)로 발전하여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원했다.¹²⁶ 이 외에도 켄드릭의 신앙과 희생은 북텍사스연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기금 및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켰다.

대부흥운동

1903년 8월 원산에서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들을 중심으로(Arrena Carroll, Mary Knowles, Josephine Hounshell, 중국서 방문한 Mary C. White,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 I. H. McCully) 일주일간 열린 사경회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특히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무능과 교만을 고백하며 성령 체험을 했다. 부흥운동이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이 부흥운동으로 회개와 윤리적 갱신이 벌어져 한국 기독교는 주일 휴무, 금주금연, 노비해방, 일부일처, 제사와 주술 금지 등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사회윤리로 자리 잡아 나갔다.

전도부인의 헌신 및 임금차별에 대한 항의

전도부인들의 수고와 활약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공주 지역에서 사역한 샤프 선교사는 1912년 전도부인들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모든 전도부인들은 이번 가을 전도여행이 특히 힘들었다. 가을에 폭우가 내렸기 때문이다. 다리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개천이 범람했다. 홀다의 경우, 허리까지 빠지는 물을 하루 동안 13번이나 헤치며 걸었는데, 마침내 물을 보는 것이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다. 홀다가 얼마나 물을 무서워했을지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다.”¹²⁷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전도부인의 임금은 남자 사역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1922년 남감리교회 소속의 전도부인 300여명은 집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¹²⁸ 남자들의 20-3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항의는 매일신보에 실려 교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1930년에도 다른 교파를 포함하는 여성 전도인들의 불평과 희망이 신문에 실렸다.¹²⁹



남감리교회 전도부인(1920년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사회사업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여성은 경제생활의 기회, 새로운 권리, 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 등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 의료 등 많은 기회에서 소외되었고, 심각한 빈곤 속에 있었다.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여성 선교사들은 높은 유아사망률과 어린이 노동,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 공창제, 농촌의 피폐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했다. 예를 들어, 앨리스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 선교사는 하루 10시간 담배공장에서 일하지만 고작 7센트를 받는 어린이들을 언급하며 사회사업을 촉구했다.¹³⁰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사회사업위원회(Social Service Committee)를 통해 “여성과 소녀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업과 활동을 확장”했다.¹³¹

여성 선교사들이 전개한 사회사업은 실로 다양했다.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총독부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 금주, 금연 및 공창제 폐지를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협성여자신학교에 농촌교육과를 신설했고, 야학과 농촌강습회를 통한 부녀자교육에 힘썼다. 사회관 사업은 각지에서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사회관에서는 주로 여성, 청년, 아동을 대상으로 여성교육, 복음전도, 아동보건, 공중위생, 사회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1920년대부터는 한국인이 흔히 “여자관”으로 부른 여성 사회관 사업이 새로 펼쳐졌다.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여성선교회는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1921년; 1933년 태화사회관으로 개칭)을 함께 운영했고, 북장로교회 여성선교부는 1936년까지 운영에 참여했다.¹³² 태화여자관은 태화여학교, 공민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아동진료소, 음악반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930년 무렵 연인원 4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다.¹³³

남감리교회 여성선교부는 서울 태화여자관에 이어 개성, 원산, 철원, 춘천에도 일제히 여자사회전도센터(Woman's Social-Evangelistic Center)을 열었다. 가장 먼저(1922년 5월) 개성에서 연 고려여자관에서는 기혼여성 야학, 재봉과 요리, 음악교육, 유치원 사업,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 여성 성경공부반, 개성 4개 교회 여성선교회의 연합집회 등이 있었다.¹³⁴

이 시기 동안 선교사들과 선교사 부인들은 “조선 여성이 더 나은 조선 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을 펼쳤다. 교육의 첫 열매들은 한반도 격동의 시기에 교사, 사역자,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의료사업은 여성 의료선교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꾸준히 성장했다. 지방 병원들은 복음 전도의 중요한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위생교육, 미신 및 내외 폐습의 타파에도 기여했다. 여성 선교사들은 전도사업과 교회 개척도 많이 했다. 특히 전도부인들이 역경 속에서 헌신하여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한국 여성은 기독교 복음과 교육을 접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의 재산은 선교사업을 확장, 이전할 때마다 변화가 생겼다.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 부지를 매입해 이전하기도 했고,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거기서 새 사업을 열기도 했다. 선교기지에서 미감리교회 선교부가 세운 병원, 사택, 남학교 그리고 교회들은 선교본부의 재산이었다. 해외여성선교회가 세운 병원과 학교는 해외여성선교회의 재산이었고 교회도 몇 군데 있었다. 교회의 경우 1960년대 말까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남아있던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인천 창녕교회, 정선교회, 이천교회, 양주 수동교회 등이었다.

PART

2

1924
~
1945

제 2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 (1924-1945년)

1.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
2.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3.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과 1930년대의 선교 상황
4. 1940년대의 선교 상황

제 2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 (1924-1945년)

이 장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부터 일제말까지 다룬다. 이 시기에 본 유지재단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인가(1924),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1930), 선교사 강제 철수(1940-1941), 유지재단 재산의 적산 처리(1942)이다.

일제강점기 하반기로 가면서 한국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1925년에 이르러 토지의 75%가 일본인 소유가 되었고, 한국인은 84.6%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 중 약 절반(43%)이 소작인이었으니 빈곤과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¹ 특히 일제는 중일전쟁(1937-1945)과 태평양전쟁(1939-1945)을 도발하면서 한국에서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운동을 동원하여 자원수탈을 심화했다. 태평양전쟁 기간에만 약 600만 명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로 강제로 끌려갔다(당시 인구 약 2,500만 명).²

일제의 교회탄압도 1930년대 이래 더욱 거세졌다. 감리교회는 신학교 폐교(1940), 연회 해산(1941년 3월), 일본감리교회와의 통합(1943년 10월)을 겪었고, 결국 모든 개신교파가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1945년 8월 1일).

게다가 세계경제공황으로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도 줄었다.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는 1923년까지 매년 270,000달러를 받았는데 해마다 줄어 1926년 약 57%(115,000달러) 줄었다.³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1933년 한국 선교비를 30% 감축했다.⁴ 이런 배경에서 적은 선교비로 한국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단과 신학교에 농촌사업과가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는 농촌계몽운동, 농사강습회, 협동조합과 매점 설립, 토지의 공동 매수와 공동경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평양 승의여학교 감리교건물(강의동) ©GCAH



1.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설립

초기 선교와 부동산 소유

서구 개신교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구한말(대한제국, 1897-1910)까지도 원칙상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은 두 나라의 상인이 각국 해당 지역에서 “가옥을 세내고 토지를 사고 가게를 짓는 일” 정도만 허용했다(제6관). 조선 내 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서울과 개항지 및 반경 10리 이내에서만 가능했다.⁵ 소유권은 미국 총영사를 통해 등록했다.

선교가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선교사들은 내지 곳곳에 부동산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내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한국인 신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자는 실소유주가 선교사라는 별도 문서를 써서 선교사에게 주는 방식이 동원되었다.

이 때문에 때로 지방관청과 마찰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감리교회 윌버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선교사는 수원에 집 두 채를 사면서 한국인 조사(helper)의 명의로 등록했다.⁶ 이런 사실을 안 지방관청이 조사를 체포했다. 이에 스웨어러는 미국 공사 알렌에게 도움을 청했고, 알렌은 선례

를 들어 미국인의 내지 거주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다. 즉 외무대신이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미국인이 내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지 못하지만 집에 임시 거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허락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조사가 풀려났다. 이렇게 점차 부동산이 늘어갔다.

유지재단의 설립 배경

일제가 1912년 3월에 공포한 「조선민사령」에는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었다.⁷ 그래서 한국 종교단체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1912년부터 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법인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1910년대에는 일제가 한국 내 일본 종교단체만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 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는 장로교 등 외원 선교회의 법인 조직 사무를 의뢰받았던 구도 타다스케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현재 선교사수가 5백 명에 이르고 기독교 학교도 6백 개교에 달해 관립학교를 능가하는 세력을 보이므로 법인으로 인가하여 완전히 권리의무의 주체로 제휴 활동에 이르면 그 세력은 실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서 일본 정부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통제 분위기는 1920년에 바뀌게 되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강점기 첫 10년간의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에는 표면상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태도를 바꾸었다. 새로 부임한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초교과 선교사 모임인 전선선교사연합회에 원하는 바를 제시하라고 했다. 전선선교사연합회는 “전선선교사연합회 진정서”(A Communication to His Excellency, Baron Saito, Governor General of Chosen, from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를 통해 전도사업, 교육사업, 의료

사업, 종교문학, 소유권과 재정, 도덕적 개선 등 6가지 분야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청했다.⁹ 여기서 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그간의 문제점을 이렇게 열거했다. ① 등기이전 등으로 혼잡하며 불편하고 ② 법인이란 불필요할 비용이 등기 이전시마다 필요하며 ③ 교회에 대해 호의를 가지지 않은 지방관헌이나 등기명의자 혹은 그 상속인이 교회재산에 소송을 제기할 때 교회는 법률에 의해 배상을 구할 방법이 없고 ④ 선교회의 경우 등기명의자인 선교사가 사망, 사직, 귀국한 경우에 종종 분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전선선교사연합회 임원인 블리스 빌링스(Bliss W. Billings) 감리교 선교사는 진정서 제출 후 총독과 만났는데 총독은 많은 제안이 이뤄질 거라고 보장했다.¹⁰ 빌링스가 1923년 휴가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총독은 편지로 재단설립 경과를 알려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회 및 국내 교단들이 1920년대에 일제히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1910년대에는 토지 구입 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허가”법인(민법 제34조)조차 허용치 않던 것과 달리 총독의 허가가 불필요한 당연법인인 “인가”법인으로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1920년의 허가주의 법인과 1924년의 인가주의 법인

사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924년 6월에 처음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미감리교회 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920년 12월 18일에 유지재단 인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 1923년 말에 미감리교회 부인회는 이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새로 신청했다(11월 21일). 취소한 이유는 1920년의 법인이 토지 구입 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법

인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가를 신청할 때는 더 권한이 많은 “인가”법인으로 신청했고, 1924년 6월에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때 이름에 “조선”을 추가하여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되었다. 재단설립을 인가한 문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 표지에는 “미감리교회 부인부 유지재단”과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라는 명칭이 별 설명 없이 나란히 등장한다. 전자는 “건명”에 적혀 있어서 당국은 “부인부”라는 명칭으로 전체 조선부인선교부를 지칭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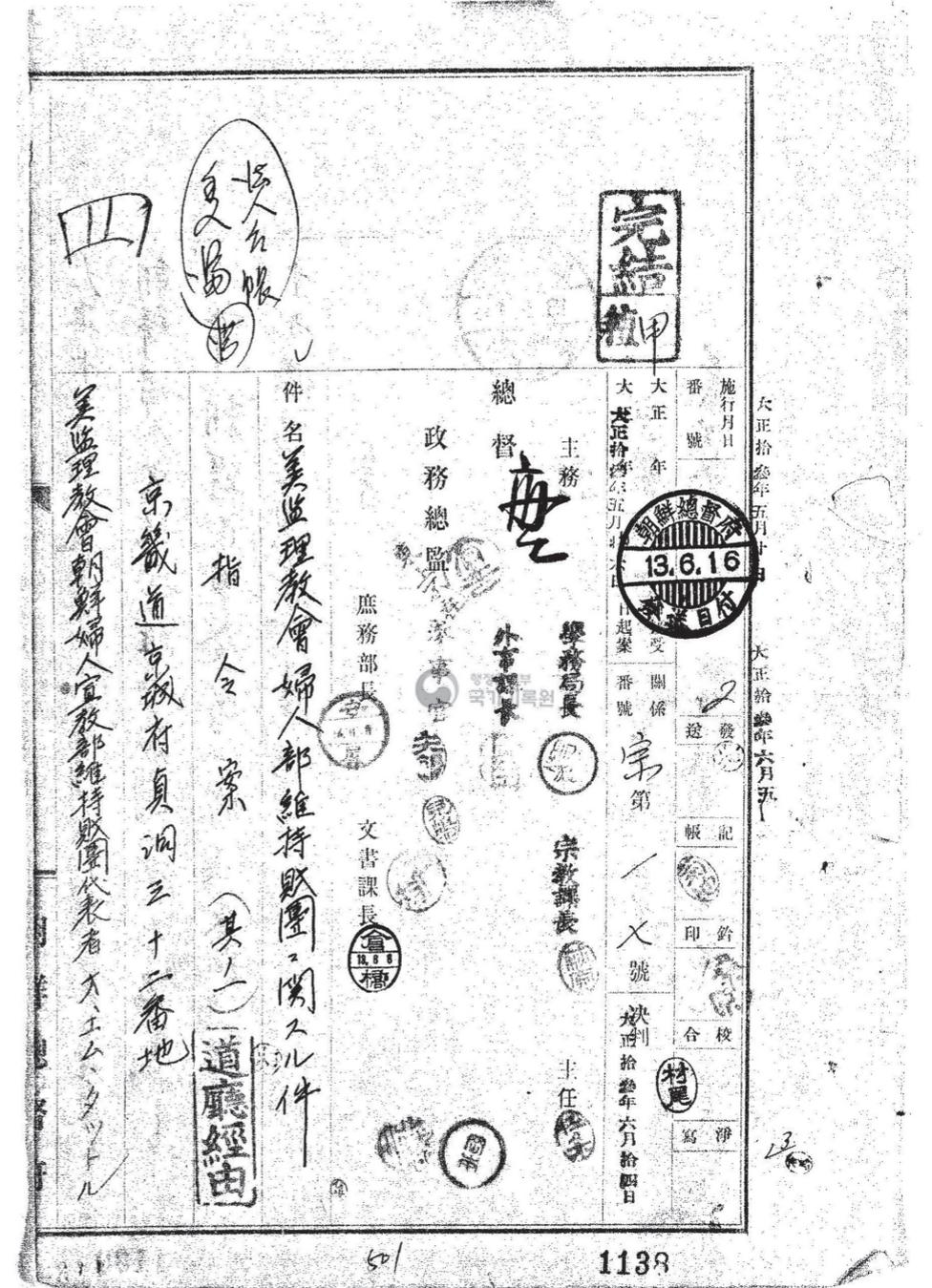
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법인을 신청할 때는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엘머 케이블(Elmer Cable) 선교사의 요청으로 1921년 에이다 홀(Ada B. Hall, 허을녀) 선교사가 내한해 선교지 회계를 맡았다. 홀은 2년간 조선부인선교부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며 법인 설립을 준비했다.”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목록,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사항(정관), 각 부동산 명의자의 증명서였다. 무엇보다도 총독부는 재산과 관련하여 민사령 공포 이전에 이미 재단의 재산으로 존재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에 재단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각 명의자는 해당 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민사령 시행(1912년 4월 1일) 이전부터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 소유였다고 밝히는 증명서를 작성했다. 미국 공관의 총영사는 이를 공증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 다른 교파 및 단체들도 동일한 서류를 준비했다.

종교 법인들은 개인 명의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登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해줄 것을 총독부에 요청했다. 총독부는 민사령(1912년 4월 1일) 이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갑

중으로 등기하고, 민사령 이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천분의 25인 을중으로 등기하도록 했다.¹²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등기비용을 면제했다. 그래서 등기비용은 당시 시장가에 의한 부동산 등기비용보다 적었고 이후에는 유지재단 부동산에 대해 세금혜택도 받았다.



재단설립 인가를 보여주는 첫 쪽(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

證明書

美 監理教會朝鮮婦人宣教師維持財團ハ明治四十五年四月
 月一以前朝鮮内ニ於テ宗教及慈善事業ニ從事シ其事業
 務所ヲ京城貞洞三十二(今十三)ニ設置シ該事業經營ス
 ル爲ニ事業上自體ノ名義若クハ該財團ノ代理ト
 シテ個人ノ名義ニ京城、仁川、平壤、海州、寧邊、
 原州、公州、水原、
 其他ニ土地及建物ヲ所有セシ事ハ當總領事
 館ノ記録若クハ其他確實ナル證據(即チ土地券)ニ據
 シテ確實ナル事ヲ證明シ

1157

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57-1158쪽

尙別紙添付ノ土地基帳ニ基キ本日小官ノ面前ニ於テ
 該財團代表者エカトホシムルノ宣誓シタル目錄ハ該
 財團ノ基本財産ニテ事實上明治四十五年四月一以前
 ニ於テ所有シ且ツ前記目的ノ爲メ使用シタル事ハ
 小官ノ知レル範圍ニ於テ眞實ナルト信シ右証明候也
 大正十二年十二月四日
 朝鮮京城駐劄米國總領事
 フレスフォード、エス、ミラー

領事館印

ニ布 中氏

1158

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57-1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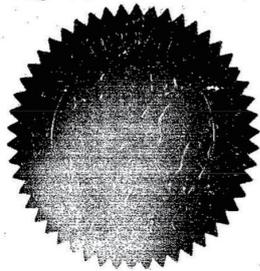
CERTIFICATE.

I hereby certify tha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office and other reliable evidence, such as old title deeds etc., presented to me,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Chosen was, prior to April 1, 1912, engaged in religious and charitable work in Chosen, with an office at 32 (now 13) Teido, Seoul, and tha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uch work, the said Foundation actually owned, either in its own name or in that of individuals on its behalf, lands and buildings in Seoul, Chemulpo, Pyongyang, Haiju, Yeng Byen, Wonju, Kongju, Suwon, Nonsan and other places in Chosen.

1159

And I further certify that, according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attached list, as now registered in the official Land Register and sworn to before me this day by Ada B. Hall, Representative of the said Foundation, is a true statement of the Foundation properties actually owned by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Chosen prior to April 1, 1912, and used for the purposes above specified.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affixed the seal of my office this fourth day of December, 1923.



Ransford Miller

Consul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Seoul, Chosen.

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59쪽

증명서

저는 이 사무실의 기록 및 체계 제출된 옛 권리증과 같은 여타 믿을만한 증거에 따라 1912년 4월 1일 이전에 서울 정동 32(현재 13)번지에 사무실을 둔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조선에서 종교와 자선 사업을 했고 그런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기 재단이 재단의 이름으로 또는 재단을 위해서 개인의 이름으로 서울, 제물포, 평양, 해주, 영변, 원주, 공주, 수원, 논산 및 기타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또한 제가 알고 믿고 있는 한, 공식 토지대장에 이제 등기되고 오늘 위 재단의 대표인 에이다 홀이 제 앞에서 맹세한 첨부 목록을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1912년 4월 1일 이전에 실제 소유했음을 증명하며, 위에 상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재단 재산에 대해 참되게 진술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저는 1923년 12월 4일 제 사무실의 봉인과 함께 서명하는 바입니다.

랜스포드 밀러(Ransford S. Miller)

조선 서울의 미합중국 영사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상황과 목록

재단 설립 시 제출한 문서를 보면 부동산 소유는 선교사와 한국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통감부 시기(1906-1910)에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합법화되어 선교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06년 10월과 11월에 토지가옥증명규칙(칙령 제65호)과 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세칙(법부령 제4호)이 각각 공포되었다.¹³ 본 유지재단의 설립 신청에 첨부된 증명서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명의자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p style="text-align: center;">聲 明 書</p> <p>右記ノ地畝ノ抽出者各義、不動産ハ單ニ抽出者義ヲ使ケルニ止リ、事實ハ美監理教會朝鮮婦人宣教師ノ所有ニ相違無之候ニ付テハ美監理教會朝鮮婦人宣教師ノ指圖ニ依リ何時ニテモ該不動産ノ名義ノ変更ヲ爲スニトモ何等異議ヲ申立テザルコトヲ聲明ス</p> <p style="text-align: right;">大正八年三月 宣教師貞的 代表 エルン、フリー 遺產相使人 瑪臣 Jessie B. Marker</p>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仁川府牛角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目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地番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評定價格

프라이 선교사를 대신한 마커 선교사의 증명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71쪽)

룰루 프라이(Lulu A. Frey) 선교사는 서울, 인천, 수원, 고양군, 강화도 등에 있는 부동산 17건의 명의자였다. 프라이는 1893년 내한해 이화학당장을 맡아 대학과를 설치하는 등 약 28년간 한국에서 섬긴 후 1920년 귀국해 1921년 별세한 상태였다. 그래서 제씨 마커(Jessie B. Marker) 선교사가 유언 집행인으로서 증명서를 썼다.

仁川府牛角											
地目											
地番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評定價格											

프라이 선교사를 대신한 마커 선교사의 증명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72쪽)

한국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몇 건 있었다. 평안북도 영변에 거주하는 조운국은 영변 서부동 356번지(103평)의 부동산이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소유이고 본인이나 상속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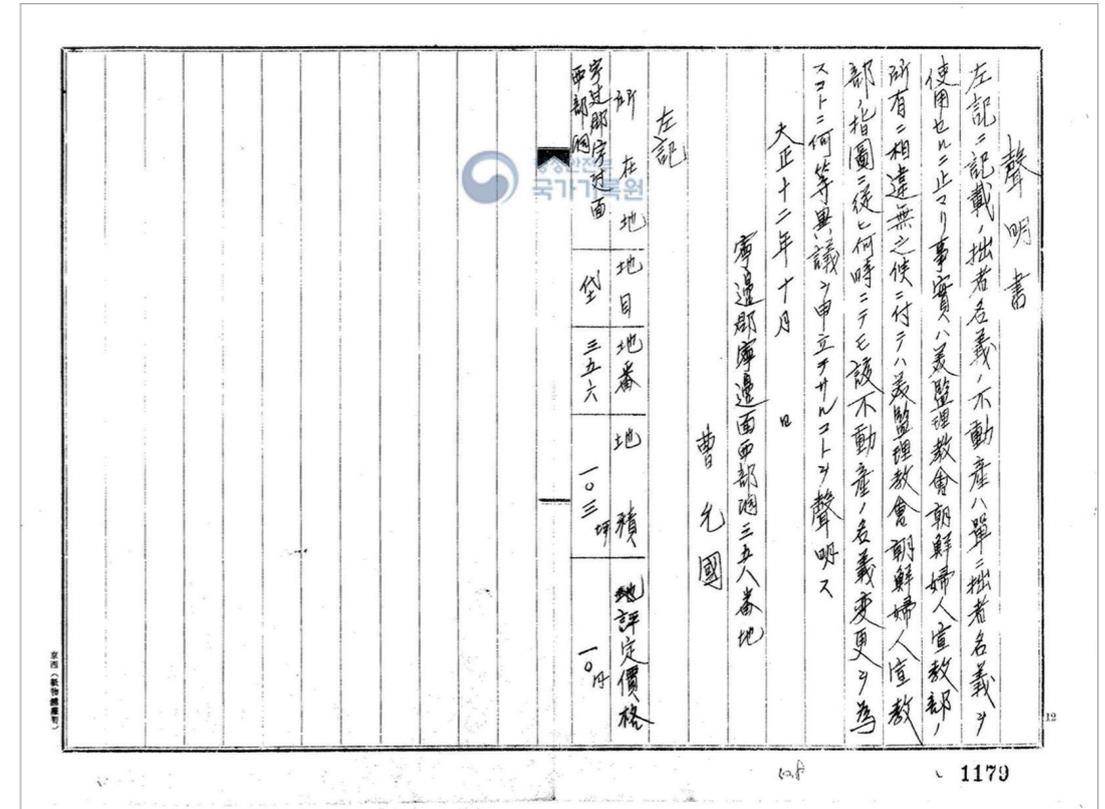
The undersigned Jessie B. Marker (name) executor/executrix of the estate of Lulu E. Fry (name of deceased), being duly sworn deposes and says that the real properties described herein are owned by the Roman Foreign Missionary Society (name of Society), having been purchased with funds furnished by the said Society and for its work, and that in none of the said real property do the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or assigns of Lulu E. Fry (name of deceased) have or assert, now or at any time, any right, claim or title.

1173

No. 42 - Tsubo 1035 - Woo Kang Ni, Inchun, Kyeng Keui Do
 No. 43 - Tsubo 1779 - Woo Kang Ni, Inchun, Kyeng Keui Do
 No. 36 - Tsubo 1138 - Woo Kang Ni, Inchun, Kyeng Keui Do
 No. 110.2- Tsubo 814 - Puk Su Ri, Suwon, Kyeng Keui Do
 No. 31 - Tsubo 591 - Chung Dong, Seoul, Kyeng Keui Do
 No. 382 - Tsubo 65 - Han Kang, Han Chi Men, Ko Yang Kun, Kyeng Keui Do
 No. 102 - Tsubo 369 - Whang Kum Chung, Kang Kung Men, Nonsan Kun, Kyeng Keui Do
 No. 13.1- Tsubo 922.2- Chung Dong, Seoul, Kyeng Keui Do
 No. 62 - Tsubo 820 - Chong No, 6 Chung Mok, Seoul, Kyeng Keui Do
 No. 64 - Tsubo 127 - Chong No, 6 Chung Mok, Seoul, Kyeng Keui Do
 No. 66 - Tsubo 26 - Chong No, 6 Chung Mok, Seoul, Kyeng Keui Do
 No. 71 - Tsubo 23 - Chong No, 6 Chung Mok, Seoul, Kyeng Keui Do
 No. 304 - Tsubo 373 - Ah Hyun Ni, Ryong Kang Men, Ko Yang Kun, "
 No. 196 - Tsubo 142 - Sin Young Ni, Eun Pyeng Men, Ko Yang Kun, "
 No. 392 - Tsubo 55 - Kong Dong Ni, Ryong Kang Men, Ko Yang Kun, "
 No. 156 - Tsubo 357 - Sung Mo Ri, Sam San Men, Kang wha Kun, "

(Signed) Jessie B. Marker
 (Executrix)

프라이 선교사를 대신한 마커 선교사의 증명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73쪽)



조운국의 일어 증명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79쪽)

Empire of Japan)
Yeng Byen, Korea)

The undersigned 曹 允 國 (Name of Person) of
京邊郡寧邊面西部洞五八番地 (Residence) hereby affirms:

That none of the real estate which was purchased by him in Korea,
and located in various cities and districts is owned by him personally:

That said real estate was purchased for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prior to April 1, 1912,
the same having been purchased with funds furnished by said Society and for
its work:

That the properties described as follows are owned by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Yeng Byen - Village of Sau Poo - No. 356 - Tsubo 103

That in none of this real estate does the undersigned have any right,
claim or title, nor can his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or assigns
have or assert, now or at any time, any right, claim or title.

曹 允 國

1180

조윤국의 영어 증명서(국가기록원 문서 CJA0004763의 1180쪽)

미감리교회 남자 선교사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부동산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미감리교회의 달zell 벙커(Dalzell
A. Bunker) 선교사는 평양 대찰리와 상수구리에 있는 5건의 부동산이 미감
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재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황해도 해주 남옹리
(418평), 통영리(1,895평과 71평)에 있는 3건의 부동산도 미감리교회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더 노튼(Arthur H. Norton) 선교사
가 서명하여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재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유지재단의 설립 당시 부동산 목록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한
국선교 40년을 집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목록에는 토지부 51건, 건물부
6건이 나온다. 건물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실존했던 건물 수보다 현
저히 적게 나온다. 총 부동산은 위로는 평북 영변부터 아래로는 충남 강경
까지, 총 토지는 51,328.2평(169,680제곱미터)에 이른다. 이를 남북으로 따
로 계산하면 남한 30,989.2평, 북한 20,329평이다.

아래는 부동산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목록에는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없고 지역이 섞여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북을 구분하고 지역 별로 실었다. 참조 란에는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사료를 통해 알려진 정보를 넣었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부동산 목록(토지부): 남한

번호	주소	면적/평(지목)	참조
1	경기도 경성부 정동 13-1	922.2(대지)	Grey House(선교사 사택, 새문안교회터, 현재 예원학교 운동장)
2	경기도 경성부 정동 16-1	411.8(대지)	(현재 주한 캐나다대사관)
3	경기도 경성부 정동 29	1,184.0(대지)	
4	경기도 경성부 정동 30	237.0(대지)	이화학당, 기숙사, 보구녀관, 사택
5	경기도 경성부 정동 31	591.0(대지)	
6	경기도 경성부 정동 32	2,776.0(대지)	
7	경기도 경성부 종로6정목 2	820.0(대지)	
8	경기도 경성부 종로6정목 64	127.0(대지)	릴리안해리스기념병원, 동대문교회, 동대문여자보통학교, 스크랜턴관(선교사 숙소) 등.
9	경기도 경성부 종로6정목 66	26.0(대지)	
10	경기도 경성부 종로6정목 71	23.0(대지)	
11	경기도 경성부 종로6정목 72-1	1,867.2(대지)	
12	경기도 경성부 죽점정3정목 8-1	1,603.0(대지)	협성여자신학교(현재 서대문구 충정로)
13	경기도 경성부 죽점정3정목 8-2	830.0(대지)	
14	고양군 용강면 공덕리 392	55.0(대지)	공덕여학교(현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5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294	38.0(대지)	애오개여학교
16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304	373.0(밭)	(현재 서대문구 아현교회 일부)
17	고양군 은평면 신영리 196	142.0(대지)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

번호	주소	면적/평(지목)	참조
18	고양군 한지면 한강리 382	65.0(대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19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6	357.0(밭)	부흥여학교
20	인천부 부내면 우각리 36	1,138.0(사사지)	
21	인천부 부내면 우각리 42	1,035.0(대지)	영화여학교(현재 영화초등학교), 부인진료소(현재 인천기독병원)
22	인천부 부내면 우각리 43	1,779.0(대지, 밭)	
23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110-2	814.0(대지)	삼일여학교(현재 매향중학교, 매학여자정보고등학교), 사택
24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87	366.0(대지)	
25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252-2	141.0(대지)	양정여학교(현재 양정여자중, 고등학교), 사택
26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259-2	135.0(대지)	
27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259-3	98.0(대지)	
28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상동리 198	8,479.0(밭)	사택(현재 원주시 명륜동, 학생동)
29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하동리 18-8	479.0(대지)	
30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정 318	2,310.0(대지)	
31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정 319	1,016.0(밭)	영명여학교(현재 영명중, 고등학교), 사택
32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정 320	175.0(대지)	
33	충남 논산군 강경면 황금정 102	369.0(대지)	만동여학교
34	충남 논산군 논산면 옥정 71	207.0(대지)	영화여학교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부동산 목록(토지부): 북한

번호	주소	면적/평(지목)	참조
1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남옥정 363	418.0(대지)	
2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동영정 197	1,895.0(대지)	의정여학교, 사택
3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동영정 196	71.0(대지)	

4	평안남도 평양부 대찰리 171-1	673.0(대지)	정의여학교
5	평안남도 평양부 대찰리 171	1,067.0(대지)	
6	평안남도 평양부 상수구리 257	2,180.0(대지)	광혜녀원, 평양맹아학교, 여자성경학원, 사택
7	평안남도 평양부 상수구리 258	48.0(대지)	
8	평안남도 평양부 상수구리 259	50.0(대지)	
9	평안남도 평양부 상수구리 260	111.0(대지)	
10	평안남도 평양부 수옥리 333	3,421.0(대지)	
11	평안남도 평양부 수옥리 334-2	531.0(대지)	
12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44	4,285.0(대지)	
13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45	1,998.0(임야)	
14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56	103.0(대지)	
15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64	1,894.0(밭)	
16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65	180.0(대지)	
17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 서부동 369	1,401.0(대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부동산 목록(건물부)

번호	주소	면적/평(종류, 건물수)
1	경기도 경성부 정동 16-1	99평 9합 4작(본가, 1)
2	경기도 경성부 정동 16-1	23평 3합 3작(부속, 3)
3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신영리 196	22평 8합 7작(본가, 1)
4	경기도 수원군 은덕면 남양리 557	12평 5합(본가, 1)
5	경기도 수원군 은덕면 남양리 560	13평(본관, 1)

유지재단의 “규정사항”(정관)

법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규정사항”(정관)은 일어로만 되어 있고 (1149-1152쪽), 유지재단의 명칭, 목적, 소재지(정동 32-1), 자산 내용, 이사와 감사 및 임기, 이사회 결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목적은 “미감리교회 조선부 인선교부의 전도, 교육, 의료, 그리고 기타 자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선교사업 과정에서 요청되는 자산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이사진은 대표 외 4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고 정했다. 당시 정관에는 대표가 오라 터틀(Ora M. Tuttle)이고 이사는 로제타 홀(Rosetta S. Hall), 지넷 월터(Jeannette Walter), 룰라 밀러(Lula A. Miller), 애나 채핀(Anna B. Chaffin)이고, 감사는 평양의 헨리에타 로빈스(Henrietta Robbins)와 공주의 앨리스 샤프(Alice Sharp)로 나온다.

이로써 유지재단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의 전국 선교기지에 있는 전도기관, 교육기관, 병원, 사택 등의 부동산 일체를 소유, 관리하게 되었다. 물론 유지재단 설립에는 재산목록과 사업상황이 총독부의 감시와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이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부인선교부와 유지재단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인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지재단 설립 인가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2.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이 시기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은 이전 시기에 시작한 사업을 이어가는 측면이 강하므로 여기서는 지면상 주요 선교지의 대표 학교, 병원, 사회관, 전도사업의 통계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교육사업

여성 선교사들은 주요 학교와 매일학교를 최대한 보통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인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사 수급의 어려움,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등 운영난 때문에 폐쇄한 학교가 많이 생겼다.¹⁴ 그럼에도 비인가 학교, 야학, “글방,” “웨슬레 구락부”(Wesley Clubs)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서울(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

1928년의 예를 들면, 서울에 11개의 초등여학교가 이화학당 지교로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의 관리 하에 있었다.¹⁵ 이화학당은 거점 교육기관이라서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1925년 이

화여자전문학교(Ewha College)로 총독부 인가를 받았다.¹⁶ 일제 말 이화여전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는 1942년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재산인 동대문부인병원을 매각하여 이화여전의 교육기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1945년에 이화학당 유지재단이 병원을 다시 매입).¹⁷ 부인선교부는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유치원을 계속 설립해 1930년 감리교 유치원은 전국에 62개가 있었다.¹⁸

남감리교회 여선교부의 배화학당 고등과는 1925년 배화여고보 인가를 받았다. 선교사들의 철수(1941) 후 학교가 경영난에 빠졌고 일제는 유지재단을 설립할 수 없으면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배화학당은 조애영, 이민천 등 유지의 도움으로 1942년 재단법인 배화고등여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¹⁹ 1930년 남감리교회 여선교부는 서울에 여고 1개, 초교 2개, 남학교 2개, 유치원 3개가 있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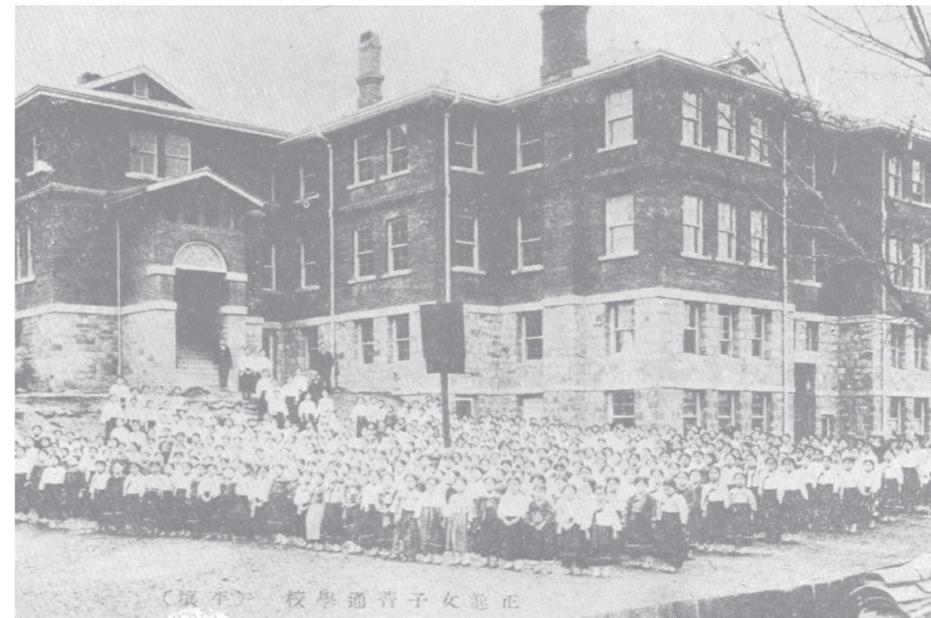
배화여학교 전경(1929) ©배화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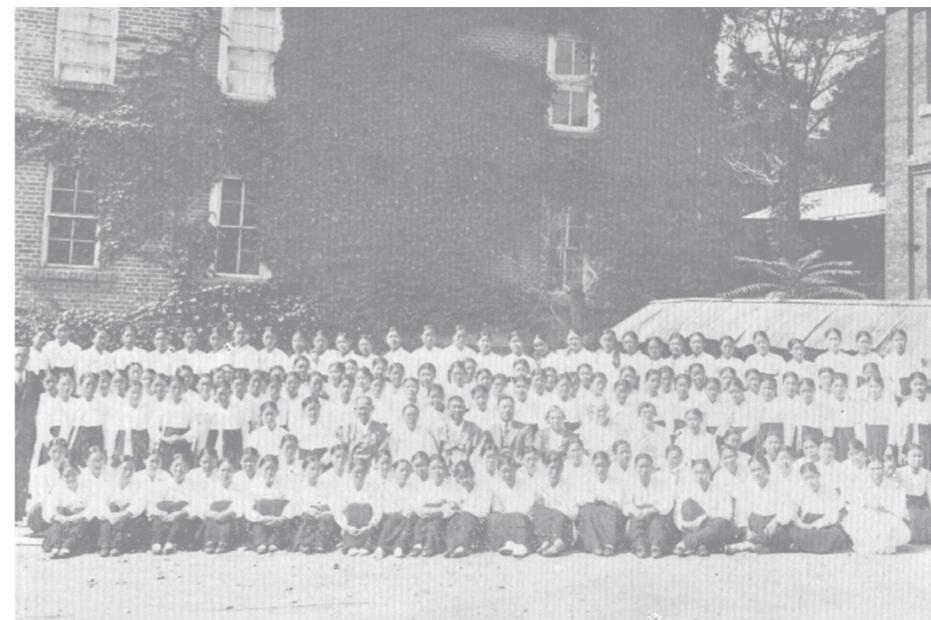
연회로 모인 미감리교회 선교사 가족 ©GCAH

평양, 영변, 해주, 만주(미감리교회)

1927년 평양에는 매일학교 40개와 유치원 14개가 있었다.²¹ 정의여고보는 정의고등여학교로 승격했고(1938) 학생들은 야학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를 가르쳤다.²² 평양맹아학교(Pyeng Yang Blind and Deaf School)에는 학생이 전국 및 만주에서 왔다(1928년 학생 45명).²³ 평양의 여자성경학원은 1936년 4년제 “여자고등성경학교”가 되었다. 1937년까지 총 졸업생 159명 중 45%(71명)가 전도부인, 교사, 간호사, 산파, 상급학교 진학, 상업 등에 종사했다.²⁴



평양 정진여자보통학교 ©Fifty Years of Light



평양여자성경학원 ©Fifty Years of Light



해주 의정여학교 기숙사 ©GCAH



해주 의정여학교 ©GC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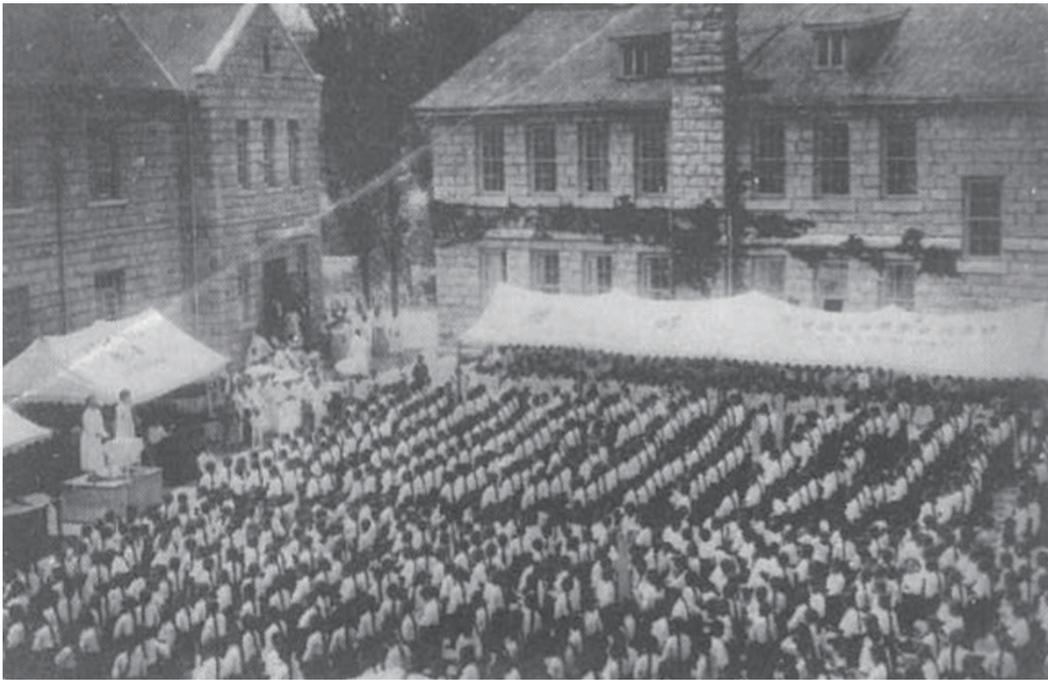
해주 의정여학교 학생들
©GCAH

평안북도 영변의 승덕여학교는 1925년 총독부 인가를 받았고 고등보통학교를 신설했다.²⁵ 1927년 영변에는 매일학교 7개, 유치원 4개가 있었다.²⁶ 해주의 의정여학교(Lucy Scott Memorial School)는 1925년 총독부 인가를 받았다(학생 195명).²⁷ 1938년 제인 발로우(Jane Barlow) 선교사는 해주에서 여성 사역자 양성을 위해 성경학원을 열었다.²⁸

만주(현재 중국 동북성)에도 감리교 신학교가 생겼다. 1934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는 만주에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웠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애나 채핀 선교사가 1937년 사평가에서 “만주신학교”를 열었다(학생 21명).²⁹ 1941년 일제는 민족주의적 지도자들과 교과과정을 문제 삼아 폐교시켰다.

개성, 춘천, 원산, 철원(남감리교회)

개성의 유일한 여고인 호수돈여학교는 1941년 재단법인 명덕학원을 설립하며 교명도 명덕고등여학교가 되었다. 미리흠여학교는 1937년 입학생이 159명이었고, 만학 여성들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했다.³⁰ 춘천지방에는 1927년 여자성경학원(36명), 여자보통학교 5개(234명), 남자보통학교 2개(190명), 여자 글방 17개(292명), 남자 글방 11개(312명)가 있었다.³¹ 원산의 루씨여학교는 1925년 여고보와 보통학교의 인가를 받았고 1928년 학생이 고등과 169명, 보통과 260명 있었다.³² 일제 말기에 총독부가 학교를 강제로 공립으로 만들었다. 철원에는 1930년대 초반에 여성 사업으로 유치원 6개, 글방(서당) 10개, 야학 10개, 성경학원 1개가 있었다.³³



호수돈여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식(1934) © 호수돈백년사

인천, 수원, 이천, 원주, 강릉(미감리교회)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인천과 주변 지역에 매일학교들을 설립해 신축 건물도 많이 지었지만 1938년 무렵 학교는 대부분 일제 학교로 넘어가고, 영화여학교와 강화읍학교만 정부인가를 받고 남아있었다.³⁴ 수원 삼일여학교는 1926년 총독부 인가를 받아 삼일여자보통학교가 되었다(1941년 수원여자매향학교로 개칭; 현재 매향여자정보고교).³⁵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힐만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며 준 기부금으로 1932년 학교 기숙사를 지었고 예배당 건축에도 보탬이 되었다.³⁶ 수원지방도 성경학원을 열고 여성 사역자를 양성했다. 이천 양정여학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1938년 폐교당했고(1943년 재설립), 1928년에 신축했던 교사는 성경학원으로 바뀌었다.³⁷ 1938년 원주·강릉지방에는 유치원이 10개 있었고 서울과 평양에 유학시킬 소녀예비학교가 있었다.³⁸ 원주 여자사회관의 야학에는 낮에 일해



이천여학교의 첫 교사 © Fifty Years of Light

야 하는 극빈 가정 소녀 50명이 출석했다. 에스더 레어드(Esther J. Laird) 선교사는 소녀들이 배움을 좋아하여 “방학하면 안된다”고 아우성이었다고 전했다.³⁹

공주, 홍성(미감리교회)

공주 영명여학교는 1932년 총독부의 압력으로 남자반, 여자반이 있는 영명실수(실업)학교가 되었다가 1942년 강제 폐교되었다(광복 후 1949년 9월 재개). 홍성지방에는 1938년 무렵 비인가 자립 소학교가 4개, 유치원이 4개 있었다.⁴⁰

일제강점기동안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는 교육사업을 계속 지원했다. 물론 한국인 학부모와 독지가들도 학교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 룰라 밀러(Lula Miller, 미라) 선교사가 은퇴하며 미국에 돌아간다는 소식에 지역 독지가들이 “외국인인 밀러도 와서 우리 딸들을 위해 30년 일했는데…”라며 벽돌 교사를 신축해주었다(1937).⁴¹

그럼에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의 재원 투입이 훨씬 많았다. 일제강점기 하반기에도 학교 인접 부지를 매입해 교사를 신축하고 운동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이어갔다. 예를 들면 평양 정의여학교에 1930년 체육관, 휴애덤커크예배당(Hugh Adam Kirk Chapel), 프로인텐(Freunden)기념교실, 기숙사를 지었다.⁴² 해주에서는 유치원에 어린이가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하다가 1935년에 유치원을 신축했다.⁴³ 이러한 목록은 연회록에 셀 수 없이 나오는 부지 확보 및 건축의 일부일 뿐이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설립 시(1924) 재산목록을 보면 북한의 평양, 영변, 해수에 2만평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평양의 광혜녀원과 사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부터 고등과, 성경학원에 이르는 학교다. 일제가 선교사를 추방할 때까지 약 15년 더 활동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 있는 선교 재산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 재산은 북에 남게 되었다.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부는 북쪽의 거점 선교기지들에서 호수돈여학교를 비롯한 여러 명문여학교를 공들여 일구었다. 분단 후 북쪽 학교의 역사는 미상이다. 여성 선교사들과 전도부인의 손길과 유산은 역사의 비극 속에 묻혀 있다.

의료사업

일제강점기 하반기에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며 의료선교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선교사들은 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교인과 의료인에게 의료사업을 점점 더 맡겼다.⁴⁴ 의료선교사들은 강제 추방되었을 때 각지의 병원 운영권을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양했다. 의료사업은 진료, 간호사 양성, 공중보건활동, 전도 등을 병행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는 일제강점기 하반기에도 두 명의 의사(1927년 Berneta Block, 1928년 Evelyn Leadbeater)를 더 파송하여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을 수행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는 의사선교사를 일제강점기까지 10명, 한국전쟁 후 4명 등 총 14명 한국에 파송했다.

서울, 인천(미감리교회)

동대문의 릴리언해리스기념병원은 1930년에 한국인들이 편히 부르던 이름, “동대문부인병원”(East Gate Women’s Hospital)으로 개칭하며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되었다.⁴⁵ 1930년대에는 경제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1939-1945)으로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었지만 1936년부터 자립하게 되었다. 동대문의 간호원양성소는 1933년 폐교할 때까지 60명이 졸업했다.

1928년 한국인 유지 60여명은 여자의학교를 만들자는 홀 선교사의 호소에 부응해 “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다.⁴⁶ 이 학교는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거쳐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재단법인 우석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았다(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물포부인병원은 1931년 현대식 건물을 지었고, 1937년에는 환자가 12,334명에 달했다.⁴⁷ 의료진은 주문진과 강화도, 주변 섬에 배를 타고 다니며 의료선교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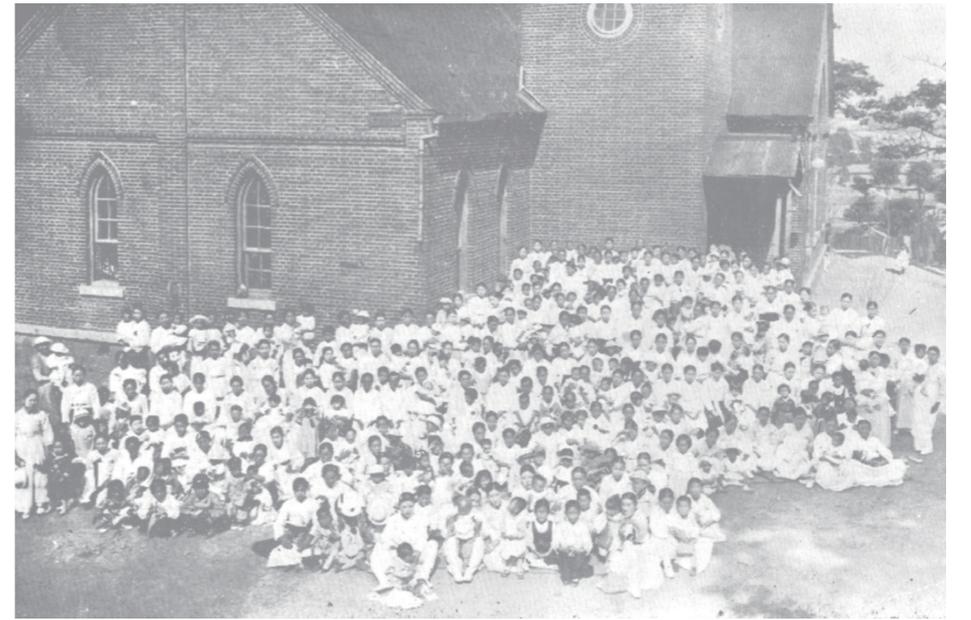
평양, 해주(미감리교회)

광혜녀원에서는 전도부인들과 사역자들의 복음전도가 1926년의 경우 1,000명 이상의 개종자가 생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⁴⁸ 이디스 게일로드 (Edith F. Gaylord) 선교사는 병원을 통해 공공보건과 유아복지 사업을 펼쳤다. 1929년 줄라 페인(Zola Payne, 변솔라) 간호사선교사가 부임하며 간호원양성소가 크게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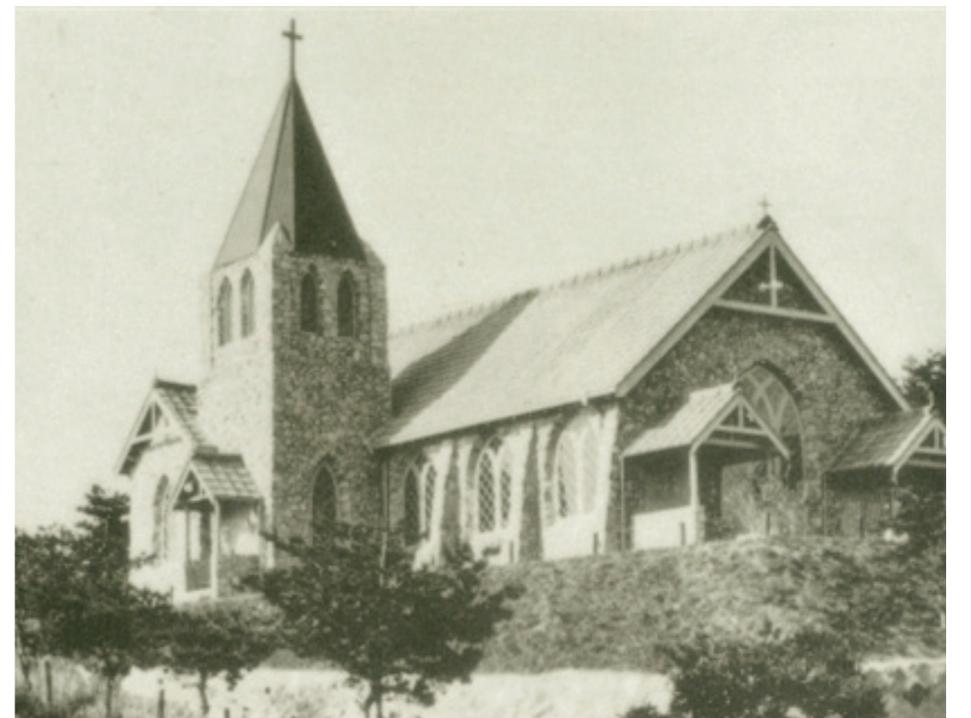
해주에서는 셔우드 홀(Sherwood Hall, 홀의 아들) 의사선교사가 구세병원에 부임한 후 1928년 한국 최초의 결핵 환자 요양소인 구세요양원과 결핵위생학교를 설립했다.⁴⁹ 1928년 매리언 홀(Marian B. Hall) 선교사가 유아복지 구락부(클럽)를 열었고 1930년대 초에는 산부인과를 열고 한국인 여의사가 진료를 했다.⁵⁰



조선여자의학강습소 학생들 ©이화역사관



제물포지방 공중위생진료소 ©Fifty Years of Light



해주 결핵요양원 안에 지은 로제타홀예배당

공주, 원주(미감리교회)

공주의 마렌 보딩(Maren Bording)은 1924년 진료소의 방 한 칸에서 “유아진료소”(Baby Clinic)를 열었고, 곧 데이튼 부인의 기부로 어린이 진료소를 신축했다(1925).⁵¹ 1927년 보딩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 과정인 공중위생간호학원(Post-Graduate Course)을 설립했다.⁵² 원주 서미감병원은 맥매니스(S. E. McManis) 의사선교사, 안사영 의사가 1933년 폐원할 때까지 전도, 위생교육, 육아교육, 간호원 양성교육 등에 공헌했다(1959년 재개).

개성, 원산, 춘천(남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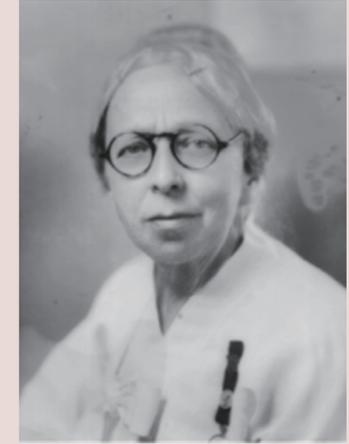
개성의 남성(南星)병원은 1920년대 중반 로자 로더(Rosa M. Lowder)는 간호사양성사업을 맡았고, 여자사회관 안에 진료소를 두고 한국인 여의사(Dr. Ko)가 여성과 어린이 진료를 시작했다.⁵³ 1926년 원산 구세병원에서는 블랜치 하우스(Blanche Hauser) 간호원장을 비롯해 의사 5명, 간호사 12명이 있었고 26,844명을 진료했다.⁵⁴ 1930년대 초반에는 간호원양성소를 열었다. 춘천예수병원은 18년간 원근각처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한 후 1926년 재정난으로 폐쇄했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소유한 병원의 토지와 건물 가치는 1928년의 경우 인천이 3,500엔, 평양이 48,000엔, 서울이 130,000엔으로 총 181,500엔에 달했다.⁵⁵ 1942년 일제는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의료사업 재산을 적산으로 몰수했다(해방 후 남한에서만 회복). 개성과 원산에서 활발히 사역했던 남감리교회 병원의 역사는 남북 분단 후 미상이다.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의사선교사



젊은 시절의 로제타 홀



노년의 로제타 홀

셔우드(홀)는 1890년 10월 13일 내한해 정동 보구녀관에서 진료활동을 시작했다. 1891년 내한한 약혼자 윌리엄 홀(William J. Hall) 선교사와 결혼 후 함께 평양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남편은 부상자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 전염병에 걸려 11월 24일 별세했다. 홀은 그 해 말 두 살배기 아들(Sherwood Hall)과 박에스더(김점동)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 1895년 1월에는 딸 이디스 마가렛(Edith Margaret)을 출산했다. 홀은 미국에서 모금하여 평양에 송금해 1897년 2월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Hall Memorial Hospital)을 열었다. 1897년 11월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내한했다. 1898년 5월 딸이 사망해 양화진 남편 옆에 묻었고 6월에 광혜녀원(筐惠女院)을 열었다. 1899년에는 딸의 이름을 붙여 이디스마가렛 어린이병동을 만들었다. 1920년 동대문부인병원장으로 파송 받아 서울로 옮긴 후 1921년에 제물포 부인병원을 열었다(현재 인천기독병원).

홀은 평양에 있을 때 한국 최초의 맹아학교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교인(오석형)

의 딸인 시각장애인 오봉래를 가르쳤다.⁷⁷ 안식년(1897)에 미국에서 점자법(New York Point System)을 배웠고 한글점자(4점식)를 개발하여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를 만들었다(국가등록문화재).⁷⁸ 오봉래가 교육을 받은 후 읽고 쓰고 뜨개질까지 하자 사람들은 놀라서 다른 시각장애 소녀들을 데려왔다. 홀은 1900년 평양맹학교(클락여맹학급), 1909년 평양농아학교를 세웠고, 이후 두 학교를 합쳐 평양 맹아학교(Blind and Deaf School)로 만들었다.

홀은 한국인 여성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891년부터 의료보조훈련반(Medical Assistant Training Class)을 개설했다. 조선인 최초로 여의사가 된 박에스더는 첫 열매였다(1900). 1912년에 홀은 메리 커틀러(Mary Cutler) 의사선교사와 함께 평양에서 여자의학강습반(Women's Medical Class)을 열었고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를 통해 첫 국내과 의사 3명을 배출했다(1918년 안수경, 김영흥, 김해지).

1926년 홀은 자신의 회갑연에 온 사람들에게 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의할 것이 있는데, 이는 조선 여성을 위해 하려는 일로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을는지요 … 현재 조선에 있어서 여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입니까. 그런즉 우리 조선 안에 여자의학전문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⁷⁹ 이에 한국인 유지들이 부응하여 1928년에 여자의학강습소(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가 생겼다.

홀은 40년간 한국에서 사역한 후 1930년 건강상 귀국했고 1951년 4월 5일 별세했다. 2024년 한국정부는 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찾아가는 병원: 메리 커틀러(Mary Cutler) 선교사의 이동진료소(Traveling Dispensary)



평양 지역에서 의사선교사 메리 커틀러는 순회진료를 은퇴할 때(1939)까지 이어갔다.⁸⁰ 커틀러는 의료 보조원 몇 명과 함께 버스에 약품과 장비를 싣고 다니며 환자를 진료했다. 1928년에는 843명의 환자를 돌봤고, 1,968명의 환자가 이동진료소와 평양의 작업실에 찾아왔다. 때때로 이동진료소에서 왕진을 갔는데 가까우면 걸어갔고, 환자측이 조랑말이나 가마를 보내주기도 했다. 커틀러는 가마를 타고 가며 겪은 일을 들려준다. “하루는 가마를 타고 왕진을 가는데 여자아이들 몇 명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신부 보러 가자!’ 아이들은 가마를 슬쩍 열고 나를 보고는 실망했다.”⁸¹ 당시에 결혼식에 가는 신부들도 가마를 탔기 때문이다.

커틀러는 1892년 내한해 한국을 위해 42년간 헌신했고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커틀러의 순회진료소 차량

전도사업

일제가 교회를 억압했지만 선교사업은 꾸준히 발전했다. 여성 선교사는 담당 지방에서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전도부인과 함께 시골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했다. 1938년 무렵 여선교회 회원은 성인 5,168명, 젊은이 1,123명, 소녀 3,456명 등 총 9,747명이었다.⁵⁶

1920년대부터 줄어든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1936년 조선감리회는 총리원 전도국에 “여자사업부”(Women’s Work Section)를 신설했다. 사실 모든 여성 사업이 총리원 전도국 산하에 흡수되고 축소되었음을 의미했다. 여성 선교사들과 한국 여성은 여자사업부를 전도, 종교교육, 유치원사업, 보건사업, 가사 및 구락부 등 5개의 사업 분야로 나누어 함께 운영해갔다.⁵⁷

서울(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서울의 여성교인과 헌금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1929년에는 남녀 속회가 특히 활성화되었다. 여선교회는 월회비로 적지 않은 304엔(152달러)을 모았고, 350명이 성미를 모아 목회자를 지원하는 성미회에 속했다.⁵⁸ 또한 서대문 밖 공덕리에 클락리스트 기념관(Clark-List Memorial Hall)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1930년부터 성경공부, 기숙사 및 전도부인들이 여름에 쉬고 재충전할 공간으로 썼다(한국전쟁 후 유린관으로 발전).⁵⁹

협성여자신학교는 1931년 12월 남자 협성신학교와 통합되어 “감리교신학교”(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되었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차별로 통합에 반대가 있었지만 관철되었다.⁶⁰

남감리교회의 서울지방은 1930년에 교회 20개, 교인 2,081명, 주일학교 30개(학생 1,323명), 여선교회 12개(회원 288명)로 증가했다.⁶¹



클락리스트기념관(Clark-List Memorial), 서울 공덕리 ©Fifty Years of Light



1930년대 감리교신학교 교수, 학생

평양, 영변, 해주(미감리교회)

평양 선교는 영변, 사리원, 진남포, 강서군으로 확대되었고, 각각 독립 지방이 되었다. 1938년 무렵 평양성 안에만 10개의 교회가 있었다. 평양은 인구의 10%가 크리스천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답게 일요일에 거의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는 도시가 되었다. 평안북도 영변은 1925년 모리스 기념예배당, 남자 보통학교 1개, 남고보 1개, 여자 보통학교 4개, 남녀 선교사 사택, 예배당 49처, 전도부인 10명, 교역자 22명, 신자 3,193명이 있었다.⁶² 해주는 1938년 무렵 교회와 기도처가 50처이고, 여성 교인은 총 1,065명으로 큰 발전이 있었다.⁶³ 1930년 평양(4,844명)은 전국에서 여성 교인이 가장 많았고, 영변(1,828명)과 해주(1,249명)까지 합치면 남한 전체 여성 교인의 66%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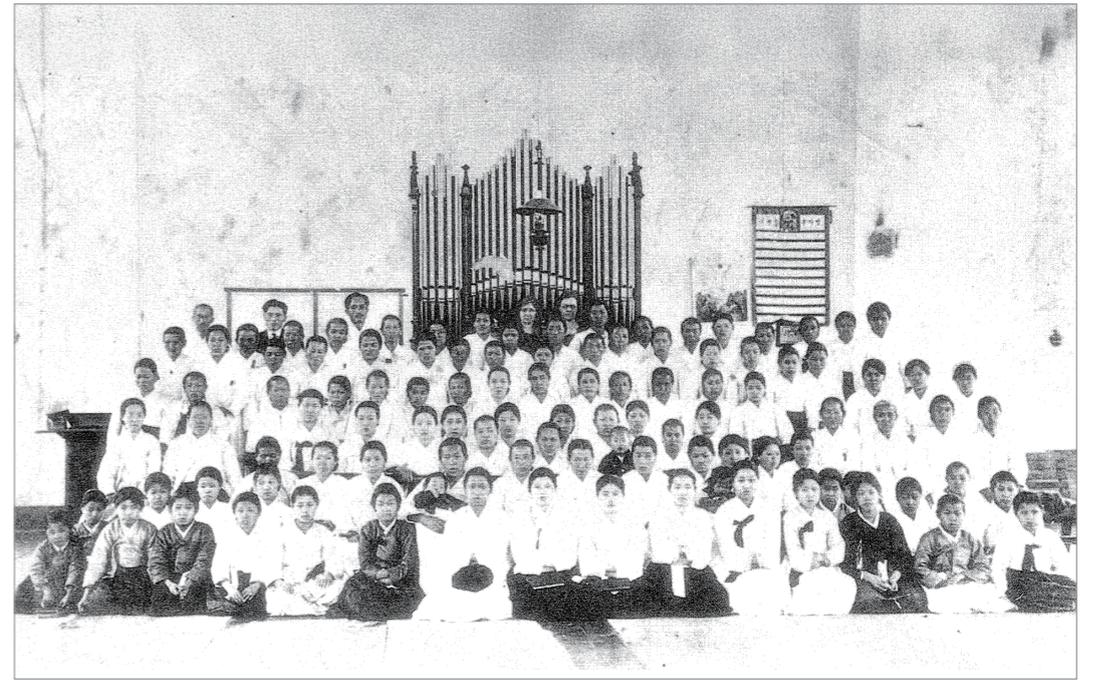
평양지방 여성교회 신입회원 환영식(1938) ©기독교역사박물관

인천, 수원, 이천, 원주, 강릉(미감리교회)

인천지방의 주문도와 강화도에서 큰 성장이 있었다. 1938년 무렵 강화도에만 30개 교회와 기도처가 있었고, 주변 20개 섬에도 교회와 교인이 많았다.⁶⁵ 수원은 그 무렵 35개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학원, 지방사경반, 각 그룹 사경반으로 조직되었다. 사경반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성과 소녀는 가정공과(Home Study Course)로 공부했다. 이천지방에는 50개 교회에 482명의 여성 교인이 있었고, 1937년에 소년, 소녀 야학 31개, 사경반, 성경학원,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등에 여성, 소년, 소녀가 2,367명이 등록했다.⁶⁶ 원주, 강릉은 1935년 여자사업부가 조직되면서 전밀라(1955년 한국 최초 여성 목사)가 첫 사역자로 부임했다.



수원지방 전도사(1930년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원주지방 부인사경회

공주, 흥성, 천안(미감리교회)

1938년 무렵 공주지방은 7개 구역(circuit)에 30개 교회, 여선교회 12개, 회원 251명이 있었다.⁶⁷ 또한 성인과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 청년 조직 3개, 주간직업학교, 여성 야학, 어린이 야학이 있었고, 특히 공주지방 성경학원이 있었다. 그 무렵 흥성지방에는 38개 구역, 32개 교회, 10개 기도처와 전도부인을 포함한 여성 사역자가 7명 있었다.⁶⁸

개성, 춘천, 원산, 철원(남감리교회)

1930년 개성 감리사의 보고에 의하면 시내의 북부, 중앙, 남부 교회는 자립한지 오래되었고, 전도부인의 사례비를 일부 지원했다.⁶⁹ 1930년 개성의 남지방과 북지방의 교인은 총 7,897명이었다. 당시 개성에는 호수돈여

숙, 미리흙여학교, 남성병원, 송도고등보통학교, 유치원들, 여자관, 중앙전도관(Central Evangelistic Plant) 등 감리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여자관은 매주 600명이 찾아오는 곳이었다.⁷⁰ 개성 성경학원과 원산 성경학원(1926년 보혜성경학원으로 개칭)은 더욱 발전하여 전도부인 양성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되었다.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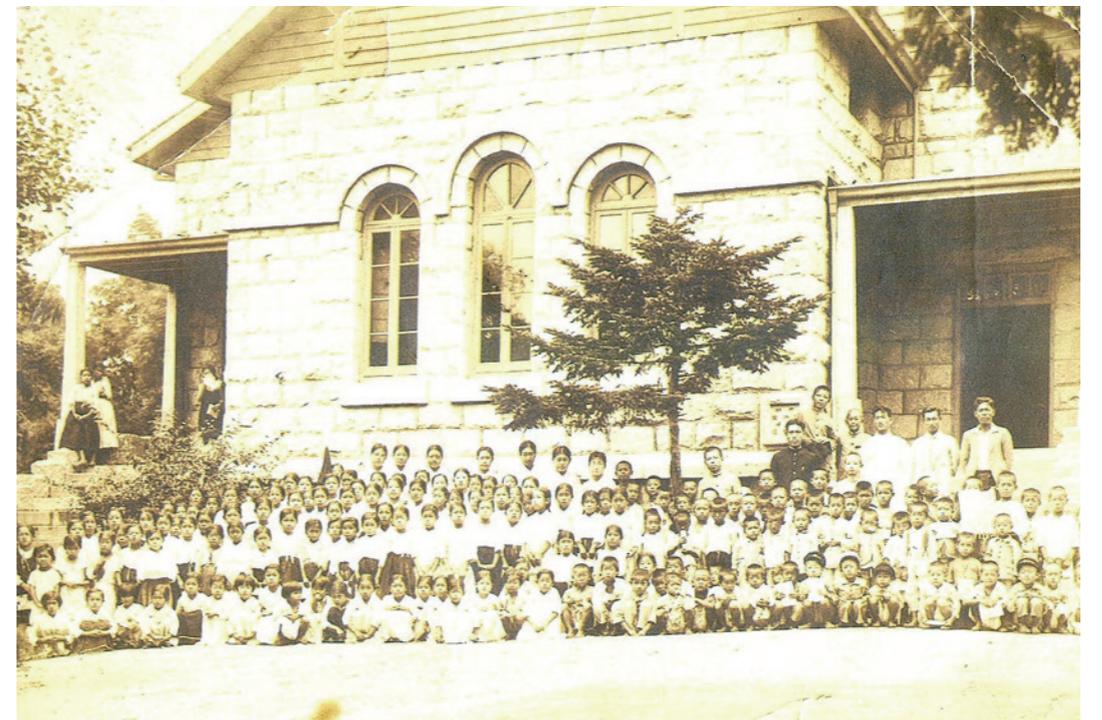
춘천지방에는 1930년에 교회 77개, 교인 3,582명, 전도부인 15명, 여선교회 28개, 여성성경학원 학생 5명, 남학교 2개, 여학교 5개가 있었다.⁷² 철원에는 1930년 무렵 유치원 8개, 서당 7개, 여자관 1개가 있었고, 지방 및 구역 사경회와 여선교회, 여자기독교 금주동맹회 등의 활동이 있었다. 원산에는 1928년 여선교회가 33개, 회원이 477명이 있었다.⁷³ 즉 원산의 여선교회 회원은 서울(365명)보다 많았고, 개성이 가장 많았다(733명).



개성지방 남부교회 유년주일학교 성탄축하(1940)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평안북도 영변 여선교회 회원(1930년대)



개성지방 남부교회 주일학교(1940)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원산 보혜여자성경학원(1930년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는 이배세(1927-1937), 남경순, 이매련(1928) 등을 파송하여 1930년대 후반까지 만주 선교를 이어갔다.⁷⁴ 1927년 시베리아에는 14개 여선교회와 217명의 회원이 있었고, 1929년 북간도에는 13개 여선교회와 360명의 회원이 있었다.⁷⁵ 또한 약 20명의 전도부인이 이들 지역에서 사역했다(1922-1929). 만주연회는 1940년 초교파 만주기독교회가 조직되며 그곳으로 흡수되었다.

앨리스 샤프(Alice J. Hammond Sharp, 사애리시) 선교사



젊은 시절과 노년의 샤프

샤프 선교사는 1900년 내한해 39년간 사역하며 사경회 인도, 순회전도, 교인 심방, 학교 관리 등을 했다. 또한 여학교 20여개와 교회 7개를 설립했고 여러 교회에서 유치원을 설립했다.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이라 가마, 마차, 말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차를 타고 순회했다. 여성들은 샤프를 깊이 존경했는데 남편 순직 후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감독 부인”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⁸²

1946년 샤프는 은퇴 후 미국에서 은퇴선교사 안식관에 입소하며 자기소개서에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한국에서 섬긴 39년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다. 내가 세운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보고, 주일학교와 교회에서 훈련받은 어린이가 전도사, 교사, 전도 부인, 의사, 간호사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다.”⁸³

샤프는 2020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여성 시각의 성서 해석:

애나 채핀(Anna B. Chaffin, 채부인) 선교사



채핀은 1913년 내한하여 1962년 귀국하기까지 약 50년간 한국에서 섬겼다. 채핀은 1918년부터 협성여자신학교 교장을 맡아 20년 넘게 섬긴 것을 비롯해 1937년에는 만주로 가서 “만주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채핀은 여성 시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논문을 여러 편 냈는데, 그리스도의 여성관이 남성 중심의 편협한 관점이 아님을 논증하며 남녀평등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려 했다.

“만일 여성이 어떤 점에 있어 남성과 동등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동등이 되어야 할지니 예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으로 대우했고 그의 교훈에 남성과 여성 간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⁷⁶

한국 여성이 선교비를 모은 방법

여성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선교비를 모았다.

“[평북] 영변지방에서는 회원들이 양말을 꿰매어 회금(선교비)을 작만하고, 수원 지방에서는 회원들이 점심을 한 끼씩 굶고 회금을 내이며 툇 먹서리를 만드러 팔아내기도 하며, 인천지방에서는 쌀의 돌을 골나주고 삭을(삭을) 밧아 내기도 하며, 또 해변에 나가 조개를 잡아 팔아서 내기도 하며, 이천지방 엇던(어떤) 산 협에서는 도토리를 주어다 팔아 회금을 내기도 하였다.”⁸⁴

소녀들도 선교회를 조직해 선교비를 냈다. 보고에 의하면, 1926년 해주 의정여 학교는 유년선교회를 조직해 월 2전(sen)씩 회비를 냈고, 평양 정의여학교는 선교회 회원 100명 이상이 모였고 학생 모임인 공주회가 초급학교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헌금을 했다.⁸⁵

사회사업

남감리교회 여성교회는 1924년 철원에 철원여자관을, 1925년 춘천에 춘천여자관을 열었다. 또한 1926년 원산에 보혜여자관을 열고 야학과 사회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⁸⁶ 각지 여자관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야학부에서는 만학 여성들을 위하여 한글, 영어, 재봉, 요리법 등을 가르쳤고, 사회사업부에서는 영아휴양사업, 생활개선사업, 직업보도사업 등 각종 여성 사업을 운영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는 1930년대 초 원주에 사회관을 열었다. 에스더 레어드(Esther J. Laird, 나에시덕) 선교사는 기독교여자관을 설립하여 (1931) 육아원, 유치원, 청년사업, 도서관, 아기진료소 등을 운영했고, 여성과 소녀를 위한 야학교, 소녀반, 부녀반을 제공했다.⁸⁷

태화사회관(1939) ©GCAH



순화궁과 태화 직원(1926)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1920년대 한국인 어린이는 10살 전 사망률이 거의 50%에 달했고 가장 큰 원인은 위생문제와 영양결핍이었다.⁸⁸ 이에 공주의 보딩 간호사선교사는 우유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우유급식을 받는 유아들의 사망률이 5%로 떨어지자 사람들이 처음에 “소젖” 급식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 1939년 300명의 유아가 우유급식을 받았고, 연간 70,000여개의 우유병이 쓰였다.⁸⁹ 공주의 우유급식소는 중앙영아원(Infant Welfare Center)으로 발전했고, 영아클리닉, 산부인과 진료, 탁아소(Baby Fold)를 병행했다(현재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⁹⁰

조선부인선교부가 우유보급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유아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끈이어 5배나 짙 두유가 개발되었고, 만드는 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⁹¹ 평양에서는 주간아기진료소(Weekly Baby Clinic)와 우유방

(Milk Station)을 운영했다.⁹² 해주에서는 1929년부터 어머니 클럽을 통해 모성건강과 어린이 건강을 보살폈다.⁹³ 제물포에서는 부인진료소를 중심으로 엄마와 아기를 진료했다. 대전의 경우, 부모들이 우유급식소와 진료실로 쓸 방을 마련해 두어서 보당은 1932년부터 대전에서도 우유방을 시작했고 1939년에는 영아원 건물을 지었다.⁹⁴



공주 중앙영아원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일제강점기에 기존사업을 확장, 발전시켰고 사회관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에 재산이 더 늘었다. 경제대공황으로 미국의 여선교회 본부와 지회, 개인과 교회의 지원이 줄긴 했지만 한국에서 선교가 꾸준히 성장했다. 여성의 선교는 남성 선교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했다. 1937년 총 사업비가 미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57,828.43달러로 미감리교회 선교부(15,692.16달러)의 거의 10배였고, 남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88,290.00달러로 남감리교회 선교부(47,482.32달러)의 약 2배였다.⁹⁵

매일학교는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학부모와 지역 유지가 기부 및 건축비 지원에 종종 참여했고, 관립학교로 통폐합되었거나 지역 인사들이 넘겨받아 운영했기 때문이다.⁹⁶ 학교가 이런 변화를 겪을 때 정확히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추적할 자료가 거의 없다. 두 해외여선교회가 자원을 투입한 학교 재산이 현재의 공립학교에 조금이나마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외여선교회는 선교사를 교사와 행정가로 학교에 파송했고, 한국인 교사 월급, 학생들 장학금, 연료비, 건물과 설비의 유지, 보수 등을 비롯한 학교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했다. 이러한 투자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 및 비기독교인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이것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지재단의 커다란 무형재산이다.

이 시기 유지재단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 보고서에 나온다. 1937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 보고서는 한국 선교지재산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몇 가지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을 전한다.⁹⁷ 첫째, 위원회의 요청대로 수원의 밀러 선교사가 이전의 성경학원 기숙사 부동산(136번지 128평과 152번지 55평)을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고 매각대금은 삼일학교에 기금(endowment)으로 주기로 가결했다. 둘째, 제물포 돌모로(석모도) 학교 재산(156번지 357평)은 교회가 원하면 교회에 매각하고 대금은 조선부인선교부 회계가 보관하도록 했다. 셋째, 교회 땅에 건축된 서울지방 용모리여학교의 학교건물을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에 주도록 했다. 조선감리회가 학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조건이었다. 넷째, 선교지 회계의 요청으로 프리맨(Freeman) 기금으로 남아 있는 865.42달러를 동대문부인병원에 주는 것에 동의했다. 다섯째, 채핀 선교사가 요청한 만주의 건축비용 2,000달러를 승인할 수 없어서 유감스러워했

다. 여섯째, 서울공중보건 건물을 위해 3,000달러를 승인할 수 없어서 유감스러워했다. 일곱째, 태화여자관의 새 건물 신축을 허가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남감리교회 여선교회가 기도주간 기금에서 22,500달러를 보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땅을 매각해 조달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말엽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의 파송과 선교사업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1939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의 파송과 사역⁹⁸

지방(Districts)	선교사	사역 내용
인천	마가렛 헤스	시내 및 지방 매일학교들
	알프리다 코스트럽	공중보건과 복지사업
해주	마가렛 헤스	전도사업
	필 런던, 엘리자벳 델비	전도사업
천안	필 런던	시내 매일학교들
	애나 채핀	지방 전도사업과 매일학교들
홍성	한나 샤프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강릉	루이스 모리스 부인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공주	지넷 올드파더	시내 학교들
	애나 채핀	전도사업과 지방 매일학교들
	마렌 보딩	공중보건과 영아복지사업
평양	에이다 매퀴, 에스더 험버트	정의고등보통학교
	헬렌 보일스	시내 및 지방 학교들
	에밀리 아이린 해인스	맹아학교와 여자성경학원
평양	버니타 블록, 나오미 앤더슨, 에텔 버츠, 줄라 페인	연합기독병원
	에밀리 아이린 해인스	동, 서지방의 전도사업

지방(Districts)	선교사	사역 내용
서울	엘리스 아펜젤러, 김활란, 캐터린 베이커, 샬롯 브라운리, 메리온 컨로우, 에이다 홀, 지넷 험버트, 해리엇 모리스, 블랜치 록스, 그레이스 우드, 메리 영	이화여전
	마리 처치	이화여고
	에이다 홀	시내 및 지방 학교들
	제시 마커	전도사업
	엘리자벳 로버츠	동대문 병원
	로제타 홀	의학교육
	엘마 로젠버거	태화사회관
	루이스 모리스 부인	감리교신학교
수원	애나 채핀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원주	에스더 레어드	전도사업과 사회사업
영변	에텔 밀러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이천	거트루드 스네블리	전도사업과 교육사업

같은 해 남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의 파송과 선교사업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1939년 남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의 파송과 사역⁹⁹

지방(Districts)	선교사	사역 내용
춘천	R. H. 루이스 부인	전도사업
	마조리 비어드	사회관 관장 및 전도사업
철원	유린 스미스	전도사업
철원	수지 P. 포스터	사회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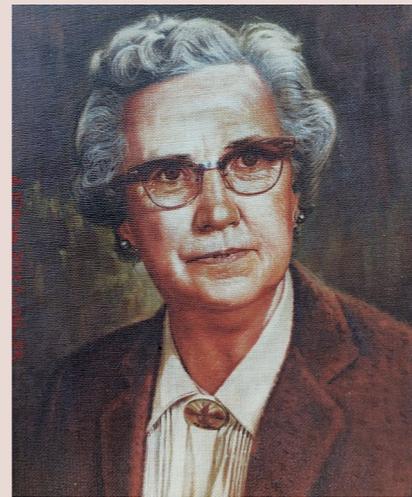
지방(Districts)	선교사	사역 내용
서울	메이블 체리	감리교신학교
	블랜치 하우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벨마 메이너	이화대학교 교수
	할리 부이	배화여학교 교장
	루스 익스	배화여학교 교사
서울	루비 리	배화여학교 교사
	마거릿 빌링슬리	태화사회관 관장
	넬 다이어	태화사회관
	에블린 대커스	태화사회관
	로라 에드워즈	전도사업
	베시 올리버	전도사업(개성지방)
	아이다 헨킨스	미리흠여학교 교장
	로자 로우더	남성병원 간호원장
	모드 넬슨	남성병원 간호사
	개성	헬렌 로서
낸시 블랙		고려여자관 관장
버타 스미스		전도사업(평천지방)
클라라 하워드		유치원 책임자
앨리스 맥매킨		호수돈여고 교사
원산	그레이스 E. 엘트	구세병원 간호사
	케이트 쿠퍼	전도사업
	새디 M. 무어	보혜여자관 관장
	C. U. 잭슨	루씨여학교, 프랜시스 히치 초등학교와 유치원

* 안식년: 베시 올리버, 마거릿 빌링슬리, 넬 다이어, 올리브 스미스, 엘스턴 로랜드, 앤 윌리스, 조세핀 대머론

선교사 = “나 부인”:

에스더 레어드(Esther J. Laird, 나애시덕) 선교사

원주 사람들은 “나 부인”을 “선교사”와 동의어인양 썼다. 나 부인이 얼마나 큰 사랑과 열정으로 섬겼으면 사람들이 남자 선교사까지 “나 부인”이라고 불렀을까? ¹⁰⁰ 레어드는 1926년부터 한국에서 일생 사역했다. 미국 방문 때(1927-1930)는 약 4,000달러를 모금하여 기독교여자사회관을 설립했다(1931). 또한 염소들을 수입해 여성 협동낙동사업을 시작했다. ¹⁰¹ 젓소보다 값싸고 기르기 쉬워서 가난한 아기들에게 염소젖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레어드는 원주농업학교 교사로 일하고 원주결핵요양원을 운영하며 밤에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은퇴 직전(1965년)의 에스더
(대전 기독교요양원 환자의 남편이 그린 초상화)
©『한국에 몸 바친 나애시덕 선교사 이야기』

3.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과 1930년대의 선교 상황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창립(1930년)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연합하여 일했고, 한국에서 하나의 감리교회가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두 감리교회의 연합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1927년 9월 두 교단의 미국 총회에 각각 상정했다.¹⁰² 그 결과 미감리교회는 1928년에, 남감리교회는 1930년에 이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930년 한국에서 31명(한국인 16명, 선교사 4명, 주재 감독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온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Korean and American Commission on Methodist Union in Korea)이 모여 교단 연합 계획을 짰다.¹⁰³ 이들은 연회 조직, 교리와 장정, 재정, 학교와 병원의 소속 문제, 미국 교단과의 관계 문제 등에 대해 연구했다.

1930년 12월에 100명의 총회대표가 참석한 총회에서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창립되었다(3개 연회, 19개 지방 및 만주지방, 총 735개 교회).¹⁰⁴ 총회는 투표를 통한 제직 선출 및 여성안수라는 민주적인 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존의 선교사, 미국 감리교단 및 선교부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Korean and American Commission on Methodist Union in Korea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C (『조선감리회년회록』, 1930)



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위원 ©GCAH

그리고 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를 새로 조직했는데, 이 조직은 모든 선교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전달하는 선교비 집행 실무기구였다. 중앙협의회는 선교사들의 선교지와 각 기관의 선교사 이사직을 결정했고 선교기관의 정관을 승인했다.

기독교조선감리회로 통합된 후에도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는 교단 선교부 및 여선교회가 각각 존재하여 네 개의 기관이 각각의 선교사와 선교기금 원천이 있었다. 여성 선교사들은 1940년까지 각각 미국 여성 선교본부에 별도의 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선교사 153명(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는 각 52명, 30명)은 전국 12개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¹⁰⁵ 그 무렵 미국에서 보내온 한 해 선교비는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120,000~133,000달러)와 남감리교회 여선교회(88,000~133,000달러)가 미감리교회 선교부(12,000~15,000달러)와 남감리교회 선교부(38,000~47,000달러)보다 훨씬 많았다.¹⁰⁶ 미국 여선교회 회원들은 당시 직장 여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합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일전 모으기” 운동, 바자회 등으로 선교비를 모아 보내왔다.

1939년에는 미국에서 남, 북 감리교회가 통합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세 개의 유지재단(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은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회의 창립

1931년에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회”(The Woman’s Missionary Societ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가 창립되었다.¹⁰⁷ 총무 케이트 쿠퍼(Kate Cooper)를 제외하고 임원 6명이 모두 한국인이었다. 그간 활동하

던 보호여회는 여선교회로 흡수되었다. 하나된 여선교회는 352개 지회에 6,757명의 회원을 가졌고, 연 예산(1만 여원)은 교단 예산보다 많았다.¹⁰⁸ 당시 감리교 여선교회는 한국에서 조직, 인원, 재정 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었다.¹⁰⁹ 여선교회는 국내외 선교사업, 교회 및 기관 건축 지원, 구제사업, 은급(연금)사업을 수행했다.

여성 목사안수와 전도부인 제도 확립

기독교조선감리회는 새로운 법에 따라 1931년 6월 연합 연회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었다. 이때 안수를 받은 14명(미감리교회 9명, 남감리교회 5명)은 한국에서 18~25년간 일한 선교사들이었는데, 여성이 안수를 받아 연회의 정회원이 된 것은 감리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14명의 여성 선교사들(1941) © Fifty Years of Light

1956년에야 여성 안수를 허용한 미국 감리교회보다 26년 앞섰다. 아직 한국 여성이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안수받은 선교사들은 교회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열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한국 여성의 안수는 1955년이 처음).¹¹⁰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공헌한 전도부인은 그간 『교리와 장정』에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1934년 총회는 전도부인의 위상과 직무와 더불어 총리사에 의한 임명을 규정함으로써 그간의 공헌을 인정하고 위상을 확립했다.¹¹¹ 전도부인이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서 일하고 해당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공식 목회자가 된 것이다.

교회와 선교사의 수난

일제는 1930년대부터 일본의 패망 때까지 15년간 전쟁에 몰두하며 식민지 억압과 수탈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일제는 일본화 정책과 사상을 교회에 강요하여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정신을 크게 훼손했다. 일제는 전시체제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사업을 마음대로 통제했다. 일제 말에 기독교 조선감리회의 지도자들은 일제의 통제에 순응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조선감리회와 선교사가 겪은 수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업의 축소, 둘째,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셋째, 기독교조선감리회의 혁신교단화 및 전쟁물자 지원 강요, 그리고 넷째, 일제의 선교사 추방령 및 유지재단 재산의 적산화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일제는 1920년대 들어 신사참배를 학교에 도입했다. 처음에 기독교계 학교는 신앙의 이유로 총독부의 양해를 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과 대륙침략 재개 후 신사참배와 더불어 “정신교화,” “심전개발,” “국체명징,” “황민화운동”으로 일본화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학교는 물론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애국심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한국 기독교인은 조상숭배를 거부하고 주변의 박해를 무릅쓰며 신앙을 가졌기에 같은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1932년 1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남장로교회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선교사들에게 폐교하여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든가, 순응하여 학교를 유지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위협했다. 신사참배 문제는 조선의 기독교계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¹¹² 첫째는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 또는 순응으로 선교부와 교파, 개별 선교사와 신앙인이 나뉘었다. 교파마다 저항 정도는 달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두 굴복했다. 둘째는 일부 외국 선교부가 학교를 폐교하는 등 교육사업을 포기했다. 일제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면서(1933) 구미와 관계가 악화되던 차에 신사참배문제는 그간 통제하기 어려웠던 선교사를 탄압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¹¹³



4. 1940년대의 선교 상황

선교사 철수

일제는 중일전쟁 후 미국,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선교사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배척을 노골화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아시아에서도 전쟁 확산이 예상되었다. 이에 미국 국무성은 1940년 5월, 전쟁 지역에 있는 모든 자국민에게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¹¹⁴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잔무를 처리할 5명만 남기고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1940년 10월). 11월 16일에 미국인 219명은 미국 정부가 인천항에 보내온 마리포사호(The Mariposa)를 타고 떠났는데 그 중 대부분이 선교사와 가족이었다.¹¹⁵ 선교사들은 국무성의 요청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서 철수를 결정했다. 선교사들이 배에서 쓴 성명서에 의하면, 일제가 선교사와 교회에 대해 탄압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 외국인으로 서 억류될 것이고, 선교사들과 교류하는 조선인들이 위험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⁶

당시 감리회 선교사 중에는 마리포사호로 떠나지 않고 남은 이들이 많았다. 미감리교회 선교본부는 1941년 1월에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감독과 해외선교부 총무 랄프 디펜도퍼(Ralph E. Diffendorfer)를 일본과 한국

에 파송하여 상황을 살펴보게 했다. 이들은 상황을 살펴본 후 철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선교본부는 모든 선교사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했다.¹¹⁷ 같은 해 12월, 일제는 하와이 진주만 침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적대국이 되었다.



1940년 가을 철수 직전의 선교사들과 가족(일부)

만국부인기도회 사건

1941년 2월에 일제는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으로 남은 선교사를 모두 추방하는 빌미를 만들었다. 이 기도회는 1887년 미국에서 시작된 초교파 여성기도회(현재까지 매년 지키는 “세계기도일”[The Women’s World Day of Prayer])로서 한국에서는 1925년 이래 지켜왔다. 1941년 주제는 “Thy Kingdom Come”(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기도회 내용을 문제 삼아 이를 “외국인 선교사의 반전(反戰) 모략사건”이라 규정하고 전국적 검거를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교회 여성을 포함해 672명이 조사를 받았고, 평양의 감리교 선교사 존 무어(John Z. Moore)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한국인 27명을 기소했다.¹¹⁸ 일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선교사들을 억류하고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1941년 5월 7일 감리회 선교사들은 모두 철수했다.¹¹⁹ 일제 말에 전체 감리교 선교사의 약 70%에 달했던 여성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로 파송 받아 흩어졌다.¹²⁰ 강제로 떠나야 했던 선교사들의 심정은 이렇었다. “114명의 선교사 중 단 한 명도 한국을 잊지 못한다. 또한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지우지 못한다.”¹²¹

감리교혁신교단 창설과 전쟁 지원

감리교 지도층은 1938년 10월부터 총독부에 지시에 따라 신사참배, 창씨개명, 국민정신총동맹 결성 등을 지방회, 교회, 청년회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¹²² 1940년 10월에는 총독부가 지시한 “혁신안”에 따라 교회의 조직과 신앙까지 바꾸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유대교 경향이 강하다 하여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서 일부(마태복음,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읽지 못하게

한 것이다. 혁신안에 반대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정춘수 통리자(감독) 일행은 일제 경찰의 개입 하에 아예 기독교조선감리회를 해산하고 1941년에 “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조직했다. 1942년에는 일제가 모든 교파의 통합을 지시하여 “일본기독교조선혁신교단”으로, 해방 보름 전에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여선교회도 해산되고 대신 “부인회”가 되었다(1947년 복구).

1942년 2월 정춘수 통리자가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 철문, 철책, 교회 종을 헌납하도록 하여 많은 교회가 일제의 전쟁에 협력했다. 가을에는 서울 지방교역자회의에서 변홍규 총리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모든 교회가 비행기 헌납으로 대동아성전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였다. 혁신교단이 임의로 유지재단 재산인 공주 영명고등학교 농지 약 18,363평을 매각한 것도 문제였지만, 일본이 물러간 후인 1945년 9월에도 은퇴교역자 기금으로 유보해 둔 18,363평을 매각한 것은 큰 문제였다.¹²³ 암울한 시대였다.

일제의 적산관리법에 의한 유지재단 재산의 적산화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본은 “적산관리법”을 제정해 조선에서 시행하며 결국 유지재단의 재산을 몰수했다. 유지재단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몰수되었다.

1941년 1월 미국 선교본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감리교선교협의회(The Korea Mission Council, 1940년 1월 19일 조직)에서 선교사 4명(Snyder, Anderson, Moore, Sauer)과 한국인 5명(양주삼, 김활란, 박현숙, 이상용, 이운영)으로 하나의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혁명적” 결정을 내렸다.¹²⁴ 전쟁의 위기감 속에서 취한 긴박하고 임시적인 조치였다. 그 전까지 각 재단에는 9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사 9명 중에서도 선교사들은 곧 떠날 것

이러서 한국인 5명의 이사가 재산 보호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새 이사들은 감리교 “혁신교단”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1941년 3월 선교사들이 최종 철수하면서 이사장 로이드 스나이더(Lloyd H. Snyder)는 양주삼을 후임 이사장으로 정하며 재산 관리를 맡겼다.

일제는 1941년 12월 22일 “적산관리법을 조선, 대만, 화태(사할린 남부)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1178호)과 아울러 “적산관리법시행령”(칙령 제1179호)을 조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서 1941년 12월 29일 미국과 영국을 적산관리법과 적산관리법시행령상의 적국(敵國)으로 고시했다(조선총독부고시 제2086호).¹²⁵

총독부는 유지재단 재산을 친일적 교회 지도자들이 장악하도록 조종했다. 1942년 초부터 감리교 총리원(혁신교단)은 여러 방식을 동원해 유지재단 재산을 장악하려 했다. 일제는 양주삼의 지인들을 통해 양주삼을 회유하게 했다. 지인들은 양주삼을 다과 모임에 초대해 재산을 넘기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양주삼은 곧 집에 돌아왔다.¹²⁶ 서대문과 종로 경찰서는 양주삼에게 전화해 다과 모임 때 뭐라고 답했는지 물으며 압박했다. 또한 9개 지방 교구장(감리사)들은 청원서를 발표했고, 정춘수 통리자는 공문을 보내 양주삼을 압박했다.¹²⁷ 그들의 논리는 재산이 원래 조선감리교회를 위해 축적된 것인데 선교사가 귀국했으니 당연히 교단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양주삼은 자신이 이사장일 뿐 재산을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버텼다.

일제는 1942년 5월 22일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및 다른 개신교 선교부의 모든 소유재산을 적산으로 지정, 고시하고(조선총독부 고시 제776호) 적산관리인을 지정했다. 양주삼은 이제 적산관리인으로 서 때때로 공주, 철원, 춘천, 화진포 등 재산 매각과 이전에 관한 문서에 강제 도장을 찍어야 했다.¹²⁸ 일제는 몰수한 “적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졌으므로 편의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때로 매각의 형

식을 띠었지만 결국은 강탈이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태화여자관은 박홍식이라는 인물이 40만원에 매입하는 형식을 띠는 듯했지만 사실은 일제(종로경찰서)가 매각대금과 건물 전체를 강탈한 것이었다(1951년에 회복).¹²⁹

몇 달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했다.

PART

3

1945
~
1958

제 3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 (1945-1958년)

1. 해방, 남북분단, 선교사 복귀와 유지재단의 재산 회복
2. 한국전쟁 중의 선교활동
3. 전후 복구를 위한 대천협의회(1954년)
4. 한국전쟁 후의 선교활동

제 3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 (1945-1958년)

1. 해방, 남북분단, 선교사 복귀와 유지재단의 재산 회복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태평양전쟁의 종전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의 개입, 국내 이념 갈등 등의 문제로 곧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북쪽은 소련군 군정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거쳐 1948년 정부를 수립했다. 남쪽은 미군 군정(1945~1948)을 거쳐 1948년 5월 최초의 국민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46년 감리교회는 북쪽에서 서부연회를 회복했다. 그러나 기독교인

과 지도자들이 공산정권에 의해 납치, 투옥, 처형을 당하자 많은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선교사 복귀

선교사들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대기하며 선교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해방 소식에 속속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46년 봄부터 공주 담당 프랭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우리암)를 비롯한 미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¹ 미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 선교사들의 복귀는 그해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애나 채핀(Anna B. Chaffin, 채부인), 앨리스 아펜젤러(Alice Rebecca Appenzeller), 에이다 홀(Ada B. Hall, 허을녀), 에이다 매퀴(Ada E. McQuie, 귀애다), 클라라 하워드(Clara Howard, 허길래) 등 5명이 가장 먼저 돌아왔고, 1947년에는 12명이 더 입국했다.² 한편 미국 군정청은 한국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의 가치를 알게 되어 존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이 미 국무성에 선교사(개신교와 가톨릭 각 10명)의 파견을 요청했다.³ 이렇게 입국한 선교사들은 군정청의 농업 및 경제 고문 등의 직책을 가지고 일했다.

선교 활동은 즉시 재개할 수 없었다. 선교 재산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가 재건파와 복흥파로 분열되어 혼란 상태였기 때문이다.⁴

유지재단의 재산 회복

유지재단의 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주삼의 기록이 큰 역할을 했

다. 1945년 10월 양주삼은 매각자산 처분 및 남은 자산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뉴욕에 보냈다. 선교부는 “그렇게 일찍 자세히 모든 자산에 대해 설명을 받아 기뻐고,” 몇 개월 후부터 선교사들이 돌아왔다.⁵ 1948년 7월 세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재조직되었고, 양주삼은 모든 거래내역, 영수증, 매입인 등 기록을 인계해주었다(8월 초 완료).⁶ 이에 감리교선교사협의회(Association of Methodist Missionaries in Korea, AMMK) 실행위원회는 양주삼이 친일 행각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 그의 재산 매각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고, 재산을 보호하려 노력한 양주삼을 치하하며 석방탄원서를 써주었다.

한편 재산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선교 재산이 대량으로登記되다 보니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부동산이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登記된 일도 있었다. 26년이 지난 1963년에 인천시 율목동 241-1번지 21평이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소유임이 밝혀져 명의를 이전했다.⁷

매각 형태를 띠었지만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는 작업도 해야 했다. 로이드 스나이더(Lloyd H. Snyder)와 찰스 사워(Charles A. Sauer)는 미군정과 교섭하며 매각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원래 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해 달라고 미군정에 신청했다. 그러한 재산은 재판으로 소유권을 하나씩 되찾아야 했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 중 종로경찰서가 점유한 태화사회관을 되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1947년 봄 스나이더는 미군정 및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태화여자관을 돌려받기로 했다. 태화여자관이 선교부 재단으로登記되어 법적 절차가 끝났음에도 점유자인 종로경찰서는 비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1949년 1월에 본관을, 1951년 1월에 부속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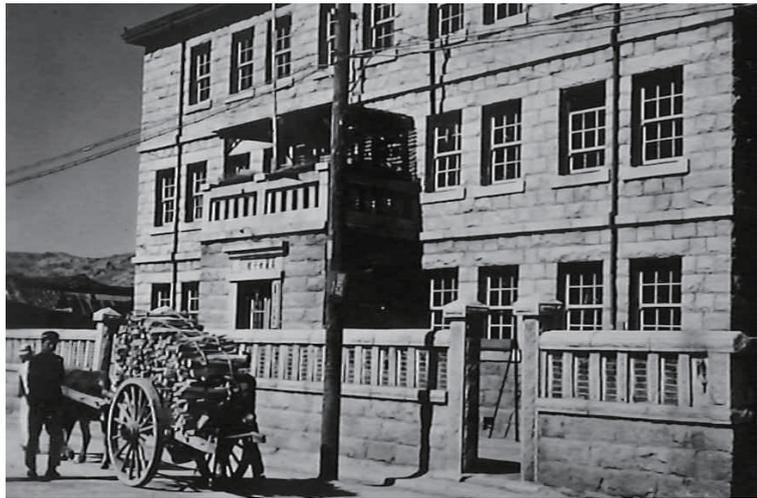
2. 한국전쟁 중의 선교활동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의 선교 재개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는 미국 선교부 관계자의 방한 무렵에 재 정비되었다. 여성 선교사들의 모임은 1940년부터 영어 명칭이 미국 여성국 이름을 따라 the Woman's Division of Christian Service in Korea(WDCS)로 바뀌었고 선교사들은 WDCS라고 약어로 표기했다. 어떤 문서에는 “the Woman's Division”과 “여선교부”로 병기되었다. 여기서는 대한부인선교부로 바뀌기 전까지의 공식 명칭인 조선부인선교부로 쓰기로 한다. 1947년 7월 미국 감리교회 세계선교부(Division of World Missions, DWM)와 여선교회(Woman's Society of Christian Service)의 극동아시아 총무인 투번 브럼보(Twoburn T. Brumbaugh)와 앨리스 빌링슬리(Alice M. Billingsley, 필연사)가 방한했다. 1947년 말까지 선교사들은 일제 말기 적산 처리된 재산을 되찾는 일과 감리교회의 화해를 촉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상반기부터 여성 선교사 25명의 담당 지역과 역할이 정해졌다.⁹ 선교사들이 해방 이전에 주로 활동했던 기관과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되었다. 북으로는 원산의 보혜여자관(쿠퍼)부터 남으로는 대전, 천안, 경기 남부 지방의 전도사업(채핀)까지 배정되었다.



한국전쟁 직전의
개성 여자사회관(1950)
©GCAH



한국전쟁 발발 무렵
피난민 100명 이상을 수용한
개성 선교사 사택
©GCAH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춘천 여성교부(WDCS)
미션하우스 ©GCAH

1949년 4월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에서 재건파와 복흥파가 통합되어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연회의 파송을 받아 일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1949년 11월 다시 내한한 브럼보와 빌링슬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소속 선교사들의 임지와 사역을 정했는데, 당시 재개한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¹⁰

서울: 태화사회관, 배화여자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북부지방 전도사업

인천: 사회관의 사회사업과 병원의 간호사역

강원도: 원주의 농촌-보건-사회사업, 강릉과 춘천의 전도사업

개성: 남성(南星)병원의 간호사역과 보건사업, 고려여자관

명덕(호수돈)여학교

대전: 대전영아관 사업

전쟁으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에 돌아갔고, 여성 선교사 몇 명은 함께 히로시마에서 대기했다. 전쟁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한국군과 유엔군 115만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100만 명이 사망했고, 전재민 1,000만 명이 발생했고, 시설 및 건물 61만 동이 파괴되었다.¹¹ 국민의 약 10%가 희생되고 국토의 3분의 1이 초토화된 것이다. 415개 감리교회 중 전소된 교회당이 79개, 반파된 교회당이 145개로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¹²

“죽음의 행군”

전쟁 중에 개성 소속 선교사 6명은 북한군에 납치되어 전쟁포로 상태로 3년간이나 고난을 겪었다. 그 중 3명은 여성으로 헬렌 로서(M. Hel-

en Rosser, 라혜란), 넬 다이어(Nell A. Dyer, 태래예), 버타 스미스(Bertha A. Smith, 시미혜)였다. 이들은 영양실조와 질병, 모욕을 겪으며 얇은 옷에 살을 에는 추위 속 중강진을 향해 이동한 “죽음의 행군”을 해야 했다.¹³ 이들은 포로교환 계획에 따라 모스크바를 거쳐 1953년 5월 뉴욕으로 갔다. 이런 일을 겪고서도 로서는 1955년 세 번째로 내한하여 전쟁고아들을 돌보다가 1961년 은퇴했다.

전쟁 중에 돌아온 선교사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데 선교사와 가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후 윌리엄 쇼(William Shaw, Earl Show 선교사의 아들)는 미군 군목 신분으로 참전했다. 한국인 상사가 쇼에게 위협한 전쟁에 왜 참전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1950년 9월 현 은평구 녹번동 전투에서 사망).¹⁴

여성 선교사로는 그레이스 우드(Grace H. Wood), 델마 모우(Thelma B. Maw), 플로렌스 파이퍼(Florence R. Piper)가 가장 먼저 돌아왔다. 1952년 12월까지 11명의 여선교사가 감리교선교사협의회 회의록에 언급되는데, 그 중 몇 명은 처음 파송을 받아 왔다.

전쟁 후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감리교선교사협의회로 자주 모이게 되었다. 이 협의회의 실질적 집행기구는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서 위원은 당연직인 회장 외에 여선교사 3명, 남선교사 3명이 선출되었다.¹⁵ 선교 초기부터 임원 선출 및 외부 기관 파송에서 여성과 남성 선교사를 적절히 안배해온 것과 같았다. 1952년 6월에는 브

럼보가 내한해 십여 명의 선교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당시 긴급 현안인 수족절단인(amputee) 지원, 대전 사업 보고, 중앙협의회의 기능 재고 등에 대해 다루었다.¹⁶ 그리고 조선부인선교부 사역으로는 인천부인병원 건물 복구비(1,100만원)와 대전의 사택 수리 및 상수도 공사 예산(600만원)이 통과되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의 선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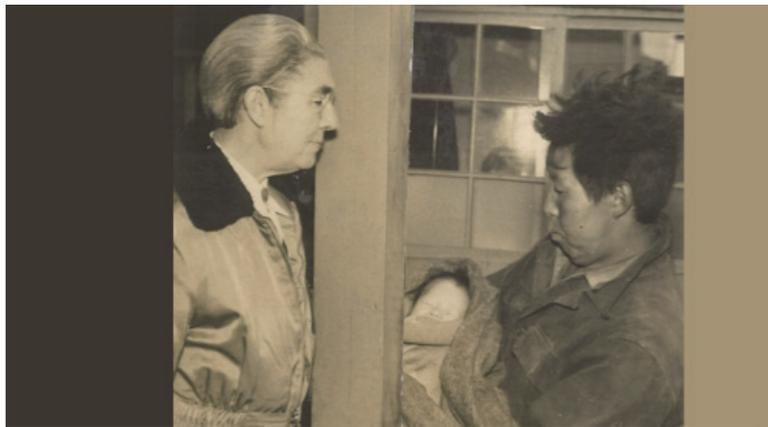
전쟁 중 부산은 임시 수도였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들었다. 다른 개신교 교파들과 더불어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서울의 감리교신학교, 이화여대, 이화여대 유치원, 호수돈여학교, 태화여자관도 부산에서 사업을 이어갔다. 조선부인선교부는 부산에 본부 겸 사택을 마련했다.



부산시절 감신대 학생(106명)의 예배 시간 ©GCAH

조선부인선교부는 부산에서 새로 사회관을 열어 사회사업에 착수했다. 1952년 말리 타운센드(Mollie Townsend) 선교사는 부산기독교사회관을 설립하고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휴전을 앞두고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선교사들은 점차 사역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1953년 류형기 감독의 파송을 받은 여성 선교사 7명이 서울, 부산, 인천, 공주에서 학교, 전도부인 자문, 종교교육, 도시 전도사업, 진료소 등에 배치되었다.¹⁷ 이들의 선교활동은 작은 규모이지만 용감히 재개한 것이었다.



부산사회관에 파송된
타운센드 선교사
©부산기독교종합복지관



부산기독교사회관
영아반(1953)

1953년 여성 선교사들의 파송

지역	선교사	업무
서울	에마 윌슨(Emma Wilson)	조선부인선교부 학교들의 자문 및 코디네이터
	유린 웨임스(Euline Smith Weems)	조선부인선교부 회계, 서울 전도사업
	모드 고프(Maude Goff)	배화여학교와 이화여학교 교사
부산	케이트 쿠퍼(Kate Cooper)	조선감리교회 사무실 전도부인 자문
	메리 미첼(Mary Mitchell)	조선감리교회 교육부와 함께 종교교육사업
인천	바바라 모스(Barbara Moss)	인천 병원
공주	재키 래틀리프(Jackie Ratliff)	유아진료소 관리자, 고아원 고문

대전 선교의 확대

감리교 선교사들은 1949년 다른 교파들과 함께 “기독교연합봉사회”(Union Christian Service Center) 설립에 참여하면서 대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1949년 8월 대전(대덕군 회덕면 중리)에 토지를 매입해 두었는데, 전쟁 후에는 수족절단인 재활, 농촌지도자 훈련, 시범농장, 고아원 사업 등을 펼쳐나갔다.¹⁸ 감리교는 이 연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분단 후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에 놓이게 된 대전에서 사회사업, 교육사업, 전도사업을 시작했다.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는 에스더 레어드(Esther Laird)가 원주사회관의 경험을 살려 대전에서 사회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레어드는 1952년 대흥동(205-1번지)에 대지 345평을 매입해 78평짜리 영아원을 신축했다. 그리고 1953년 1월부터 탁아사업(미숙아에서 4세까지)을 시작했다(1953년 대전기독교사회관으로 개칭). 레어드는 보모를 돕거나 챙겨줄 필요가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업어주었는데 업은 채 바깥일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¹⁹ 간호선교사 재키 래틀리프(Jackie Ratliff)는 영아원에서 어린이 진료를 맡았다.²⁰

대전에서 베씨 올리버(Bessie Oliver, 오리부)는 전도사업, 개성에서 피난 온 호수돈(명덕)여학교의 대전 재개교(1953; 이때부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소속), 감리교 대전신학원 설립(1954) 등에 참여했다. 클라라 하워드(A. Clara Howard, 허길래)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대전보육학원을 설립했다(1955).



에스더 레어드와 대전기독교사회관



클라라 하워드와 대전보육학원 학생들

한국인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다: 케이트 쿠퍼(Kate Cooper, 거포계) 선교사



케이트 쿠퍼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전쟁 발발일은 하필 쿠퍼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쿠퍼는 피난 중 히로시마에 머물며 피폭 한국인을 위해 사역했다. 그리고 1952년 말에 돌아와 부산에 피난 온 감리교신학교에서 가르치며 사역을 재개했다.

모든 선교사는 처음 3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야 했는데 쿠퍼가 처음 한국어를 익힐 때 겪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북적이는 거리를 걷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비켜나는 것이었다. 쿠퍼는 그 말을 적고 외웠다. 그리고 다음에 군중 사이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이 말을 썼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켜주는 커녕 이상하게 쳐다봤다.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이었는지 물었다. “소 온다. 비켜라!” 친구의 설명을 듣고서 쿠퍼와 친구는 한참 웃었다.²¹

그 후 쿠퍼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어 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 약 50년간(1908-1957) 쿠퍼는 원산 루씨여학교, 보혜여자관, 보혜성경학원, 만주 동만여자성경학교, 서울 감리교신학교, 대전신학원(목원대)에서 일했다. 또한 속초교회, 현남중앙교회, 주문진교회 등을 설립했다.

쿠퍼의 69세 생일축하 모임에서 신학교 학생회장이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한국에 머물기를 바랍니다”고 축하인사를 했다. 쿠퍼는 이렇게 답했다. “나도 죽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결코 천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²²

1957년 은퇴 후 미국에 돌아간 쿠퍼 목사는 아주 검소하게 살며 돈이 생기는 즉시 한국에 보냈고, 연금의 일부가 한국으로 가도록 해두었다.



쿠퍼 사레기념(1934) ©기독교역사박물관

3. 전후 복구를 위한 대전협의회(1954년)



대전협의회

한국전쟁 후 1954년 6월 충남 대천 선교사수양관에서 “대전협의회”(Korea Rehabilitation and Planning Conference)가 열렸다. 여기서 교계 지도자들은 감리교회를 신속하게 재건하고 변화된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획기적 계획을 준비했다. 참석자는 한국인 대표(26명), 미국에서 온 감리교회 대표(8명), 그리고 조선부인선교부 선교사(16명)를 포함한 재한 감리교 선교사(34명)였다.²³

재건사업은 5개의 분과위원회, 곧 교회 재건과 전도(Evangelism)위원회, 교육(Education)위원회, 사회사업(Social Work)위원회, 지도자양성(Leadership Training)위원회, 선교부 협의(Relationships)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대전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토의 결과를 종합하여 “교회 재건과 전도사업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6억 9천 7백만원(약 170만 달러)을 미국에서 모금하기로 했다.²⁴ 대전협의회의 5개 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건의서(Recommendations) 내용은 향후 대체로 충실히 실행되었다.

“감독호소기금”

한국 감리교회의 류형기 감독은 모금을 위해 1954년 9월 미국을 방문했다. 류감독은 두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던 리차드 레인스(Richard C. Raines) 감독의 안내로 순회강연을 하며 한국교회의 재건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회의는 “감독호소기금”을 정하고 1954년 11월 14일을 기해 지정헌금을 드리도록 결의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목표액 1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140여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를 포함하여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의 복구를 위해 보내온 헌금 총액은 160만 달러가 넘었다.²⁵

“감독호소기금” 160만 달러는 교회의 재건에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그 중 30%는 전후 복구 및 구제 사업을 위해 한국에 있었던 미국 감리교 해외구제위원회(The Methodist Committee for Overseas Relief, MCOR)에 할당되었고, 70%는 교회 복구비에 쓰였다. MCOR의 경우, 납치유가족 생활비와 은퇴 및 병약 여교역자 보조와 같이 다양한 개인과 가족을 지원했고, 모자원, 고아원, 결핵진료소, 병원 등 많은 기관을 지원했다.²⁶ 교회 복구비의 경우, 교회당, 목사관, 기숙사 등에 60%, 학교, 병원 등 기관에 25%, 선교사 사택 및 가구에 10%, 나머지 5%는 예비비로 분배되었다.²⁷

세 유지재단의 운영 방식

부산에서 급한 대로 재개한 조선부인선교부의 활동은 1954년 12월에 서울 정동 선교부지에서 여선교사 27명을 포함해 60명이 모인 감리교선교사협의회를 통해 본격케도에 올랐다. 이 선교사협의회에서 유지재단(Legal Holding Body)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이사는 총 7명으로 감리교선교사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에서 각 3명씩 들어갔다.²⁸ 일제강점기 말에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의 이사회를 만들어 세 유지재단을 관리하게 한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재산의 매매와 이전에 대해 결정했다. 이 결정사항은 감리교선교사협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승인받았다. 그런 후 이렇게 승인된 결정은 미국 선교본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 구조였다.²⁹ 이 절차는 선교 초기부터 동일했다. 그밖에 선교사 및 관리인 사택의 수리, 보수, 임대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아닌 감리교선교사협의회 내 재산위원회에서 다루었다.

4. 한국전쟁 후의 선교활동



전후 복구를 위해 달려온 여성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가 한국 복구에 힘을 보태려고 달려왔다. 미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만 들자면, 1954년 처음 내한한 여성 선교사가 3년 단기선교사(K-3)를 포함하여 10명이고, 1950년대에 내한한 여성 선교사는 총 35명이 넘는다.³⁰ 선교사가 증원되고 조직이 정비되면서 조선부인선교부의 활동은 한층 더 탄력을 받았다. 1954년만 해도 여러 선교기지에 당장 필요한 선교사 사택이 가족 선교사 사택까지 합쳐 17채나 되었다.³¹

기독교조선감리회는 자치 교회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온전히 자립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당분간 해외 재정과 인력 지원이 더 필요했다. 조선부인선교부는 1950년대 중반의 선교비를 아래와 같이 책정했다. 이 목록은 당시 선교사가 배치된 기관, 사역 지역, 사역 규모를 보여준다.³² 개성 선교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분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

일반사업 및 연회별 사업	사업명	현재 지원액(달러)	청구액(달러)	
일반사업비	사역자 연구장학금	3,500	3,500	
	시청각 교육비	800	800	
	신학교 전수과	2,000	2,000	
	기독교서회 보조	1,000	1,000	
	교육고문비(월슨)	1,500	1,700	
	각 지방 선교사 전도사업비	12,800	12,800	
	부녀관(교과연합)	500	500	
일반사업비	유치원 사업비	3,000	3,000	
	이동 진료반	3,500	3,500	
	청년 사업비	1,500	1,500	
	국민학교비	2,000	2,000	
	선전과 출판	2,000	2,000	
	농촌사업	4,000	4,000	
	여전도사 보조비	2,000	2,000	
	신학교	6,000	6,000	
	장학금(지도자 훈련)	3,500	3,500	
	임시비	961	961	
	예비비	576	576	
	선교부 회비	NCC	200	
	선교부 회비	KCCE	50	
동부연회	서울동지방	전도비	1,800	1,800
		서울동지방(쿠퍼)	-	1,800
		서울동지방(모어)	-	1,800
		와이엇영아원	500	4,000

일반사업 및 연회별 사업	사업명	현재 지원액(달러)	청구액(달러)	
동부연회	춘천지방	의료와 공중위생	1,500	1,500
		전도사업	2,500	2,500
	강릉지방	의료와 공중위생	1,500	1,500
		전도사업	2,500	2,500
원주지방	의료와 공중위생	1,500	1,500	
	사회전도사업	2,500	2,500	
중부연회	서울북지방	여자기숙사	3,000	4,000
		인보관[사회관] 사업	2,500	2,500
		배화여고	8,000	8,000
		태화사회관	10,000	15,000
중부연회	서울남지방	장학금	1,000	1,000
		이화여고	4,000	4,000
		세브란스간호학교	2,500	2,500
		장학금	1,000	1,000
	인천동지방	사회관	2,500	2,500
		국민학교, 중학교	3,500	4,000
	인천서지방	기독병원	-	-
		이동진료비	1,500	2,500
이천지방	여자중학교	3,000	5,000	
수원지방	여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3,000	4,000	

일반사업 및 연회별 사업	사업명	현재 지원액(달러)	청구액(달러)		
남부연회	대전지방	전도사업비	2,000	2,000	
		여기숙사	1,000	1,000	
		호수돈여학교	4,000	6,000	
		보육대학	4,000	4,000	
		공주영아원	3,000	4,000	
		공중위생	1,500	1,500	
		장학금	1,000	1,000	
		사회사업관	7,000	8,500	
		부산지방	전도사업비	1,800	1,800
			사회관	6,500	6,500
개성 (3지방)	호수돈(중학교)	4,000	4,000		
	호수돈(국민학교)	1,500	1,500		
	남성병원	1,500	1,500		
	미리흠학교	1,500	1,500		
	공중위생	1,500	1,500		
	사회관	6,000	6,000		
신규 청구액	사역자 하기수양회	-	2,000		
	대전 전수과[신학교]	-	2,000		

예산교부 일반 예산과

	현재	전구
일반사업비		
사업자 연구장착금	83,500	83,500
시정락 포육비	800	800
신학교 전수과	2,000	2,000
기록교서회 보조	1,000	1,000
신학교 문비 (월보양)	1,500	1,700
각지방선교사 전도사업비	12,800	12,800
부 터 과 (교과연환)	500	500
유치원 사업비	3,000	3,000
이동 진료반	3,500	3,500
철년 사업비	1,500	1,500
국민학교비	2,000	2,000
선전과 출판	2,000	2,000
농촌사업	4,000	4,000
여전도사 보조비	2,000	6,000? 2,000 2,000?
신 학교	6,000	6,000
장 착 금 (지도자 훈련)	3,500	3,500
검 시 비	961	961
예 비 비	576	576
선교부 결비	N.C.C. K.C.C.E	200 50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1955)

동부선회 관계		
서울동지방 전도비	1,800	1,800
" (구 파)	-	1,800
" (은 비)	-	1,800
화기연 육과원	500	4,600
춘천지방		
의문회 공공위생	1,500	1,500
전도사업	2,500	2,500
강릉지방		
의문회 공공위생	1,500	1,500
전 도 사 업	2,500	2,500
원주지방		
공공 위 생	1,500	1,500
사회 전도사업	2,500	2,500
중부선회 관계		
서울북지방		
여 기 속 사	3,000	4,000
인보관 사업	2,500	2,500
배화여고	8,000	8,000
대학사회관	10,000	15,000
장 착 금	1,000	1,000
서울남지방		
이화여고	4,000	4,000
세브란스간호학교	2,500	2,500
장 착 금	1,000	1,000
인천동지방		
사 회 관	2,500	2,500
국민 학교	3,500	4,000
인천서지방		
기록병원	-	-
이동진료비	1,500	2,500
아천지방		
여자중학교	3,000	5,000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1955)

주원지방 여학교 (국민 중학)	3,000	4,100
남부선리 관계		
대전지방		
전도사범비	2,000	2,000
여기숙사	1,500	1,000
홀스톤여학교	4,000	6,000
보육대학	4,000	4,000
공주유아원	3,000	4,000
공중취생	1,500	1,500
장학금	1,000	1,000
사회사업관	2,000	2,500
부산지방		
전도사범	1,800	1,800
사회관	6,500	6,500
개성 (삼지방)		
홀스톤 (중학)	4,000	4,000
" (국민)	1,500	1,500
아리비병원	1,500	1,500
메리퀸학교	1,500	1,500
공중취생	1,500	1,500
사회관	6,000	6,000
신규청구액		
사역자 자기수양회		2,000
대전 전수과		2,000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1955)

전쟁 후 선교사업은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의 복구 및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몰장병 유가족의 거주와 자립을 위한 사업, 영아원, 도시로 몰려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있었다. 한국 감리교회는 자치 교회로서 대부분의 교회와 기관에 한국인 인력은 충분했고 선교사는 동역하고 있었다. 조선부인선교부의 사업은 이전처럼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

교육사업

미감리교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던 학교들은 건물을 복구해야 했다. 대규모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학교 수요가 팽창하여 새 건물 신축, 경상비 등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 조선부인선교부는 이화여고, 배화여고, 호수돈여고에 우선 “작은 기부금” 각 2,000 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건축과 수리, 인건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이어갔다.³³ 그밖에 조선부인선교부는 유지재단 소속의 수원 매향여학교, 인천 영화여학교, 이천 양정여학교 등을 지원했다.³⁴

새로운 교육사업으로 조선부인선교부는 하워드를 보육교사 양성사업에 파송했다. 하워드는 대전 목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대전보육학원(Taejio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의 캠퍼스를 조성했다. 건축 중인 1955년 4월, 18명의 학생이 중앙교회에서 첫 수업을 수강했다.

호수돈여중고는 새로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부산에서의 피난 시

절을 거쳐 1953년 4월 대전제일감리교회 옆 기와집에서 수업을 시작했다.³⁵ 조선부인선교부는 올리버를 호수돈여중고 재건에 파송했다. 올리버는 1956년 용두동 부지 약 8,700평을 매입했고, 교사, 기숙사, 대강당 건축이 차례로 건축되었다.³⁶

이런 공식 학교 외에 감리교회는 “웨슬레구락부”(Wesley Clubs)와 같은 비공식학교를 운영했다. 전쟁 후 거리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넘쳐났지만 부모와 정부는 여력이 없었다. 개척교회들은 초등 및 중등과정의 웨슬레구락부를 많이 운영했다. 학비는 무료였고, 운영비는 대체로 미감리교회 선교비로 충당했다. 조선부인선교부 선교사들은 운영 및 교사활동에 참여했다. 1956년 전국 감리교회 웨슬레구락부 학생은 14,000명이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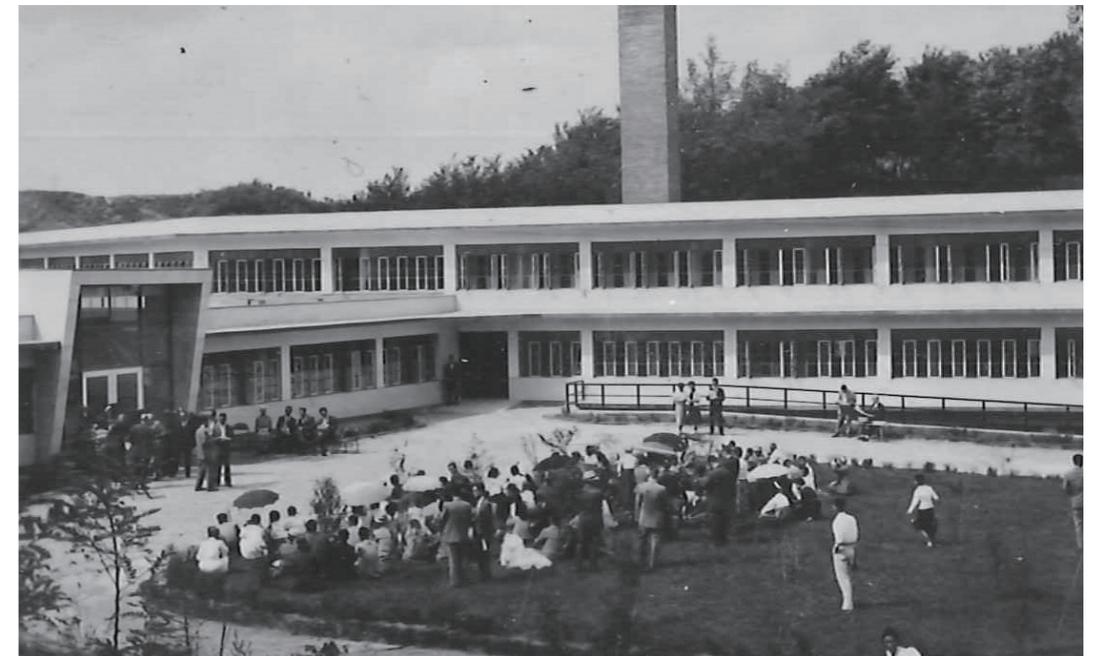
태화사회관의 웨슬리구락부(195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의료사업

1953년 선교사들은 감리교선교사협의회에 의료위원회(Medical Committee)를 만들었다.³⁹ 당시 위원은 의사, 간호사 선교사로 모스, 타운센드, 파이퍼였다. 의료사업은 세브란스병원과 간호학교 지원 및 인천기독병원에 2층을 올리는 건축비 지원 결의로 재개되었다.⁴⁰

인천기독병원은 1952년 재설립되었다(1971년 학교법인 새빛학원 설립). 모스는 인천기독병원의 증축에 필요한 자재를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를 통해 신청했다. 1958년 조선부인선교부는 병원 근처 부지매입을 위해 30,000 달러를 지원했다.⁴¹ 모스는 선교부가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진료소를 주 3회 운영했다.⁴²

전쟁 후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와 조선부인선교부가 새롭게 주력한 의료사업은 원주연합기독병원이었다. 선교사들은 서미감병원이 있던 원주



원주연합기독병원 개원식(1959) ©GCAH

에서 의료사업을 재개하고 싶어 했다.⁴³ 1959년 원주병원은 대한부인선교부(1958년 개칭), 조선선교부, 감리교해외구제위원회(MCOR),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 국제연합한국부흥위원회(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등의 협력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개원할 수 있었다(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⁴⁴ 1960년 원주병원은 48,312명을 유료로, 10,880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특히 결핵환자의 진료 비율이 전국 2위였고, 약 절반을 무료로 진료했다. 대한부인선교부는 의료진을 파송하는 한편, 매달 240만환을 병원에 보조했다.

전도사업

조선부인선교부 선교사들은 각자 소속 교회와 연회가 있었고 기관 파송을 받았어도 전도사업과 연결하여 활동했다. 특히 소속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성경공부, 영어반 등을 인도했다. 1950년대 전도사업에 파송받아 일하는 선교사의 모습은 아이린 스위니(Irene Swinney, 1954년 내한)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⁴⁵ 스위니는 강릉을 중심으로 울진에서 거진까지 넓은 지역을 다니며 활동했다. 당시 이곳에는 60여 감리교회가 있었지만 목회자는 8명에 불과했다. 스위니는 지방 감리사를 도와 개체교회의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3명의 순회 여성 전도사들과 함께 일했다. 매년 여름에는 한 달간 성경학교를 열어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성경과 신학교육을 제공했다. 목회자부인회, 여름캠프, 주일학교, 웨슬레구락부(문맹퇴치와 교육)를 조직했다. 이동도서관 운영 및 가정잡지 등의 도서 배포도 스위니의 사역 중 하나였다. 특히 문자계몽학교와 웨슬레구락부는 지역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밖에 노련한 선교사들도 전도사업 현장에 있었다.⁴⁶ 1924년 내한

후 1948년, 1953년, 매번 한국에 돌아온 새디 무어(Sadie M. Moore, 모세득)는 춘천지방 등에서 주일학교와 성경공부를 포함한 전도사업을 맡았다. 역시 세 번째 내한한(1925년, 해방 후, 전쟁 후) 유린 웨스(Euline Smith Weems)는 서울동지방과 철원지방의 전도사업을 맡았다. 베씨 올리버(Bessie Olive, 오리부)도 세 번째 내한하여(1912년, 해방 후, 전쟁 후) 대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사회사업

전쟁 후라서 사회사업의 요구가 특히 컸다. 조선부인선교부의 사회사업은 예전의 화려한 업적을 잇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태화사회관은 1953년 20대 나이의 페기 빌링스(Peggy M. Billings) 선교사가 맡았다. 태화는 1955년 봄 본관 수리가 끝나면서 웨슬레구락부 사업, 가정상담, 유치원, 도서실 등 사업을 복구했다.⁴⁷

서울 유린관은 해방 후 쿠퍼가 머물면서 성경학교와 사회사업을 운영했고, 1954년부터는 웨스가 본격적인 사회사업을 전개했다.

인천기독교사회관은 1949년 봄에 헬렌 보일스(Helen Boyles, 박일숙) 선교사가 사택에서 시작해 한글반과 재봉반을 열며 시작되었다. 그런 후 모드 고프(Maude Goff) 선교사가 건물을 신축하고 영어성경반을 시작했으나 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⁴⁸ 전쟁 후 고프가 사택에서 사업을 재개했다(1956년 11월). 사회관은 영아건강검진, 영아놀이지도, 유치부 운영, 도서실 등을 제공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사례별 프로그램으로 구제와 상담 사업을 실시했다. 1970년 12월 대한부인선교부 지원으로 260여 평의 3층 신관을 완공했다.⁴⁹

공주사회관은 원래 중앙영아원이었는데 일제 말기에 마렌 보딩(Maren

Bording) 선교사가 철수하며 운영이 중단되었다. 전쟁 후(1957년) “모자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사업을 펼쳤다. 1958년 대전의 레어드는 강재호 간호사를 공주에 보내 탁아소 사업을 맡겼다.⁵⁰ 간호사들은 월 1, 2회 산모의 집에 방문해 비타민, 칼슘 등을 보급하고 모자지도사업을 전개했다. 1968년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 개칭하고 활발히 사회사업을 이어나갔다(현재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전쟁 중 레어드가 시작한 대전기독교사회관은 조선부인선교부의 신속 과감한 지원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레어드는 영아원에 “호의의 집”(Goodwill House)을 열고 전몰장병 부인들을 대상으로 수예, 재봉, 편물 등의 직업 교육도 실시했다(1973년 폐쇄). 1954년에는 미국의 지인들에게 모금하여 기독교연합봉사회 부지에 결핵요양원을 짓고 환자들을 돌보았다.⁵¹ 또한 보건사업, 영아원, 탁아소, 교육사업(계몽반), 클럽(영어, 자모회, 한센병환자, 어린이), 가족계획, 기술교육, 해외양모 결연, 구제, 급식, 장학사업 등을 펼쳤다.

전쟁 중 타운센드가 개설한 부산기독교사회관은 유치반, 여아 계몽반, 영아부와 어머니회, 종교교육반, 수양구락부, 영어구락부, 음악특별교수반 등 총 1,045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⁵² 또한 빈민구호, 양로원, 고아원, 전쟁 미망인, 한센병 환자수용소를 지원했다. 1966년 복지관을 건립했고,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한부인선교부가 파송한 7명의 선교사들이 차례로 관장을 맡았다.

그밖에 조선부인선교부의 사회사업으로 도시에 마련한 여성 학사(hostel)가 있다. 학사는 지방 학생,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도시에 머물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다. 예를 들면, 하워드는 기숙사 사업을 맡아 4만 달러 예산으로 1954년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명덕학사를 열었다.⁵³ 개성에서 전쟁고아가 되어 월남한 명덕(호수돈) 여학생들이 많아 명덕학사로 이름을 지은 것이었다. 1960년 무렵 명덕학사에는 61명(대학생

33명과 중고생 2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입소자들은 약간의 생활비를 냈고, 부족한 운영비는 대한부인선교부가 지원했다(2016년 운영 중단). 춘천, 원주에도 대한부인선교부 기숙사가 있었다.



대전 육아원(1950년대)
©GCAH



부산 사회관 건강아기진료소 ©GCAH

1950년대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 목록

아래는 1950년대 중반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 목록이다. 타자로 친 이 문서는 유지재단 이사회 자료 속에서 나왔다(세계 선교부 아시아사무실 제공). 이 목록에 명덕학사(1954년 설립)를 포함하여 한국전쟁 후에 설립된 기관들이 나오고, 1958년 매각을 결정한 동대문여학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작성 연도는 1950년대 중반임을 알 수 있다. 이 목록에는 북한에 있는 기관들도 나온다. 또한 더 이상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이전에 설립한 기관(이화여대), 오랜 지원을 통해 사역처라고 여긴 연합기관, 이미 양도한 부지도 하나 나온다(1954년 아현 교회에 양도된 아현여학교). 유지재단 재산 중 빠진 것도 있는데 교회, 옛 여학교 부지 등이다.

지역	기관	지역	기관
해주	해주 선교사 사택	서울	아현여학교
	제천여학교		동대문여학교
평양	Aung Ching 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Tung Yeh 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평양성경학원		이화유치원
	평양맹아학교		그레이하우스[정동]
	평양 선교사 사택		공덕여학교
	평양 교사 사택		명덕학사
	기독교연합병원		유린관
	고려여자관		협성여자신학교[충정로]
개성	송화유치원		배화 선교사 주택
	송마영여학교		배화여학교
	명덕여자고등학교		태화사회관
	명덕초등학교		조선부인선교부

지역	기관	지역	기관
개성	송도 성경공부 집	서울	와이엇(Wyatt) 영아원: 연희동 355-2
	송도 선교사 사택		와이엇(Wyatt) 영아원: 신수동 91-159
원산	보혜여자관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 사택		대한기독교서회
	루씨 여자초등학교(유치원)		Inter-Mission Lodge
	루씨 여자고등학교		어학당
영변	루씨 여자고등학교 기금		여교역자 안식관
	영변 선교사 사택		감리교 본부
영변	영변고등학교 또는 성경학교	수원	삼일여학교
	송덕초등학교		수원 사택
춘천	기숙사		매향여학교
	춘천 선교사 주택	남양유치원	
철원	철원 지방 기숙사	원주	원주 전도부인 집
	인천기독교병원		충선 유치원 집
인천	인천 병원	강릉	선교사 사택
	인천 여성 사택		직원 사택과 차고
	인천사회관	강화도	신문리
	양호(Yang Who)여학교		공주영명고등학교
이천	영화여자초·중학교	공주	선교사 사택
	양정여학교		목사관
옛 양정학교 터	공주 초등학교		
경기도	태화 캠프장[입석]	부산	부산기독교사회관
	앤더슨 호의의 집(Goodwill House)		부산사회관 부지
대전	사회관		부산공중보건 우유방
	사회관 직원 사택		부산기독교사회관 운동장
	호수돈여자중,고등학교		선교사 사택 1가
	대전보육학교		선교사 사택 2가
대전	선교사 사택		자매의 집
	대흥동 선교사 사택		

Aoyama Gakuin- College Zion Dorm	Tokyo
Aoyama Gakuin- College Zion Dorm 2	Tokyo
Aoyama Gakuin College Dorms	Tokyo
Aoyama Gakuin Sr. H.S.	Tokyo
Pratt Sprowels Aud.	Tokyo
Woman's Jr. College	Tokyo
Woman's Jr. College Annex	Tokyo
Jr. High School	Tokyo
Konno-cho WDCS Residence	Tokyo
JICU	Tokyo
Tokyo Union Theological Seminary-Woman's Dorm	Tokyo
Tokyo Union Theological Seminary	
Seishi Gakuen	Yokohama & Chigesaki
Yokosuka Social Center	
Ninooka Cottage	Gotemba
Summer House	Tokayoma
	<u>KOREA</u>
Dormitory	Choon Chun
Choon Chun Missionary Residence	Choon Chun
Chulwon District Dormitory	New Chuhoon Ni
Inchon Methodist Hospital	Inchon
Inchon Hospital	Inchon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소유한 재산 목록

Inchon Woman's Residence	Inchon
Inchon Social Center	Inchon
Inchon Yang Chung Girls School	Inchon
Former Yang Jung Schools Site	Inchon
Yang Who Girls School	Inchon
Ying Wha Girls Primary & Middle School	Inchon
Kangneung Missionary Residence	Kangneung
Worker's House & Garage	Kangneung
Kangwha Island	Sin Mun Ri
Kongju High School	Kongju
Knongju Missionary Residence	Kongju
Kongju Parsonage	Kongju
Kongju Primary School	Kongju
Pusan Christian Social Service Center	Pusan
Pusan Social Center Property	Pusan
Pusan Public Health Milk Station	Pusan
Pusan Christian Social Center Playground	Pusan
Pusan Missionary Residence 1st-Ka	Pusan
Pusan Missionary Residence 2nd-Ka	Pusan
Pusan Sisters' Home	Pusan
Ahyen Girls Primary School	Seoul
East Gate Girls' School	Seoul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소유한 재산 목록

Ewho College	Seoul
Ewho Girls' High School	Seoul
Ewho Kindergarten	Seoul
Gray House	Seoul
Kongdukui Girls' Primary School	Seoul
Myung Duk Girls' Hostel	Seoul
Neighborly House	Seoul
Woman's Seminary	Seoul
Pai Who Missionary Residence	Seoul
Pai Wha School	
Tai Wha Evangelistic Center	Seoul
Toi Who Campsite	Kyung Ki
Woman's Division	Seoul
Wyatt Baby Fold Yuh Hi Dong 355-2	Seoul
Wyatt Baby Fold 91-159 ShinSho Dong	Seoul
Severance Hospital	Seoul
Christian Literation Society	Seoul
Inter-Mission Lodge	Seoul
Korean Language School Inst.	Seoul
Retirement Home for Women Workers	Seoul
Methodist HeadQuarters	Seoul
Sam F. Girls School	Suwon
SuWon Rest. Home	Suwon
Suwom Mae Hyang Girls School	Suwon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소유한 재산 목록

Nam Yang Kindergarten	SuWon
Anderson Goodwill House	Taijon
Community Center	Taijon
Commuity Center Staff Residence	Taijon
Holston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Taejon
Taejo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Taejon
Taejo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Taejon
Missionary Residence	Taejon
Tae Hund Dong W.D.C.S. Residence	Taejon
Wonju Bible Women's House	Wonju
Chungson Kindergarten House	Wonju
Wonju W.D.C.S. Missionary Residence	Chulwon
Haiju Missionary Residence	Haiju
Jechun Girls School	Haiju
Aung Ching Primary School	Pyeng Yang
Tung Yeh Girls High School	Pyeng Yang
Pyeng Yang Bible School	Pyeng Yang
Pyeng Yang Blind School	Pyeng Yang
Pyeng Yang Missionary Residence	Pyeng Yang
Pyen Yang Teachers Residence	Pyeng Yang
Union Christian Hospital	Pyeng Yang
Koryu Women's Center	Songdo
Song Wha Kindergarten	Songdo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소유한 재산 목록

Songmayung Girl's School	Songdo
Myungduk Girl's High School	Songdo
Myungduk Primary School	Songdo
Songdo Bible Study House	Songdo
Songdo Missionary Residence	Songdo
Pottei Evangelistic Missionary Residence	Wonsan
Lucy Girl's Primary School (& Kindergarden)	Wonsan
Lucy Girl's High School	Wonsan
Lucy Girls High School Endowment	Wonsan
Yeng Byen Missionary Residence	Yeng Byen
Yeng Byen High School or Bible	Yeng Byen
Soong Duk Primary School	Soong Duk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소유한 재산 목록

위와 같이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남북 분단으로 북쪽에 있는 재산을 잃었고 해방 후 남한에서 재산을 회복하는 데도 많은 선교비를 써야 했다. 그럼에도 전쟁 중 및 전쟁 후 조선부인선교부가 한국의 복구와 새로운 선교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유지재단 재산이 많이 늘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선교사: 유린 워스(Euline Smith Weems, 서울인) 목사

워스는 1925년 내한해 1965년까지 40년간 섬겼다. 워스는 1960년대 서울 마포 유린관(Neighborly House)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유린관의 문맹퇴치반 웨슬레구락부와 유치원을 관리했다. 또 주일에는 공덕동교회에 출석하며 주일학교와 영어반을 지도했다. 주일 오후에는 시내의 여전도사들과 기도회를 열고 부인성경공부반을 운영했다. 워스가 대한부인선교부 회계로 연 10만 달러의 재정을 관리하며 이 모든 일을 한 것이다.

더욱이 워스는 철원지방 전도사업도 맡았다. 1920년대 처음 내한했을 때 맡았던 지방이라 큰 애정이 있었다. 한 달에 두 주간씩 철원에 머물며 여름과 겨울에는 사경회, 청년수양회, 주일학교 강습회를 열었다. 워스가 철원에 갈 때는 운전사 도시락까지 싸서 다녔다. 워스는 시골 작은 교회들(당시 21개 교회)을 심방하여 설교를 돕고 성만찬과 세례식을 베풀며 젊은 여성 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어려운 가정 사정을 알게 되면 꼭 돌보아주고 아픈 사람은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까지 데려와 자비로 입원시켰다. 불발탄에 맞아 수족이 절단되고 눈이 먼 두 청년을 서울로 데려와 치료해 준 일은 철원 지역의 전설로 남아 있다.

Through the years the Women of the Church have given financial aid and carried out a great missionary program to the Foreign and Home Fields. Mrs. Euline Smith Weems, one of our own daughters, served on the Mission Field in Korea for many years until her retirement.

워스 선교사의 출신교회(First UMC, Hamlet, NC) 100주년 주보에 언급된 워스

클라라 하워드(Clara Howard, 허길래) 선교사



클라라 하워드

하워드는 1923년 내한하여 개성에서 유치원 설립을 시작으로 여덟 교회에 유치원을 설립했다. 제2차 대전으로 미국에서 6년간 머물다 1946년 다시 내한한 후 이화여대 아동교육과 교수, 서울 유치원장으로 일했다. 1955년 대전에서 대전보육학원을 설립하고 유아교육자 양성에 힘썼다. 약 40년간 헌신하고 1964년 3월 은퇴했다.

하워드는 “한국어린이교육협회”의 창립자였고(1948), 유아교육 및 교구 불모지에서 동화, 연극, 게임, 그림책, 장난감, 인형,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도입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하워드는 진정 “한국 유아교육의 선구자”라는 호칭을 얻을만 했다.³⁸

하워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했다. 한국 전쟁 후 유치원에서 원아들은 전쟁놀이를 하곤 했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철없이 노는 아이들을 보며 하워드는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시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하워드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며 갖은 방도로 아르바이트 기회와 장학금을 마련했다.

어느 날 하워드가 아파 휴강하자 제자들이 문병을 갔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 제자가 “선생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편찮았던 하워드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힘이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이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일해주면 고맙겠다.”



배재대학교에 세운 하워드 선교사 상

PART

4

1958
~
2007

제 4장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I (1958-2007년)

1. 미국 선교부와 한국 감리교회의 관계 재정립
2.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구조개편과 1960년대 선교 상황
3. 대한부인선교부와 유지재단의 활동
4. 유지재단의 재산 이양

제 4장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I (1958-2007년)

1950년대 말, 미감리교회 세 유지재단의 이름 속에 있던 “조선”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1948년)이라는 새로운 국호에 따라 “대한”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되었고(1949), 1958년에는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도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 장에서는 유지재단의 이름이 바뀐 시기부터 2007년 스크랜턴센터의 설립까지 반세기 동안 대한부인선교부와 유지재단의 활동, 미감리교회 선교정책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1. 미국 선교부와 한국 감리교회의 관계 재정립



선교비 관리와 미국 선교부와의 관계

1958년 2월 한 “평신도 그룹”(a group of laymen)이 건의서(Recommendations, 1쪽)를 중앙협의회에 제출하며 미국과 한국 감리교회의 관계와 선교비 관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¹ 이 건의서는 중앙협의회의 운영방식에 도전한 것이었다. 1930년에 하나의 감리교회가 되면서 생긴 중앙협의회는 선교사들 대표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들이 모여 미국과 한국 감리교회 사이에서 선교비 예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건의서는 선교비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대한부인선교부와 대한선교부가 각각 회계가 있는 반면에 중앙협의회는 회계가 없는 점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독립성과 자율을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한부인선교부와 대한선교부의 회계를 없애고 중앙협의회의 회계를 만들어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계획은 먼저 총리원의 여러 위원회와 논의한 후 중앙협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시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와 대한선교부의 선교비 예산수립과 승인 절차는 이러했다. 두 선교부는 예전에 설립했거나 전쟁 후 새로 설립한 학교, 병원, 사회관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선교비 예산을 독자적으로 각각 세웠다. 그런 후 각자의 예산안을 감리교선교사협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거친 후 다시 중앙협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절차였다. (선교사들의 사택 마련과 보수, 차량,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 등은 뉴욕 본부를 통해 별도로 관리했다.)

중앙협의회 위원들과 참석자들은 건의서에 대해 논의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선교부 및 선교사와의 관계를 더 연구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² 그러자 곧이어 두 가지 건의서가 더 나왔다. 하나는 한국 감리교회 지도부 목회자들이 작성한 듯한 “우리의 건의와 바람”(Our Recommendation and Desire)인데, 첫 번째 건의서가 총리원(the General Board)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의서라고 하면서 미국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관계, 선교

사 파송, 선교사들의 태도, 선교비 예산 등에 대해 길게(3쪽) 다루었다. 또 하나의 건의서는 “서울지방 평신도 지도자들” 명의로 나왔고(Laymen’s Request with Regard to Missionary Work in Korea, 1쪽), 앞선 건의서들을 지지하는 내용이였다.

미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대한부인선교부의 선교정책

첫 번째 건의서는 중앙협의회 조직과 사업 및 선교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면서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대한부인선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거의 아무 관계없이 일해 왔다,” “대한부인선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 협동을 거부해왔다,” “...이는 대한부인선교부와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 분리를 조장했다.” 건의서는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의 관계 재정립을 주장하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에 대한 불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미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대한선교부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를 한국에 보냈고, 선교도 미여성교회의 선교목적에 따라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대한부인선교부는 선교비를 운영할 때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미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운영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감리교회 여성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선교기관으로 평신도 여성들이 스스로 선교비를 모금하고, 스스로 선교비를 운영하는 단체였다. 그러므로 남성과 목사 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양했고, 한국 남성 지도부는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지도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자 1964년에 모든 중앙협의회 예산이 총리원 회계를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는 결의를 중앙협의회에 다시 제출했다.³ 이에 대해 부인선교부 회계 유린 워스는 현재 존재하는 규정이 미국 본부에서 바뀌기 전까지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앙협의회는 미국에서 총회가 다가오고 선교부 조직에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안건을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교회와 미국 선교부와의 관계 재정립 및 선교비 운영 문제는 뜻밖에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정책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선교정책 변화(1967년)

1967년 9월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는 새로운 선교 정책을 결의했다. 그 내용은 각국 감리교회의 자주적 결의권을 인정하며, 선교지 교단과 기관에 재산과 재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 감리교회가 변화된 선교신학을 실천하고 선교지 교회와 새로운 관계,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미국 감리교회의 뉴욕 선교본부는 선교지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한 유지재단은 재산에 대한 의견은 냈지만 선교본부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했다. 그러므로 1967년의 결정은 선교지 유지재단과 재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나라 유지재단은 선교지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재산을 이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의가 1968년에 충남 온양에서 있었다.

“이양”이라는 말은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뜻으로 재산과 관련해서는 기부, 양도, 증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68년 온양선교정책 협의회는 미선교부의 선교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한 선교재산을 한국 기관과 교회에 양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양”이라고 언급하였던 바, 이 책 이에서는 온양선교정책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용례에 따르기로 한다.

은양선교정책협의회(1968년)

1968년 11월 선교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동양 담당 총무 찰스 저머니(Charles Germany)를 비롯한 세계선교부 대표 4명, 주한 선교사 대표 13명, 한국교회 대표 19명 등 모두 36명이었다. 이 협의회에서 한국교회의 행정, 재정, 정책 등 각종 선교 관련 분야에서 미감리교회가 한국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협의회에서 다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교 정책 해석과 평가, 재정 청구, 선교사 임명, 신임 선교사 요청, 선교사 평가와 재임용, 선교사 훈련 등이었다. 선교비 운용, 선교 재산 이양, 선교사 파송에 대한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1. 선교비: 미국 선교본부가 매년 한국 미감리교회 선교부에 보내던 사업비를 한국 감리교회에 직접 보낼 것이다. 단 선교사 생활비는 미감리교회 [대한]선교부가 별도로 받아 관리한다.
2. 유지재단: 미감리교회 선교부의 3개 유지재단을 하나로 통합한다. 선교부 유지재단의 주요 목적은 선교사들의 주택과 미국 선교부 재산과 관련된 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3. 연구위원회: 한국 감리교회 유지재단 대표 5명과 미감리교회 유지재단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지금 선교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 재산의 처리에 대해 연구, 보고하게 한다. 선교사들의 주택과 관련된 재산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행정: 1930년부터 운영한 중앙협의회를 합동위원회로 변경하고 종래에 선교사 비중이 컸던 것을 줄여 선교사 4인, 한국인 17인으로 구성한다.
5. 선교사 파송: 한국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주기로 한다.

은양선교정책협의회의 결의 사항은 1969년 1월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받아들여져 “동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3월 12일 양측 대표 10명으로 “세계선교부 재정이양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의회가 시작되었다. 재정은 1969년 7월부터 총리원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지만 재산 이양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양 재산의 규모는 대지만 26만평이 넘는 막대한 재산이었다. 이양 과정은 한국 측과 미국 선교부 측 의견이 달라 재정이양위원회 활동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선교부 재산을 먼저 이양한 후 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연구하자는 입장이었고, 선교부는 순서가 그 반대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선교부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산을 이양 받을 구체적 대상과 단일 재단의 구성문제를 먼저 논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선교부 일부 임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재정이양위원회 활동에 미국 측 참여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1968년 은양 선교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미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독자적인 선교 정책

1869년 미국 평신도 여성들은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부인들을 통해 인도 여성들의 비인간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돕고자 여성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결단을 하고 해외여성교회(WFMS)를 조직하게 되었다. 여성만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의 현실에 응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 지도부는 이들에게 협조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의사를 표했다. 평신도 여성들의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염려가 컸다. 그러나 여성들은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겠다”(Second mile giving)는 포어를 내걸고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돕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확신하여 분명한 선교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단 지도부와 약속한 것은, 해외여성교회(WFMS)가 교단 선교부가 하는 교회 설립 등은 하지 않고, 교회가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한 선교만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선교자금은 여성이 스스로 모금한다는 조건이었다. 대부분 직업이 없었던 당시 여성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선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적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비단옷에서 무명옷으로,” “잃어버린 일원 모으기”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했고, 미국 국내 및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상당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배우고 가르쳤다. 21세기 현재까지 미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난 155년간 지켜온 이 선교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구조개편과 1960년대 선교 상황

미감리교회 선교본부의 구조개편과 “64 합의문”

미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964년 9월 총회에서 교단의 구조개편을 통해 더 이상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까지 여선교회는 약 100년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해왔다. 독립 기관이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재정을 운영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등 모든 일을 평신도 여성이 스스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교단 선교부는 교회를 통해 모은 헌금으로 유지되었고, 교단과 교회는 제도적으로 감독, 감리사, 목사 등의 위계질서가 있었는데 여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오직 선교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조직된 전국적인 기관이었다. 이로 인해 해외선교에 있어서 여선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보다 더 활발하게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여선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수가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한 남성 선교사 수보다 더 많았다.

여선교회는 규정상 교회를 설립할 수 없었으므로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다 보니, 학교, 병원, 사회사업에 집중한 것이다. 미감리교회 감독과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선교를 돌아보며 여선교회



사업이 교회보다 더 커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들은 선교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독들과 교단 지도자들은 1964년에 여선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여선교회는 여성국(Woman's Division)이라는 새 이름으로 미감리교회 세계 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내 하나의 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여성 선교사를 해외 각국에 직접 파송하고 관리하던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1964년 당시 평신도 여성은 총회 대표로 선출되기 어려운 시기라 투표권이 거의 없었다. 총회는 거의 다 남성 그리고 목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평신도 여성으로 구성된 여선교회가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여선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닥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여성이 계속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즉 새로 들어가는 교단 선교부의 행정과 결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다. 이때 여선교회가 제안하여 총회 선교부가 동의한 합의문을 “64 합의문”(The Agreements of '64)이라고 부른다. 미여선교회는 이날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한다. 다음은 이 합의문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부록 1).

64 합의문

1964년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조직개편은 여성국과 선교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행정과 이사 구성을 바꾸었고, 여성 직원 수를 보장하기 시작했고, 선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선교비의 모금패턴과 선교 교육을 수립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국의 모든 국내, 해외 선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행정,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 개발 기능은 세계선교부 내 해외국(World Division), 국내국(National Division), 그리고 선교교육국과 개발부서에 속한다.
2. 새롭게 형성된 선교부 내 각 국의 이사 중 50%는 여성이어야 하고(감독 제외), 이 여성 이사의 대부분은 여성국 이사이다.
3. 여선교회의 해외, 국내에 있는 재산 소유권 및 서비스센터(the Service Center)의 소유권은 그대로 여성국이 갖는다.
4. 세계선교부 직원 전체의 40%는 여성이어야 하고, 상위 행정책임자 중 2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5. 여성국은 여선교회가 하던 일을 새로 맡아 이어가는 각 국과 부서에 계속 재정을 지원한다.

1965년 한국에서도 미감리교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었다. 미국에서 파송된 여성과 남성 선교사들은 하나의 조직인 세계선교부(Division of World Missions, DWM)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대한부인선교부 여성 선교사들도 세계선교부 소속이 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도 감리교선교사협의회 회의록은 대한부인선교부를 예전과 같이 WDCS라고 불렀다. 한국 명칭은 편의상 여선교부라 불렀다.)⁵⁾ 이때 한국에서 대한부인선교부 선교사로 일했던 앨리스 마가렛 빌링슬리(Alice M. Billingsley)가 미국 세계선교부의 국

동지역 총무로 취임했다. 태화사회관 관장으로 10년간 한국에서 일했던 페기 빌링스(Peggy Billings)도 후에 세계선교부 해외국 국장이 되었다.

한국에서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대한부인선교부는 1965년 6월 통합 예산을 중앙협의회에 내는 것을 시작으로 1966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1967년 미감리교회 한국선교부의 임원을 보면 회장 외 남녀 선교사가 3명씩이라 이전 구성과 비슷하다. 두 선교부가 통합되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남녀 선교사들의 상호 지분이 존중되었다. 예산도 각각 전부터 지원했던 학교, 사회관, 병원, 기타 기관에 따라 책정한 후 통합 예산안을 만들었다.⁶

미감리교회 선교부의 구조개편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성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지원을 받았던 여성사업 기관들도 세계선교부 산하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여성 중심이었던 행정과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훈련된 여성이 적거나, 여성 지도자가 적은 나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미연합감리교회(UMC)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의 출범

1968년 미국 감리교회에 변화가 있었다. 미국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는 미국 내 독일계 감리교단(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과 연합하여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가 되었다. 이에 두 교단의 여성교회도 4년에 걸쳐 연합을 준비하여 1972년 하나의 연합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Methodist Women, UMW)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여성교회의 선교 목적문도 두 교단 여성교회의 목적문을 결합하여 만들었고, 교단 세계선교부와 관계에 대한 선교 정책과 신학도 바뀌었다.

1960년대 대한부인선교부 세대교체

1960년대 대한부인선교부의 두드러진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의 세대교체 현상이었다. 해방 이전 내한하여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해방 이후 내한한 선교사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감리교선교사협의회의 실행위원으로 들어간 여성 선교사 3명, 프랜시스 풀턴(Frances S. Fulton, 허상희), 페기 빌링스(Peggy Billings), 제인 파웰(Jane M. Powell)은 모두 해방 이후 내한했고, 20, 30대 젊은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⁷ 풀턴은 1952년 내한하여 이화여대에서 오페라와 찬송가를 가르쳤다. 빌링스는 1953년 내한하여 태화사회관 관장으로 일했다. 파웰은 1958년 내한하여 서울과 원주에서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일했다.

1960년대에도 여성 선교사들의 내한이 계속되었다. 해마다 새로 몇 명씩 내한했고, 1964년에 총 38명, 1965년 총 3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1967년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이 직접 선교에서 간접 선교로 전환되면서 선교사가 줄기 시작했다.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여성국의 재정정책

1964년 교단의 조직 개편으로 미국 여성국은 선교지에 있던 재산의 이양 문제나 지금까지 여선교회가 해외 선교에서 쌓아온 수고와 열매를 다루는 결정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 여성 위주의 행정인 남성 위주의 운영으로 바뀌면서 이미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있었다. 그러자 여성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여성이 여성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국은 재산을 한국에 이양할 때 재단법인 형태의 합법적인 기관(Legal Holding Body)을 두고 재산을 여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둘 것을 요구했다. 이 취지를 담은 여성국의 재정정책(Financial Policy of Women's Division)이 나왔다. 이 정책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선교에 대해 선교지 재산 사용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했다(부록 2).⁸

여성국의 재정 정책

여성국에 속한 담당 부서는 해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 합법적인 담당 기관을 두어 재산의 운영과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중략 —

미래에 그 재산이 더 이상 여성들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거나 현지 여성들이 이양된 재산 사용에 관한 행정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재산 사용권은 미래를 위해 여성국과 세계선교부 기관목회부가 돌려받는다. 이때 해외 선교지 교회나 관련 기관의 제안을 참작할 수 있다.

3. 대한부인선교부와 유지재단의 활동



미감리교회가 설립한 기관과 교회는 주로 한국인 지도자들이 운영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교사, 의사, 교수, 사역자로 파송 받아 일하는 한편, 대한부인선교부가 설립한 기관에서 이사나 자문위원으로 섬겼다. 1962년 초 한국정부는 모든 사립학교에 학교법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의 3분의 2가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⁹ 감리교선교사협의회는 이런 요구를 고려하면서 남성, 여성 선교사들을 수 십 개의 학교, 병원, 사회관, 연합기관에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했다. 파송된 선교사들은 기관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선교사연합회와 한국중앙협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했다.

한국 감리교회는 점점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갔지만 선교비는 여전히 상당 부분을 미국 감리교회에 의존했다. 1966년 “한국중앙협의회 사업비 예산” 중 대한부인선교부가 감리교 여성 사역을 위해 제공한 보조금은 175,891달러이다.¹⁰ 당시 한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교단에 보내는 분담금 예산이 30,041달러였음을 고려하면 대한부인선교부가 이보다 약 6배나 많은 선교비를 제공한 것이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960년대에 선교부지, 사택, 관리인 사택 등을 관리하는 재단의 본래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고 전쟁 이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생긴 재산 무단점유나 불법등기 문제를 처리하였고 때로는 소송

을 통해 재산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시기 대한부인선교부는 독립한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즉 대한부인선교부는 자신들이 설립하였지만 이제는 독립 재단법인에 속하게 된 기관들이 신축과 수리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에서는 재산을 교환하거나 양도 하는 등의 이전도 하였는데, 재산을 받는 상대는 재단법인이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다른 기관에 주었는데 이때도 경상비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었다. 미감리교회 재단의 재산을 전면적으로 한국의 교회와 기관에 양도한 일은 1960년대 후반 미감리교회의 선교정책 변화로 시작되지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에도 계속 한국 교회와 기관에 재산을 양도하고 있었다. 1960년대 유지재단의 활동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본다.



부산사회관 신축(1966년) ©부산기독교종합복지관

재산 회복과 보호

1963년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소유인 원주 유치원 건물을 헌병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비워달라고 촉구했다.¹² 1964년 9월 유지재단은 부산사회관의 캠프장을 진입로를 포함해 재조사하여 부지의 선을 제대로 긋고 재산을 잘 돌보기로 결의했다.¹³ 1964년 11월 춘천에 있는 재산에 무단점유자들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약 4,500원을 들여 담을 치기로 결의했다.¹⁴ 입석 캠프장 근처의 산지 21,810평이 전에 대한부인선교부 선교사 중 하나가 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등기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선교지와 뉴욕 선교본부와의 모든 연락과 서류를 조사한 후 확인한 것이었다.¹⁴

재산 매각과 매입

대한부인선교부는 재산을 매각할 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에서 독립한 재단 중 재력이 있는 재단에게는 재산을 무료로 양도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다른 재단법인에 증여할 때는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지재단은 옛 동대문여학교 부지를 이화여대에 매각했다. 재단법인 이화학당(1943년 설립)은 1945년 동대문부인병원을 매입한 바 있는데, 1950년대 말에 부속 동대문부인병원의 확장을 위해 동대문여학교 부지가 필요했다.¹⁵ 이때 여성국은 이 재산의 매각 거래가 여성국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호적으로”(amicably)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승인했다.¹⁶ 1964년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인천기독병원에 새 건물을 짓고 등기를 마쳤다.¹⁷ 1964년 12월 강릉에 새 사택을 구입하고 등기를 마쳤다.¹⁸

재산 교환

1955년에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공주의 옛 영명여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대한선교부가 운영하는 영명학교에 주기로 결정했다.¹⁹ 대신 조선선교부 유지재단 소속의 사택과 건물(재키 래틀리프 선교사가 거주하던 사택과 영아원)을 받았다. 이 결과로 두 유지재단의 재산 중 대한부인선교부의 사택과 영아원만 남기고 6,573평을 영명학교에 양도하기로 했다.²⁰ 이를 위해 중앙협의회, 뉴욕 여성국과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거친 후 영명학교가 학교법인을 만들기까지 수년이 걸렸다.²¹

재산의 무상 양도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여러 학교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as a gift) 양도했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967년 미감리교회 선교부의 바뀐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재산을 선교사 사택을 제외하고 한국 교회와 기관에 이양하기로 전격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이미 1950년대부터 재산 양도를 아래와 같이 조금씩 실행하고 있었다.

1958년 서울 충정로 옛 협성여자신학교의 건물과 땅을 재단법인 감리교신학원(1957년 재단 설립,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양도했다(1958년).²² 1963년 5월 남대문의 상동 학교 건물, 공덕동 392번지(55평), 인천 창영동 43-3번지(563-8평), 입석 캠프장 13,321평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양도할 것을 결의했다.²³ 1964년 9월 유지재단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대한부인선교부 재산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이전되었고 등기를 마쳤다고 나온다.²⁴

- ① 서울 남창동 1-1번지(상동 학교 건물, 현 상동교회) 건물 1층(23.4평)과 2층(23.4평)
- ② 서울 공덕동 392번지(55평)
- ③ 인천 창영동 43-6번지(442.4평)와 43-8번지(7.1평)
- ④ 강화 신문리(보고암학교 자리) 총 602평(424번지 265평, 425번지 92평, 426번지 63평, 427번지 34평, 433번지 118평, 434번지 30평)

1964년 이천의 양정교회와 양정여학교가 대한부인선교부와 땅을 교환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총 374평(252-2번지 141평, 259-2번지 135평, 259-3번지 98평)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1926년 설립)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²⁵ 그리고 총 401평(252-6번지 80평, 253-2번지 59평, 254-2번지 262평)을 양정여학교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1968년 수원 매향여학교는 문교부 규정에 따라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인접 땅을 사고자 하여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이 용도에 써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²⁶ 이에 유지재단은 매향동 27-29번지의 주택 4채(48.1평)와 토지 152평을 매각해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춘천 조양동 7개 번지에 걸쳐 있는 토지 총 172평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양도했다.



4. 유지재단의 재산 이양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950년대부터 한국의 기관에 재산을 이양하고 있었지만 1968년에 온양선교정책협의회에서 재산이양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이후 재산 이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온양협의회에서 최초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실질적으로 이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재산 이양 절차에 대해 한국 측과 미국 선교부 측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재정이양위원회는 점차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 이사회는 온양에서의 협의에 기초해 재산을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해당 교육기관, 사회사업재단에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²⁷

첫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이양할 것을 제안한 재산은 명덕학사 759평, 대전 호의의 집 36.7평, 원주청년관 2,309평, 원주지방 기숙사 317평, 춘천지방 기숙사 317평, 정선교회 부지 118평, 이천지방 기숙사 775평, 서울 북아현동 636평(942-946번지, 950번지), 춘천교회(전동) 1,173평과 기숙사 부지와 건물이었다.

둘째, 교육기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한 재산은 매향학교 1,850평, 호수돈여학교 8,612평, 영화여학교 2,091평, 배화여고 7평, 공주영명학교 5,992평, 인천기독교간호학교 713평이었다.

셋째, 사회사업재단에 이양할 것을 제안한 재산은 서울 종로 태화사회관 1,349평, 남양주 입석캠프장 75,718평, 서울 마포 유린관 300평, 인천사회관 1,000평, 대전사회관 540평, 대전지방 기숙사 108.1평, 공주사회관 946평, 부산사회관 220평, 마포 와이엇영아원 435평이었다.

재산 이양은 이 제안에 따라 하나씩 이양되었다. 가장 먼저 이양된 재산은 북아현동 부지로 1970년 7월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이양 완료되었다. 이어서 1971년에 인천기독교병원 부지와 건물이 학교법인 새빛학원으로 이양되었다.

온양협의회 내용에 따른 재산의 매각, 매입, 기부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970년대 중반부터는 온양협의회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관, 병원, 학교재산 등의 이양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택의 경우는 한 지역의 사택을 매각해 다른 지역에서 사택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1974년 서울 마포의 광성남학교는 운동장 부지가 필요하여 와이엇영아원(Wyatt Baby Fold)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 했다. 이에 유지재단은 광성학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향후 생길 사회관 유지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주기로 했다.²⁸

유지재단은 원주에 있는 여성국 재산 700평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뉴욕에 보냈다. 그 중 650평을 8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고, 매각대금은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사택 구입에 사용하기로 했다.²⁹

1974년 인천기독교병원은 병원 옆에 간호학교 교실을 짓고 싶어 하며 그 땅이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소유라서 허락을 구했다. 이에 유지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윤창덕 감독의 서면허락을 구한 후에 건축을 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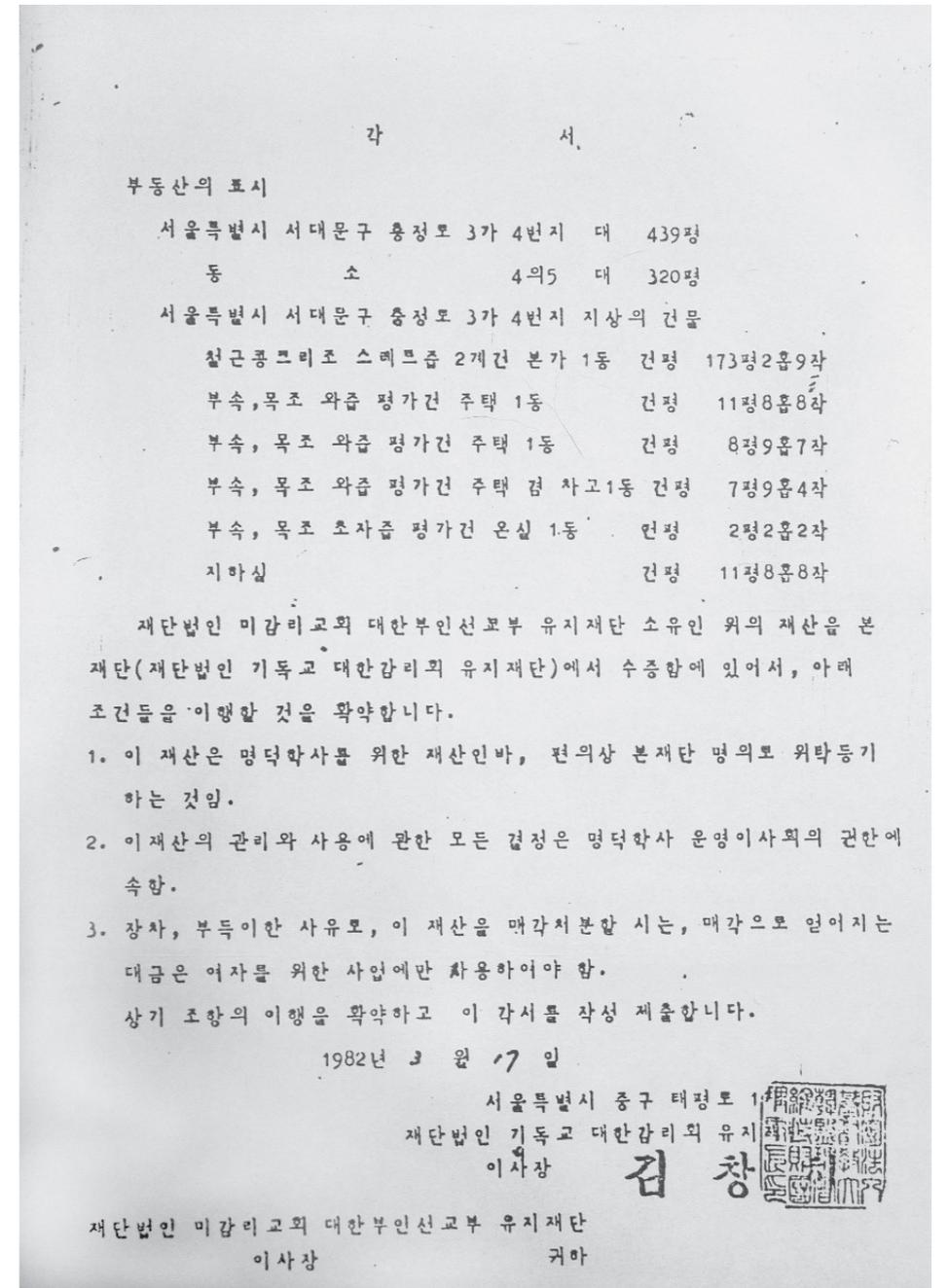
하기로 결의했다.³⁰

1974년 영화여학교가 정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땅이 더 필요하여 유지재단 이사회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춘천 땅(예전 여학교 자리) 1,117평을 영화여학교 유지재단에 주어 학교법인이 이 토지를 매각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쓰게 하도록 결의했다.³¹ 이 경우는 옛 학교 재산을 재단법인이 있는 현재 학교 재산으로 옮겨서 더한 경우였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재산 이양은 1982년 사회관 재산의 이양으로 마무리되었다. 감리교 6개 사회관은 단일 유지재단 설립을 요청했고, 재정이양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³²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6개 사회관은 1977년 문화공보부에 재단법인을 신청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77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 이사장과 감독들 명의로 반대 진정서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사회복지재단으로 재산이양을 신청하는 서류를 1979년에 제출했지만 문화공보부는 서류를 반려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먼저 합의하라고 했다.³³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감리회 유지재단이 문화공보부에 복지재단의 설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³⁴ 마침내 1980년 5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정관은 여성 이사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태화를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명덕학사의 경우, 여성 사회사업 기관이지만 198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의상 위탁등기”를 했다. 당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사장에게 “각서”를 써주었는데, “장차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재산을 매각처분할 시는 매각으

로 얻어지는 대금은 여자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1982년 3월 17일).



6개 사회관에 기본재산 제공

1980년 말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와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은 1억 백만원을 6개 사회관에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아래 도표).³⁵ 1974년 와이엇영아원 매각 대금을 사회관의 기본재산으로 쓰기로 결의한 바를 실행한 것이다. 총액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각 사회관에 지급하도록 했다.

기관	금액	기관	금액
유린기독교사회복지관	12,025,000원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12,025,000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16,835,000원	부산기독교사회복지관	16,835,000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1,645,000원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1,645,000원

이런 방식으로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재산을 학교, 병원, 교회, 사회관의 법인에 이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증여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일부 부지는 감리교선교사협의회 회의록과 최종 이양 기록 사이에 근소한 평수 차이가 있다.

(재)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증여재산 목록³⁶

번호	기관명	재산 내용		문화공보부 승인일자	수증기관
		토지	건물		
1	인천 영화학교	2,591.2평	636.76평	1975년 2월 26일	(학)영화학원
2	수원 매향학교	1,660.2평	616.07평	1975년 3월 21일	(학)매향학원
3	인천기독병원	654.4평	1,664.55평	1971년 11월 16일	(학)새빛학원

번호	기관명	재산 내용		문화공보부 승인일자	수증기관
		토지	건물		
4	대전 호수돈여중고	8,923.4평	3,012.34평	1975년 5월 31일	(학)호수돈학원
5	공주 영명학교	3,759.1평	-	1975년 4월 2일	(학)영명학원
6	서울 광성학교	435평	100.39평	1975년 2월 26일	(학)광성학원
7	인천 창녕교회	65.4평	-	1975년 4월 18일	(재)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8	경기 이천교회	775평	-	"	(재)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9	강원 정선교회	118평	-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0	양주 수동교회	21,840평	-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1	양주 태화기독교 사회관 캠프장	53,899평	179평	1980년 5월 20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지재단
12	마포 유린사회관	288.6평	201.81평	"	"
13	인천기독교사회관	1,156.9평	410.33평	"	"
14	공주기독교사회관	945.9평	207.2평	"	"
15	대전기독교사회관	546.6평	538.4평	"	"
16	부산기독교사회관	220.0평	130.0평	"	"
17	서울 명덕학사	759.0평	약 216평	1982년 6월 7일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8	이천 양정여고	775.0평	-	1974년 10월 4일	(학)양정학원
19	원주기독교청년관	2,293.0평	77.9평	1978년 10월 4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택 매각을 통한 국내선교 지원

미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살고 있던 사택은 온양선교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라 미감리교회 선교부 유지재단들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그 후 선교사들은 사택을 매각해서 생긴 대금을 한국 기관의 법인에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7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는 선교활동의 자본금 형성을 위해 도움을 청했다. 이에 유지재단은 세계선교부 여성국으로 하여금 이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여 사택 두 군데(태화 및 그레이 하우스)를 매각한 데서 나온 초과 기금을 여성교회전국연합회에 줄 것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³⁷

1980년대 미감리교회 유지재단이 사택 매각 대금으로 한국 선교를 지원한 일은 합의서로 남았다. 1987년 11월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유지재단이 서울 마포 상수동 부지의 매각금액 30억원을 한국감리교회 백주년기념관(광화문 감리교본부) 건립을 위해 증여하면서 건물 일부를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가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한국감리교회와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합의서

1.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사무실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40평 이상의 사무실을 사용토록 한다.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THE WORLD DIVISION

Grateful to God for more than a century of cooperative mission work,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The United Methodist Board of Global Ministries rejoice in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a Korean Methodist Church Centennial Headquarters Building.

The World Division of The United Methodist Board of Global Ministries has approved the donation of land at Mapo, Seoul and the sales proceeds therefrom to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oward construction of the Centennial Headquarters Building. Donation is contingent upon the following conditions involving the provision of space in the new facility;

- 1). that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have at least 40 pyung to use for their offices and other related programs;
- 2). that the Methodist Youth Fellowship have at least 30 pyung to use for their offices and related programs;
- 3). and, of course, that the World division continue to have at least 30 pyung for its office space and related activities.

It is agreed that the floor space referred to indicates usable and community space for the organizations named.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and the World Division w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share of the utilities charges as fixed for the building, but the Korean Methodist Church would provide the Methodist Youth Fellowship space free of charge.

Should space not be available for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related organizations at the Centennial Headquarters Building on its completion, it is agreed that the space indicated above would be provided to the three organizations at wherever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ffices are located.

This agreement is in perpetuity or until any of the named organizations by official action indicates that space is no longer needed or desired.

Ki Chua Chang
President, Council of Bishops
The Korean Methodist Church

Patricia J. Patterson
Northeast Asia Secretary,
World Division, UM Board of
Global Ministries 11/87

Yeung Sang Kim
Deputy Secretary, KMC
Legal Holding Body

2.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사무실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30평 이상을 사용토록 한다.
3.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사무실 및 사업을 위하여 30평 이상의 사무실을 사용토록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사택 매각 기금으로 한국 기관을 계속 지원했다. 2001년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이 1억 4천여만 원을,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1억 8천여만 원을 학교법인 배화학원에 기본재산으로 증여했다.

2002년 1월 3일 배화학보 기사

지난 2001년 11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대표이사: 드와잇 제이 스트론)이 147,740,000원을, 그리고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대표이사: 드와잇 제이 스트론)이 182,720,000원을 각각 학교법인 배화학원(이사장 강치안)에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서 11월 30일자로 증여금을 출연했으며 동 기금은 앞으로 학교법인 배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 유지재단의 존속

온양협의회 합의에 따라 선교사들은 세 개의 유지재단(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미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3개의 법인을 하나로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미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재단의 이름을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으로 먼저 바꾸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법인을 해산한 후 두 법인의 재산을 위 세계선교부 법인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³⁸ 그 결과 여전히 세 개의 법인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게 되었고,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해외여성교회의 명맥을 이어 해외 여성선교를 시작하는 근간이 되었다.

PART

5

2007
~

제 5장

스크랜턴 대부인에서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로 (2007년-현재)

1. 유지재단의 해외선교 시작과 그 배경
2.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과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창립
3.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선교활동

제 5장 스크랜턴 대부인에서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로 (2007년-현재)

1. 유지재단의 해외선교 시작과 그 배경



20세기 후반 미국과 한국 교회의 변화

20세기 후반 미국과 한국 감리교회는 신학과 선교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미국에서는 각종 해방 신학과 운동, 탈구조주의 등으로 인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는 아시아인 이민이 확대되었고 한국 이민자들의 교회가 성장했다. 미국 감리교회는 이러한 신학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선교란 이제 서양 또는 부유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교정책을 정하고 대상 국가에 선교사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와 동반자 정신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변화는 나라와 교회의 성장에서 비롯되었다. 1973년 유엔이 정한 빈곤선(일인당 하루 소득 1달러)을 넘어 연소득 400달러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연평균 10.3%, 1980년대 8.6%, 1990년대 6.7%의 성장률로 급성장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미국의 선교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갠다”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에 헌신했다. 2000년대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보다 해외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다.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선교, 아프리카대학교(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원 등을 위해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함께 선교하는 한국 교회들도 생겼다. 이에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는 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 한국에 있는 유지재단들의 정관을 바꾸어 해외선교를 하도록 했다. 한국에 만 국한했던 교육, 의료, 전도, 사회사업을 해외에서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한 것이다.

미여선교회 100주년기념 워킹 컨퍼런스와 선교 방향의 전환

세계선교부 해외국은 미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주관하던 여성 사업을 “64 합의문” 이후 주관한다고 했지만 여성 선교사들이 할 때만큼 활발하게 이어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이 심한 선교지에서는 여성 선교에 더욱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의 주체적 선교를 위해 여성국이 통과시킨 재정 정책이 있었지만, 선교지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다. 미여선교회가 활동했던 선교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하였으나 30여 년간 여성국은 본국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여성국은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감

리고 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했는데 이를 워킹 컨퍼런스(Working Conference)라 했다. 워킹 컨퍼런스는 1993년부터 4년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중남미, 아시아(인도, 한국)에서 6회 진행되었다.

여성국이 워킹 컨퍼런스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에 여성을 위한 지도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선교부 내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GBGM) 산하에 있던 국제선교부(International Ministries Committee)와 국내선교부(National Ministries Committee)를 여성국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약 35년 만에 여성국 이사회와 직원들이 해외선교와 국내선교를 다시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계선교부가 해외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국은 세계선교부와 긴밀하게 일하며 함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여성들의 지도력개발훈련은 자국 출신의 지역선교사(Regional Missionary)가 주관하도록 했는데 그들의 파송은 일반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세계선교부가 담당했다. 이로써 여성국은 해외 여성들을 위한 지도력개발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 프로그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미여성국과 한국 여성기관의 관계 재개

여성국은 1993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와의 관계를 재개했다. 여성교회전국연합회는 워킹컨퍼런스에서 여성국과 프로그램 파트너가 된 이래 몇 가지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에서 아시아 여성지도력개발훈련을 함께 열었고(2005, 2010), 선교비를 출연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미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는 한국 여성

교회전국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함께 여성지도력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의 관계는 1993년 여성국 국장(Joyce Sohl)과 이사장(Carolyn Johnson)이 이화여대를 방문하며 재개되었다. 여성국은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와 1995년부터 10년간 아시아 감리교 여성지도자훈련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개원을 축하하며 추후 5년간 매해 아시아 학생 5명의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도 제공했다. 미국에 있는 북미주 이화대학재단 사무실을 뉴욕 여성국 사무실 안에 무료로 사용하게 하며 자매관계를 유지했고, 여성국 부총무가 이화대학재단 이사로도 봉사하고, 연합감리교회 여성 감독들이 북미주 이화대학재단 이사장을 여러 번 맡으며 많은 봉사를 했다.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독자적 활동 재개

한국에 있는 미감리교회 유지재단은 세 개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각 재단의 이사진을 동일한 이사들로 구성하여 마치 하나의 이사회인 것처럼 운영해왔다. 여성국은 이 재단들로 하여금 해외선교를 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성국은 국제부 직원 김혜선 목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세계선교부도 몇 년 뒤에 세계선교부 직원 폴 공(Paul Kong) 목사를 한국에 파견해 한국에 있는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을 통해 해외선교를 개시했다.

이 유지재단들은 각각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선교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활동하지만, 아시아라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므로 함께 하는 사업도 있고 미국 세계선교부 및 여성국의 선교와

연계된 사업도 있다. 2012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여성국은 1964년 총회에서의 구조개편 이후 48년 만에 세계선교부에서 독립하면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무실(National Office, United Methodist Women)로 운영하게 되었다. 세계선교부와는 “구조 분리, 선교 연합”이라는 공동 목표를 결의했는데, 이 선교 방향이 한국에 있는 미감리교회 유지재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미여성국이 한국과 아시아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된 것은 이화여자고등학교(Ewha Girls' High School)의 특별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6년 학교법인 이화학원은 “메리스크랜턴 여성센터”(Mary Scranton Center for Women)를 건립하기 위해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소유인 서울 정동 선교사 사택을 매입하겠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여성국 재산관리위원회는 이 제안을 역사적인 재결합으로 보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여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2006년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여성국의 쟈 러브(Jan Love) 국장이 내한하여 7월 17일자 동의서에 서명했다. 전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볼 수 있다.

제4조 조건

학교법인 이화학원은 2006년 7월 17일 회의에서 제시한 건축설계서와 같이 “메리스크랜턴 여성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이화재단은 여성국이 프로그램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여성국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현재 존재하는 이화여고의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동의한다.

Agreement

메리스크랜턴여성센터 건립을 위한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여성국과 학교법인 이화학원 간 매매 합의서

Between The Women's Division of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and The Ewha School Foundation for sale of property at 17-4 Chung-Dong, Jung-Gu, Seoul, Korea.

1. Sale price: 14,000,000,000 Korean Won
2. Payment: one time cash payment
3. Final sale date: October 31, 2006
4. Conditions: Ewha School Foundation intends to build the Mary Scranton Center for Women as shown in the architectural plans distributed at the meeting on July 17, 2006. Ewha also agrees to allow the Women's Division's use of the facility with no charge(free) for purposes of Women's Division programs. Ewha School Foundation also agrees that the Women's Division be allowed to use the facilities of its now existing buildings for Women's Division programs.
5. Jan Love will take recommendation to the August 2006 meeting of The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for its approval. This action will constitute an instruction to the GBGM Legal Holding Body to act on behalf of the Women's Division to fulfill this agreement.
6. Rev. Cho will take this recommendation to the Board of Trustees of Ewha School Foundation for its approval.

Signed July 17, 2006, Chung Dong First Methodist Church, Seoul:
 Rev. Dr. Cho Young Joon, Ewha School Foundation
 Dr. Janice Love, Women's Division Chief Executive

젠 러브 국장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성화와 선교 목적에 대해 2006년 12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회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편지로 전했다(부록 3).

신경하 감독님께 (최은영 회장님께),

미여성국이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120년 전 미여성교회가 이화학당을 시작한 후 우리는 이화여고와 이화대학교의 발전을 꾸준히 도왔고,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성장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자매이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화여고와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가 더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이화여고가 “메리스크랜턴 여성센터” 건립을 위해 여성국으로부터 정동 부지를 구입하게 된 일입니다. 이화여고는 또한 여성국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업은 우리의 120년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국은 정동 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을 가지고 한국 감리교 여성, 에큐메니컬 여성 그리고 다른 아시아 파트너들과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선교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국은 글로벌여성센터(현재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여성국 직원 김혜선 목사와 유연희 목사가 한국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구자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여성국은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독님(회장님)의 축복과 지원 아래 우리의 공동 목표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성국과 이화학원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Agreement”(동의서)로 작성했다. 그 이후 양 기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동의서를 작성한 이화여고 조영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여성국 젠 러브 국장은 여성국을 떠나 대학 학장으로 가게 되었다. 양 기관의 이사진도 모두 바뀌었다. 이화여고 새 이사진은 정동 땅 매입 후 학교 사정상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 결국 이화여고의 메리스크랜턴여성센터 건립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계획대로 프로그램 행정을 위한 글로벌여성센터(현재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하 스크랜턴센터)를 2007년에 출범했고 새로운 이사진과 직원들로 새 시대를 열었다.

2.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과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창립



새로운 이사회 구성

미감리교회 여성국 재산관리위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사진을 모두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첫 이사진은 그동안 미여성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유지재단의 법적, 행정적 준비를 도와주며 개발도상국 해외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인사로 구성되었다. 이사들은 여성국의 기본정책과 유지재단 정책에 따라 유지재단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해 충돌이 없는 인사여야 했다. 이사장은 미국에서부터 법적 절차를 도와준 오종남 박사, 이사는 정동 땅 매각의 법적 자문을 해준 박정해 변호사, 15년간 미여성교회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함께 한 서광선 박사, 여성국에서 파송된 직원 김혜선 목사, 여성국 및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 유연희 목사였다.

첫 이사회(2007년 2월 22일)의 주요 결정사항

1. 유지재단은 정관에 따라 “한국과 해외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자선, 의료 및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며 또는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

로 한다”에 충실하기로 했다(정관 제3조 목적)

2. 한국에 여성교육의 씨앗을 뿌린 메리 스크랜턴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삼고 센터의 명칭을 “글로벌여성센터”에서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로 변경하기로 하여 미여성국의 동의를 얻었다.

3. 스크랜턴센터의 목적문을 정했다.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목적문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국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과 세계의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 지도력을 양성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이사진(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오종남 이사장, 김혜선, 서광선, 박정해, 유연희 이사)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창립예배

스크랜턴센터는 2007년 7월 26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121년 전에 자리 잡은 정동 이화학당에서 새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창립예배를 통해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스크랜턴센터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서 여성지도력 개발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을 알렸다. 이를 위하여 미여선교회, 여성국, 아시아와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 에큐메니칼 여성연합회와 연대하여 일할 것이라고 했다. 창립예배에는 미국에서 여성국 직원들, 미주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교역자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과 임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축하해주었다. 이로써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21세기 세계 선교를 향한 방향과 비전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북미주이화여고동창회 스크랜턴 장학금

이화여고와의 파트너십이 진척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화여고 졸업생들은 “스크랜턴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미주 이화여고 동창들은 미여선교회(UMW)에 속한 한인여선교회를 통해 이화학당이 바로 미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북미주동창회는 미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스크랜턴 대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장학금을 만들어 표현하기로 했고, 옛 선교사들처럼 현재 어려운 나라에 밑알을 뿌리고자 했다. 북미주이화여고동창회는 2007년 스크랜턴장학기금위원회를 만들어 2년간 모금운동을 하여 275,000 달러를 모았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아시아 개발도상국 장학사업을 시작한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에 보내기로 결정했다(2010년 전달).



창립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김혜선 사무총장



창립예배에서 축사하는 최은영 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예배에서 축가를 부르는 이화여고 합창단



창립예배 축하로 미국에서 온 내빈: 왼쪽부터 김경자 UMW 회장, 이경신(본 유지재단 이사 역임), 김성실 UMW 뉴욕연회 회장, (가운데 김혜선 사무총장), 김명래 KUMW 총무, 여성국 직원 Andria Hatcher, Andris Salter, (오종남 이사장)

**미여성교회의 일본 웨슬리재단 및 웨슬리센터 설립과
한국 유지재단과의 관계**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과 똑같은 상황이 일본에 있는 미감리교회 선교부 유지재단에서 일어났다. 일본 유지재단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감리교회 선교부는 이 사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웨슬리재단을 설립했다. 일본에서는 모든 개신교 선교부가 떠나면서 재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웨슬리재단은 여선교사들의 사택을 이용하여 웨슬리센터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재원을 만들었다. 또한 같은 건물 안에 NGO 사무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비영리사업을 하는 데 성공했다. 미여성국은 원래 한국에서도 정동에 있는 선교사 사택을 가지고 일본과 똑같이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꿈이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 웨슬리재단 직원과
프로그램 참가자
©웨슬리재단



일본에서는 웨슬리재단의 프로그램 사무실인 웨슬리센터가 2012년에 설립되었는데, 미여성국은 한국에 파견된 김혜선 목사가 일본도 맡도록 했다. 그 결과 스크랜턴센터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던 일부 아시아 프로그램을 일본 웨슬리센터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몇 년 후 UMC 소속 일본계 미국인 히카리 장(Hikari Chang) 목사가 웨슬리재단과 웨슬리센터에 지역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웨슬리센터는 스크랜턴센터와 자매관계로 아시아여성 프로그램, 평화세미나 등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세계선교부와의 관계

세계선교부는 유지재단에 김혜선 목사를 파견하고 몇 년 뒤에 세계선교부 직원 폴 공(Paul Kong) 목사를 한국에 파견해 한국에 있는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을 통해 해외선교를 개시했다. 이 유지재단들은 각각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선교 방향과 사업을 정하고 활동하지만, 아시아라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므로 서로 협력하여 하는 사업도 있고 미국 세계선교부 및 여성국의 선교와 연계된 사업도 하고 있다. 여성국은 2012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48년 만에 세계선교부에서 독립하면서 여선교회 전국사무실(National Office, United Methodist Women)로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선교부와는 “구조의 분리, 선교의 연합”이라는 공동 목표를 결의했는데, 이 선교 방향이 한국에 있는 미감리교회 유지재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3.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선교활동



미여성국은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했듯이 스크랜턴센터가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선교활동을 하기를 바랐다. 새롭게 부임한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사들도 개발도상국 여성들을 돕는 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확신했다. 1885년부터 한 세기동안 미국의 선교비를 받아 성장한 한국은 이제 빛을 갠 심정으로 선교목적과 비전, 그리고 프로그램 방향을 정립했다. 아시아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지도력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학사업, 여성지도력 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스크랜턴 장학금

이사회는 “스크랜턴 장학금” 사업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정책을 수립했고,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1. 장학금 수혜자는 여학생에 한하되, 국민소득 일인당 미화 5,000 달러 이하 나라의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이며, 성적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 100%를 지급한다.

2. 장학금은 학생 개인이 스크랜턴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가 지정한 학교가 총장 추천으로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장학금 수혜 학교는 아시아기독교대학연합회(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UB)가 추천한 학교(지도력과 행정력이 UB의 검증 절차를 통과한 학교)여야 한다.
4. 기독교 대학이 없어서 UB와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국가(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여학생은 교회나 사회에서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교사들이 추천한다.
5. 한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석, 박사 과정 유학생에게 학비 100%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학대학 총장이 추천한다. 생활비는 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학부생 장학금에 이어 2015년부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석, 박사 과정 장학금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학비 전액과 기숙사 생활비가 포함된다. 이들은 총장 추천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책임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교수장학금을 지원했다.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박사학위가 없는 여성 교수의 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센터와 UB가 절반씩 부담하되 아시아 나라에서 유학할 때만 지원하고 학비, 생활비, 여비 전액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학생이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신설했다. 첫 해에는 이화대학교와 협업했고, 석, 박사 입학과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전액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스크랜턴 장학금의 수혜자는 200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6개국, 61개 학교의 2,916명이다.



스크랜턴 장학생 수혜자

기간

2008-2024

국가

16개국

학교

61개 학교

인원

2,9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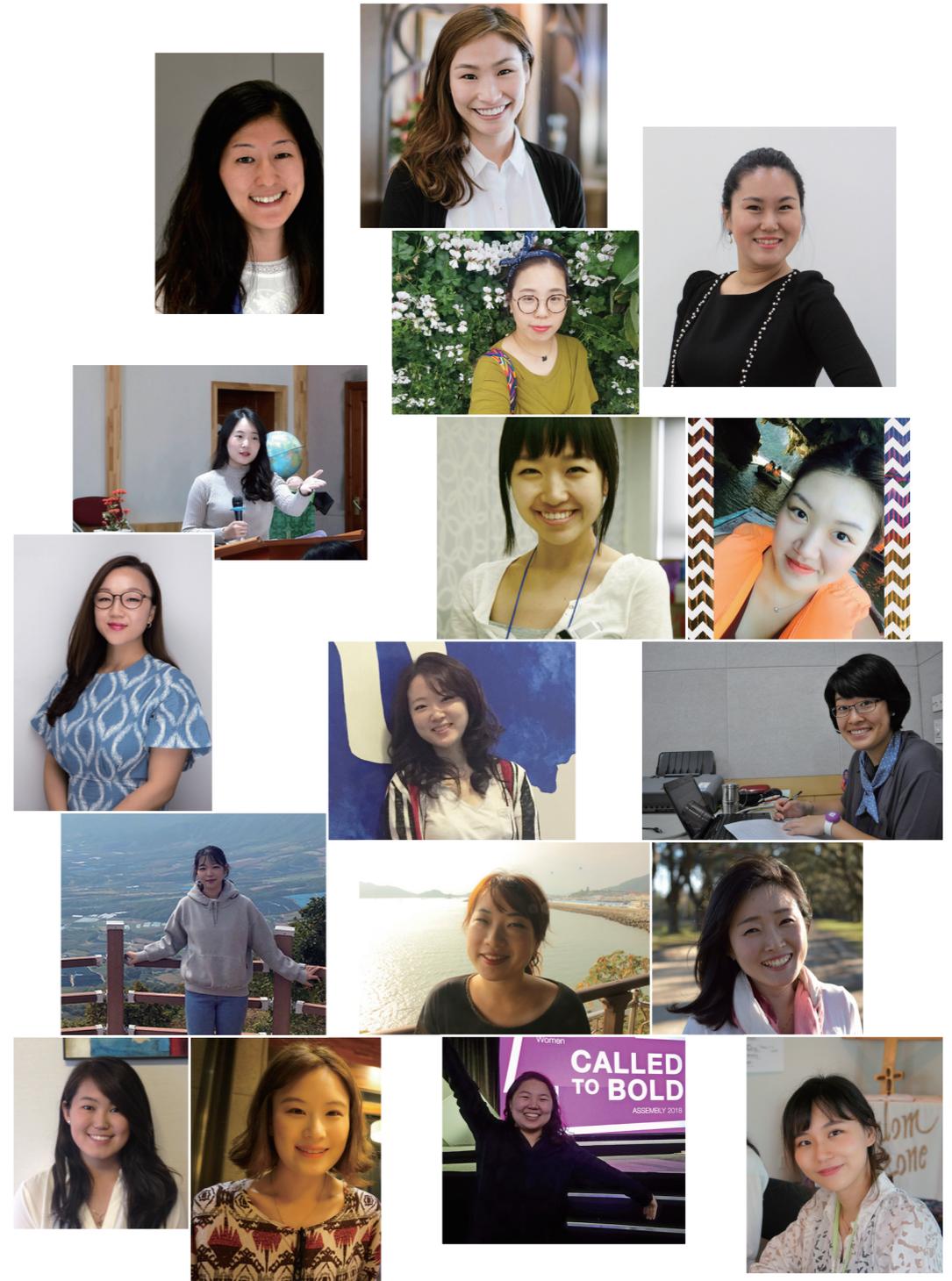
글쓰기 공모전(Scranton Essay Contest, 2021-2024)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장학생리더십세미나(SSLP)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글쓰기 공모전을 시작했다. 공모전 상금이 스크랜턴 장학금이다 보니 해마다 참여자가 늘어 2024년에는 300명 이상이 공모했다. “뉴노멀 시대 여성리더십,” 환경 주제인 “Save Earth, Save Us,” “글로벌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나의 내면의 힘” 등이 공모전 주제였다.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

인턴으로 선발된 젊은 여성들은 스크랜턴센터 사무실에서 직원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무행정의 실질적인 업무능력도 배우지만 해외 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팀으로 일하는 법,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및 평가까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인턴십은 1년을 해야 했고, 무엇을 배우기 위한 인턴십인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했기에 스크랜턴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었다. 2009~2019년까지 모두 22명이 인턴 과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인턴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며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인 인턴은 다수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으로 인턴십을 하며 영어를 배우고, 국제회의 등을 통한 글로벌 선교활동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인턴이 센터에서의 인턴십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고, 리더십과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여성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여성 지도자 양성, 지도력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프로그램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개최했고, 리더십프로그램은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었다.

가.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새로 출범한 스크랜턴센터가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미여성교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고, 센터의 이사과 직원들도 이미 국제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해온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 UMW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아시아 크리스천여성 리더십개발과 대화

(Asian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 Dialogue, AWLTD)

여성국이 지원하여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에서 10년간(1995-2005) 아시아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김혜선 목사와 유연희 박사는 스크랜턴센터에 파견되자 2007년부터 이를 스크랜턴센터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2015년까지 5회 5개국에서 열렸고 평균 11개국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에는 스크랜턴센터 이사진들이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시아 전도부인 프로그램(Bible Women Program)

미여성국은 선교지 여성을 지도자로 양성한 “전도부인” 사역을 되살려 21세기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발해 교재를 만들었다. 아시아에 파송된 유연희 목사가 이미 이 교재와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

라에서 여성훈련을 해왔는데, 스크랜턴센터 설립 후 미주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와 함께 지속하게 되었다.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에서 여성 지도자 훈련을 실시했다.

미여성교회 유엔여성지위위원회

(UMW U. 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UN CSW)

UMW는 해마다 UN CSW가 열릴 때 전 세계와 미국에서 감리교 여성대표 약 20명을 뉴욕으로 초대하여 세계 여성들이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배우고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스크랜턴센터는 한국, 미국,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파키스탄 참가자들을 지원했고, 특히 스크랜턴 장학생들 중에서 선발하여 보냈다(2011, 2015-2017).



Asian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 Dialogue (2010 Korea)



Asian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 Dialogue (2015 Myanmar)



Asian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 Dialogue (2014 Malaysia)



KUMW와 함께 한 Bible Women Program (2010 Malaysia)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대회(UMW Assembly)

4년마다 열리는 UMW 전국대회에 한국 젊은 여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 여성모임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2010, 2014, 2018, 2022년, 10-15명). 전국대회 후 뉴욕, 워싱턴, 오하이오 등 주요 UMW 사무실도 방문하여 국내외 활동과 역사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했다.

고등교육 이니셔티브(Higher Education Initiative, HEI)

미여성국은 100여 년 전 여성 선교사들이 설립한 세계 18개 대학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기 위해 고등교육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2000년도에 만들었다. 스크랜턴센터가 2011년에 모임을 주관했고 인도 이사벨라토번대학교에서 열렸다. 이사벨라 토번은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의 초대 선교사였고,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WFMS)가 조직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스크랜턴센터 이사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이화대학교, 배화대학교 관계자와 젊은 여성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후정의 세미나(Climate Justice Seminar in Japan)

스크랜턴센터와 일본 웨슬리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로 미국의 UMW 직원들이 진행했다. 스크랜턴센터는 인턴 등 4명의 참석을 지원했다.



Higher Education Initiative (2011 India)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대회(2018 Columbus, Ohio)



기후정의세미나(2012 Japan)

유엔세미나(UN Seminar)

스크랜턴센터는 UMW가 매년 주최하는 유엔세미나에 2011년부터 젊은 여성들이 참가하도록 도왔다. 이 세미나는 일본 웨슬리센터가 후원하고, 센터는 파트너십 기관으로 한국 젊은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공부를 주관했고, 여비를 지원했다.

일본 평화세미나(Peace Seminar, Japan)

일본 웨슬리센터 주관으로 오키나와에서 평화세미나가 있었는데 스크랜턴센터는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환경을 위한 평화세미나도 일본 웨슬리센터가 주관하여 한국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유엔세미나(2017 New York)



평화세미나(2014 Okinawa, Japan)

유라시아 여성리더십세미나

(Eurasia Women's Leadership Development)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성리더십세미나에 해마다 센터 직원과 인턴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와 주변지역, 카자흐스탄 우소도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러시아 히가이 감독이 요청하는 대로 여성지도력개발세미나를 지원했다(2013-2019).

세계감리교여성연맹(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WFMUCW)과 함께 한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WFMUCW 세계대회의 김활란장학생 리더십프로그램을 아프리카에서 주관했다. 센터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세미나(East Asia Area Seminar)에서 성경공부, 설교, 워크숍 등을 인도했고, 특히 젊은 여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웨슬리센터와 공동 운영했다. 또한 유지재단 이사장의 강연, 센터 직원과 인턴들의 참여로 기여하였다.



East Asia Area Seminar (2014 Singapore)

2)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국제정의봉사단(Global Justice Volunteer, GJV)과 국제선교동행자(Global Mission Fellow, GMF)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BGM)가 진행하는 젊은이 단기선교 프로그램인 GJV의 2008년 아시아 부문을 스크랜턴센터가 맡아 행정업무와 재정지원을 했다. GBGM은 후에 이 프로그램을 3년 장기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 선발을 스크랜턴센터가 맡았다. 센터의 인턴, 직원 외 프로그램 수 명의 참가자가 아프리카, 유럽, 일본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 다양한 기독교기관에서 일하며 현장 경력을 쌓았다.

팬데믹 구호펀드(2020-2022)

팬데믹으로 나라마다 이동 제한을 선포하자 일일노동자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아시아 유지재단들은 함께 3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아시아 파트너 기관들을 돕기로 했다.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스크랜턴센터, 미



KUMW와 함께 한 유라시아 여성리더십세미나 (2019 Vladivostok)

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 일본 웨슬리재단이 각 개발도상국에게 기금을 신청하도록 했고, 함께 수혜 기관을 선정했다. 최고 수혜기금은 2만 달러였다.

캄보디아 Livelihood 학교 설립(2023년)

미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은 더욱 활발한 NGO 활동을 위해 “희망의 다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첫 해외 프로젝트로 캄보디아에 생계지원을 위한 기술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스크랜턴 센터는 여성 프로그램의 공간을 위해 건축기금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만 달러를 약정했다.

국제정의봉사단(2008 Korea)



연변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세미나(2017)

3) 아시아 및 한국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아시아 젊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Asia Young Women's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AYWLD)

2009-2010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여성지도력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선발된 젊은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한 달간 현지인과 생활하며 필리핀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2010-2014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와도 젊은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 다니며 진행되고 있는데 웨슬리센터가 주관하게 된 후, 스크랜턴센터는 한국 참가자 선정, 참가 준비, 참가비 지원 등을 맡았다.

스크랜턴 대부인에서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로(2007~현재)



아시아 젊은 여성 리더십프로그램(2018)



아시아 젊은 여성 리더십프로그램(2020)

아시아 각국 여성교회전국연합회 리더십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대만, 일본, 홍콩, 사라왁, 말레이반도, 싱가포르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교회여성연합회 등에서 센터 사무총장, 이사장의 인도와 강의로 지도자개발 세미나를 진행했다.

중국 연변대학교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연변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세미나(Global Leadership Seminar, Yanbian University)를 2015년부터 시작했다. 이 세미나는 아시아발전재단과 파트너십으로 중국 지린성 연변대학교에서 개최한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는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들, 연변대학 여성 교수(단과대학에서 2명씩 총 20명 선정), 그리고 국제대학원 학생들이었다. 2016년부터는 연변대 국제연구생학원의 공식 수업으로 발전하여 스크랜턴센터와 연변대학교가 MOU를 맺고, 글로벌 리더십, 다원문화, 교차과학 강의를 중국에서 가르쳤다. 학생들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는 센터가 한국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코로나로 대면강의가 어려워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줌으로 실시간 강의와 녹화 영상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했다.

아시아 기독교대학협의회(UB)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여성교수 리더십 세미나(Women's Leadership in Asia, WoLA)를 새로 열었다. 코로나 기간에 아시아 개발도상국 학생들은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리더십훈련을 할 수 없어서 리더십개발프로그램 대상을 아시아 여성교수로 바꾸었다. 이를 위해서 스크랜턴센터는 UB와 일본 웨슬리재단을 파트너로 초대하여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이화대학 리더십개발원에 맡겼다. 6주간 또는 2주간 동안 7-9개 세션을 줌으로 진행했는데 2021년에는

12개 나라에서 88명이 참가했고(30-40대가 70%), 2023년에는 9개국 57명이 참가했다. 2024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나. 한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UMW, KUMW, 정동교회 영어예배부와 파트너십 프로그램

스크랜턴센터는 UMW, KUMW, 정동교회 영어예배부와 젊은 여성 리더십프로그램(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을 열었다. 미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들이 한인 2세 젊은 여성들을 선발하고, 여비를 지원하여 한국에서 배우고 봉사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여성국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다양한 인종의 젊은 여성들을 선발해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리더십프로그램을 마친 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국 도서산간교회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영어 여름성경 학교를 진행했다. 이는 정동제일교회 영어예배부가 주관했는데 미국 참가자들이 교사로 섬겼다. 16개 교회 어린이 110-16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진행한 도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센터 인턴은 이 프로그램을 거친 참가자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우분투 프로그램(Ubuntu Journey)

UMW는 평신도 여성이 세계 여성과 만나고 서로 배우는 국제 선교 교육인 우분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스크랜턴센터는 2013년 한국 우분투를 주관하여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활약했던 여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방문하며 공부하도록 기획했다. 또한 센터는 필리핀 우분투(2012), 캄보디아 우분투(2015) 때 2박 3일 일정의 한국 체류 우분투도 주관했다.



아시아 젊은 여성 리더십프로그램(2024)



우분투 프로그램(2013)

평화세미나(Peace Seminar)

평화세미나는 분단국가인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가했고, 후에는 아시아에서 온 스크랜턴 장학생을 위해 진행했다. 일본 젊은이들이 참가했을 때는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에서의 아픈 역사를 가르치는 세미나로 운영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해마다 열었고 서울과 강원도 인제 평화생명동산에서 열었다.

스크랜턴장학생리더십세미나

(Scranton Scholars' Leadership Seminar, SSLP)

센터는 아시아 스크랜턴 장학생들을 한국에 초대하여 지도력 세미나를 열었다(2016-2018).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학생들이 지도자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SSLP 참가자로 선정되어 한국에 오게 된 것을 생의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는 아시아 학생들을 대하며 센터 이사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사진이 주로 강사로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업적과 한국 여성들의 발전상을 더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과 협업하기로 하고 이름을 SELP(Scranton-Ewha Leadership Program)로 바꾸었다. SELP를 마친 후 참가 학생들에게 전문 코치들을 배정하여 6개월간 원격으로 코칭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중단되었다.

글로벌 여성리더 세미나(Global Women Leaders' Seminar)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력 세미나였는데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할 목적으로 열었다. 참가자는 결혼이주배경여성, 유학생 그리고 한국인 젊은 여성이 참가했다.



스크랜턴-이화 리더십프로그램(2019)



스크랜턴-이화 리더십프로그램(2019)

젊은 여신학생 세미나(Young Seminarian Women's Seminar)

센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훈련원과 파트너십으로 여신학생 세미나를 열어 미래 직업과 삶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2013).

기독교대한감리회 여교역자전국연합회 평화세미나

여교역자, 여신학생 등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서는 철원 국경선 평화 학교에서 열려(2013),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배움과 나눔이 있었다. 스크랜턴센터는 세미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인턴과 직원들이 참가했다.

한국인을 위한 글쓰기 공모전

스크랜턴센터 이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공모전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 “뉴노멀시대의 여성리더십”,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여성리더십”, “지구를 살리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고, 선정작이 스크랜턴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프로그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는 2007년 창립한 이래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지도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 인공지능, 극심해진 빈부격차, 글로벌 이주민 및 난민의 시대에 봉착했고, 이는 한국 내에서도 당면 문제가 되었다.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이사회는 스크랜턴센터의 역사적 사명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 사명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재단의 기본 설립목적은 유지하되 미래 세계의 요청과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팬데믹 이후 2023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재정과 리더십을 지원했다.

이주배경 가족리더십 프로그램

2023년 아산에 거주하는 필리핀배경 이주여성과 가족, 그리고 부천에 거주하는 미얀마배경 이주여성과 가족의 지도력프로그램을 4월에 각각 실시했다(어린이 포함 약 30명씩 1박 2일). 2024년에는 미얀마계 여성의 지도력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리더십 프로그램 공모전

2023년 “크리스천 여성의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공모전을 기획했다. 기독여성연구원 홀다가 선정되어 리더십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4년에도 이어졌다(약 30명, 2박 3일).

이주배경 여성과 어린이 리더십사업 지원

이주배경 여성과 어린이의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위해 5개 기관의 7가지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경남이주여성 리더십 워크숍 - 같이 날자!)
-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이주여성, 청소년 제과제빵교실; 이주배경가족 리더십캠프 - Happiness)
- 사단법인 위로(통일민 크리스천 여성 리더십 코칭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이주여성 자립·자활을 위한 케이터링 프로젝트 ‘조각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차별과 혐오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이주여성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리더십 프로그램 - 함께 성장 프로젝트)



파트너 단체(홀다)와 함께 한 “기혼세 워크샵”(2024)



파트너 기관(성공회 용산나눔의집)과 함께 한 이주여성 케이터링 프로젝트 조각보(2023)



파트너 기관(성공회 용산나눔의집)과 함께 한 이주여성 케이터링 프로젝트 조각보(2023)



파트너 기관(경남이주민센터)과 함께 한 “같이 날자!” 프로그램



파트너 기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과 함께 한 “엄마와 자녀 서로 소통” 프로그램(2023)



파트너 기관(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과 함께 한 “Happiness” 가족 캠프(2023)



파트너 기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과 함께 한 “이주여성 편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 프로그램(2023)



파트너 기관(사단법인 위로)과 함께 한 “통일민 크리스천 리더십 코칭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2023)



파트너 기관(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과 함께 한 청소년 제과제빵교실(2023)



미얀마-한국 여성리더십세미나(2024)

맺는 말

1883년 볼드윈 부인이 드린 한국 선교헌금은 마치 예수의 비유 속 누룩과도 같았다(누가복음 13:20-21). 맨 처음에 오하이오 래베나지방 여선교회에서 지정헌금을 드린 볼드윈 부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 2024년에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884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부터 시작해 420여 명의 여성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다. 선교사의 배우자로 무급 선교 활동을 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비혼의 젊은 여성이었다. 세상 경험이 많을 리 없었지만 선교현장에서 온갖 상황에 처해 자신을 만 배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했다. 본부에서 오는 선교비와 선교 인력은 늘 부족하여 지인과 교회 등에 후원해달라는 편지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고, 안식년을 고국에서 보낼 때도 여기저기서 설교하고 강연하며 선교비를 모았다. 그렇게 아낌없이 최소 5년부터 최대 50년 넘도록 한국인을 위해 일했다. 이 책에서 여성 선교사들 및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분량상 다 언급하지 못해 송구할 뿐이다. 전문 연구자들이 여성 선교사를 비롯해 전도부인, 여성 교인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 출판해주기를 기대한다.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은 한국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 발전, 복지에 크

게 기여했다. 그들은 어린이 교육과 진료, 사회복지, 여학교의 시작, 그리고 체육 등 특이과목의 도입, 여성병원 설립, 간호학교의 설립과 여성 간호사 양성, 의과대학설립과 여성 의사 양성, 신학교 설립과 여성 교역자 양성, 사경회와 교회설립 등 수많은 일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고 발전시켰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태화종합사회복지관,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등 미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세운 학교, 교회, 선교기관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

미감리교회 여선교회는 2007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에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를 세워 21세기에 요청되는 선교를 재개했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한 만큼,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도 세계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세계의 갈등,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 다양성과 다문화, 점점 커지는 빈부 격차 등 많은 도전을 안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1885년 이래 140년 그리고 유지재단 100년의 역사 동안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한국에서 맺은 대표적인 열매는 여성 리더십이었다.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의 사명 역시 한국과 아시아의 여성 리더십이다. 100여 년 전 한국사회를 바꾸어 놓았던 여성 리더십이 지금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연령의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은 140년간 헌신적으로 활약한 여성들의 용기와 지혜에 뿌리를 두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를 하고자 우리 선배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앞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재단을 통해 그리고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를 통해 계속 기록될 것이라 믿는다.

제1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885-1924년)

1 R. Pierce Beaver, *All Loves Excelling: American Protestant Women in World Mission* (Eerdmans, 1968), 18-19. 해외여성교회 선교잡지인 *The Heathen Women's Friend* (1869-1896)는 *Woman's Missionary Friend* (1896-1940)로 이름이 바뀌었다.

2 Mary Isham, *Valorous Ventures*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36), 16.

3 윗글, 18.

4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anual for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3), 3.

5 참조. Mary Isham, *Valorous Ventures*.

6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anual for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12.

7 Mabel K. Howell, *Women and the Kingdom* (Cokesbury Press, 1928), 23. Betty Cathcart, "When Methodist Women in the South Organized for Mission," Barbara E. Campbell, *Along the Journey: Vignettes of Predecessor Women's Mission Organizations*. The Centennial Assembly Souvenir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1985), 27에서 인용.

8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KR* (January 1896): 2.

9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HWF* (December 1884): 130, 138 참조.

10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WFMS," *HWF* (December 1884): 145; Personal Record of William Benton Scranton, 1901. 이덕주, 『스크랜턴』, 96, 주 85, 86에서 인용.

11 W. B. Scranton's letter to Dr. John M. Reid (June 1, 1885).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엮음, 『윌리엄 B. 스크랜턴 서신자료집』(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20.

12 J. P. Campbell, "Communication from Mrs. Campbell," *MECS* (1897): XV.

13 C. F. Reid, "Superintendent Report," *MECS* (1897): VI;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50-51, 56.

14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KR* (1896): 4.

15 "가옥매매패지청구의 건(1885년 7월 11일)," "가옥매매패지발급의 건(1885년 7월 16일)," 『구한국의부문서』 제10권(미안 1), 164-166; 이덕주, 『스크랜턴』(공옥출판사, 2014), 128-129, 주 118에서 인용.

16 한국어 명칭에 일관성이 없었다. 『조선예수교감리회 년회일기』(1912)에는 "부인선교회원들(여성 선교사들)"(3쪽), "부인선교부"(24쪽)라는 명칭이 나온다. 『북감리회 제6회 년회일기』(1913)에는 "부인회"(3쪽)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영어 명칭도 처음에는 the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Korea(1899)와 the Korea Woman's Missionary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1)가 쓰여 일관성이 없었다. 1903년부터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라는 명칭이 계속 쓰였다.

17 "Minutes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KWC* (1917): 5.

18 양주삼의 보고에도 나온다. "요즘 한국인은 극도로 가난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만주, 시베리아로 이주한다." J. S. Ryang, "Report of the Conference Board of Missions," *MECS* (1927): 53.

19 Saddle Hammond, "Cincinnati Branch," *HWF* (July 1883): 40.

20 윗글, W. B. Scranton's letter to Dr. A. B. Leonard (December 21, 1892), 105; L. C. Rothweiler, "Our Work in Korea," *KMF* (October 1909): 168.

21 스크랜턴 부인은 방문자를 매클레이 목사로 기억하지만 이덕주는 해리스라고 밝혀냈다.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공옥출판사, 2014), 91, 주 78; 참조. 노블, "한국의 개척자들," 사우어 엮음, 자료연구회 옮김, 『은자의 나라 문에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44-45. 원제는 W. A. Noble, "Pioneers of Korea," C. A. Sauer, ed., *Within the Gate* (The Korea Methodist News Service, Seoul, 1934).

22 Mary M. Hillman, "Mrs. M. F. Scranton," *KMF* (January 1910): 12.

23 Alta I. Morrison, "Nurses' Training School," *KWC* (1910): 25.

24 M. F. Scranton, "New England Branch," *HWF* (1884): 188-189.

25 Frances J. Baker, *The Story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69-1895* (Revised Ed.; New York: Eaton & Mains, 1898), 342.

26 WFMS는 선교사의 파송, 소환, 보수, 사역지, 선교지 예산 등에 대해 미감리교회 총회 해외선교부 매니저부(the Board of Managers)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다.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anual for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5.

27 *WFMS* (1931): 78.

28 박철휘,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예지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서울역사 중점연구 7; 서울책방, 2020), 9에서 인용.

- 29 소영현, “일제강점기 기숙사의 공간성과 여학생의 이동성,” 서울역사편찬원,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서울역사 중점연구 7; 서울책방, 2020), 83.
- 30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KR* (1896): 4-5.
- 31 W. B. Scranton’s letter to Dr. J. M. Reid (April 21, 1887),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엮음, 『윌리엄 B. 스크랜턴 서신자료집』(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32.
- 32 샬롯 브라운리, “유치원, 보육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굿올드북스, 2021), 91-92. 원제는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Edna VanFleet Hobbs, “Charlotte Brownlee: A Pioneer,” *KMF* (December 1939): 256-257.
- 33 “Property in Korea,” Board of Missions of the MEC, *Missionary Yearbook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Nashville, TN: Publishing House of the MECS, 1940), 42.
- 34 J. P. Campbell, “Woman’s Work,” *MECS* (1898): 21-22.
- 35 1901년에는 “The Louise Walker Chapel”을 지었다. J. P. Campbell, “General Report of Work in Korea under the Woman’s Foreign Mission Board, together with Report of Carolina Institute for Year Ending Sept. 30th, 1901,” *MECS* (1901): 22; J. P. Campbell, “Woman’s Work,” *MECS* (1898): 21-22, 90.
- 36 L.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Yonsei University Press, 1971),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7), 324-325; Henrietta P. Robins, “Day, Normal, and Blind Schools and Evangelistic Work on Pyeng Yang District,” *KWC* (1911): 52.
- 37 Mattie W. Noble, “Evangelistic Work, Pyeng Yang,” *KWC* (1903): 48.
- 38 Mattie W. Noble, “Report of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Three Day Schools, Pyeng Yang,” *KWC* (1907): 46.
- 39 아이린 헤인즈, “평양여자성경학원,” 『빛의 50년』, 161-165.
- 40 헬렌 보일즈, “영변지방 교육사업,” 『빛의 50년』, 166-169.
- 41 Gertrude E. Snavely, “Evangelistic Work and Day Schools on the Haiju District and Island Circuits of the Seoul District,” *KWC* (1911): 46-47.
- 42 롤라 밀러, “동산(수원지방),” 『빛의 50년』, 210.
- 43 루이즈 모리스, “원주·강릉지방,” 『빛의 50년』, 223-224.
- 44 윗글, 225.
- 45 “녀자계에 깃든 졸업식 후문,” 『기독교신보』(1917년 5월 2일).
- 46 *WFMS* (1902-1903): 33; *WFMS* (1909): 45. 이 학교는 테네시주 홀스톤연회(Holston Annual

Conference) 여성들의 지원으로 건물을 마련했기 때문에 호수돈여학교라 불렀다.

- 47 행길, “미리흠여학교역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06-107.
- 48 “Miss Carroll’s Report,” *MECS* (1905): 43; Ellasue C. Wagner, “Social Evangelistic Center, Songdo,” *WMC* (1923): 301.
- 49 *WFMS* (1902-1903): 33, 39-40. 미국 북캐롤라이나 여성교회 회장 루시 커닝햄(Lucy Cunningham)이 건축비를 지원한 데서 이 이름이 나왔다. 또한 부부 사망시 받은 생명보험금을 한국에 보내주었다. 오리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역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03.
- 50 오리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역사,” 104.
- 51 1907년 방한한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총무 앨리스 캡(Alice Cobb) 부인이 기부하여 건축했다.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27, 113.
- 52 Kate Cooper, “Evangelistic Work, Wonsan District,” *WMC* (1923): 307.
- 53 Mrs. J. R. Moose, “Report of Mrs. J. Robt. Moose,” *MECS* (1909): 80; “정명여교의 신축낙성,” 『조선일보』(1924년 11월 28일), 2.
- 54 *WMC* (1911): 301.
- 55 *WFMS* (1910): 172.
- 56 Charles D. Stokes,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장지철, 김흥수 옮김(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267;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anual for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5-6.
- 57 헬렌 보일즈, “평양지방 소학교, 정진소학교,” 『빛의 50년』, 122.
- 58 참고. “Legal Holding Body,” *AMMK* (September 10, 1964).
- 59 Josephine P. Campbell, “Woman’s Work,” *MECS* (1898): 22; “Statistics of Woman’s Work,” *MECS* (1910): 316.
- 60 “Holston Institute, Songdo,” *WMC* (1921): 316.
- 61 W. B. Scranton, “Notes from Korea,” *The Gospel in All Lands* (1888): 373.
- 62 E. A. Lewis, “Evangelistic Work, Mead Memorial Church and South Korea District,” *KWC* (1903): 26.
- 63 참조. 송현강, 『대전·충남 지역 교회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82.
- 64 H. G. Appenzeller, “Reports of Pastors,” *MEC* (1899): 26.
- 65 Myrtle Cable, Alice Sharp, “Evangelistic Work Kong Ju District,” *KWC* (1909): 77-78.
- 66 최병천, “두령바위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새가정』 378(1988. 3): 22-28.

- 67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1885-1945)』(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237-242.
- 68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김도형 옮김(한국학술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 총서 동양편 107, 서울: 소명출판, 2008), 248-251, 316-327(상해: 유신사, 1920);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New York: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19), 17-18 외 여러 곳.
- 69 참조.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229-230.
- 70 구타펠 선교사는 *The Happiest Girl in Korea*(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라는 책을 냈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미네르바 구타펠, 『조선의 소녀 옥분씨: 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 이형식 옮김(파주: 살림, 2008).
- 71 대한민국 상훈 <https://www.sanghun.go.kr/nation/participation/sangopen/sangInfoOpen.do>(2023년 12월 24일 접속).
- 72 Ellasue C. Wagner, "Report of Miss Wagner," *MECS* (1907): 49.
- 73 A. W. Wasson, J. Campbell, J. R. Moose, J. L. Gerdine, "Report of Committee on Education," *MECS* (1909): 90.
- 74 하워드는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8천 명을 진료하며 초인적으로 사역했다. 2년 후(1889년 9월) 건강이 나빠져 본국으로 돌아갔다. 참조. *WFMS* (1889): 68.
- 75 참조. J. B. Ross, W. T. Reid, Gilberta Harris, "Medial Work," *MECS* (1911): 59.
- 76 "Statistics of Medical Work," *MECS* (1910).
- 77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239.
- 78 Mary M. Cutler and Margaret J. Edmunds, "Po Ku Nyo Kwan," *KWC* (1904): 7-12.
- 79 윗글.
- 80 Rosetta S. Hall and Mary M. Cutler, "Koang Hyoe Nyo Won (Woman's Hospital of Extended Grace)," *KWC* (1913): 98-100; "Editorial Notes," *KMF* (June 1918): 115; Chas. F. Bernheisel, "Another Twenty-Fifth Anniversary," *KMF* (August 1918): 177.
- 81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빛의 50년』, 118; "인천에도 여의원," 『동아일보』(1921년 7월 4일): 3.
- 82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118-119.
- 83 나오미 앤더슨, "평양지방 의료사업," 『빛의 50년』, 133-134.
- 84 J. D. Bigger, "Evolution of Medical Work in Pyongyang," *KMF* (March 1925): 63.
- 85 마렌 보딩, "공주지방 공중위생사업 및 유아보건센터[영아관]," 『빛의 50년』, 116.
- 86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60; 버지니아주 아이비(W. C. Ivey)씨는 1907년 병원 건축을 후원했고 그 후에도 병실 확충을 위해 기부했다.
- 87 Lillie M. Reed, "In the Steps of Great Physician," *MV* 7.2 (February 1917): 52-53.
- 88 줄라 페인, "여성 의료교육사업," 『빛의 50년』, 252;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대한간호협회, 2011), 479.
- 89 Emma Ernsberger, "Report VI: Baldwin Dispensary and Chapel, East Gate," *KWC* (1902): 17.
- 90 참조.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KWC* (1903): 13-14.
- 91 참조. George C. Cobb, "Report V—Tal Sung Church," *MEC* (1899): 37.
- 92 *MECS* (1919), 9, 11; Mary D. Myers, "The Social Evangelistic Center for Women," *WMC* (1921-1922): 315.
- 93 Cf. Nellie Pierce, "Bible Woman's Training School, Evangelistic Work Mead Memorial Church and South Korea District," *KWC* (1903): 15; M. F. Scranton, "Sang Dong and Southern District," *KWC* (1906): 8-9.
- 94 참조. M. M. Albertson, "The L. C. Rothweiler Bible Training School," *KWC* (1917).
- 95 양주삼, "조선남감리교회소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51-52; C. F. Reid, "Superintendent's Report," *MECS* (1897): VII.
- 96 양주삼, "조선남감리교회소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56.
- 97 Yui Ling-Tsu, "Report of Work Among Women at Chat Kol, Seoul," *MECS* (1901): 28.
- 98 윗글, 29; 참조.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56, 28.
- 99 김세디, "나의 과거생활," 노블 부인 편저, 『승리의 생활』, 34-48.
- 100 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독립운동의 요람』(그물, 2015), 131-136.
- 101 루이즈 모리스, "영변지방 1903-1938년," 『빛의 50년』, 173.
- 102 *WFMS* (1910): 173.
- 103 G. H. Jones, "Seoul District," *MEC* (1909): 34-47.
- 104 Lula A. Miller, "Korean Voices from Suwon," *KWC* (1924): 12.
- 105 "Appointments," *MEC* (1915): 29.
- 106 "Summary of Work in the Korea Conference for Year Ending March 1916," *KWC* (1916): 192.
- 107 F. E. C. Williams, "Chunan District," *MEC* (1920): 38.
- 108 C. T. Collyer, "Condensed Report of the Songdo Circuit for the Year 1901," *MECS* (1901): 24.

- 109 Ellasue C. Wagner, "Social Evangelistic Center, Songdo," *WMC* (1923): 301.
- 110 Kate Cooper, "Evangelistic Work, Wonsan District," *WMC* (1923): 307.
- 111 차선, "춘천지방여자사업,"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11.
- 112 "남녀교역자의 이력서,"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년 기념보』, 253-280.
- 113 어원, "철원지방여성교사업,"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15-117.
- 114 안나 채핀, "만주 선교사업(북만주지방)," 『빛의 50년』, 282.
- 115 전삼덕, "내 생활의 약력," 노블 부인 편, 『승리의 생활』(조선예수교서회, 1927), 9; 아이린 헤인즈, "북쪽 지역의 교회성장," 『빛의 50년』, 143.
- 116 참조. 김은정, "무명(無名)한 자에서 유명(有名)한 여성으로: 초기 개신교 여성의 이름과 선교적 의의," 『선교와 신학』 58(2022): 63-91.
- 117 Mary Isham, *Valorous Ventures*, 285.
- 118 Millie M. Albertson, "The Bible Woman's Training School," *KWC* (1910): 16.
- 119 "Mrs. Moose's Report," *MECS* (1904): 54.
- 120 C. G. Hounshell, "Seoul Circuit," *MECS* (1905): 27.
- 121 참조. Cooper, "The Bible Woman," *Korea Magazine* 1 (January 1917): 6-10. 선교 초기부터 해방 전까지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전도부인은 717명으로 장로교 209명, 성결교 138명 등에 비해 가장 많았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자료총서 제25집(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8쪽.
- 122 예를 들면, J. P. Campbell, "Seoul," *WFMS* (1909): 44; Lee-Ellen Strawn, "Korean Bible Women's Success: Using the Anbang Network and the Religious Authority of the Mudang," *Journal of Korean Religions* 3.1 (April 2012): 126-130.
- 123 김셔커스, "은혜만은 나의 생활," 노블 부인 편지, 『승리의 생활』, 41.
- 124 Margaret Hess, "The Voice, Chemulpo District," *KWC* (1925): 7; 참조.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빛의 50년』, 117.
- 125 미주리 캔사스의 Scarritt Bible and Training School의 기숙사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 어원이 캔드릭에 대해 쓴 글에서 발췌. Cordelia Erwin, "In Memory. Miss Ruby Rachel Kendrick," *KMF* (August 1908): 118.
- 126 Gus W. Thomasson, "The Moving Spirit of Ruby Kendrick Memorial," *MV* 7.8 (August 1917): 248.
- 127 Alice H. Sharp, "Evangelistic Work and Country Schools in Kong-Ju District," *KWC* (1912): 58.
- 128 "여전도사의 대불평," 『매일신보』(1922년 9월 17일).

- 129 「기독교신보」(1930년 1월 1일): 5.
- 130 Alice R. Appenzeller, "The Need of Social Work Among the Women of Seoul," *KMF* (April 1918): 78.
- 131 Blanche Bair, "Blind People in Seoul," *KMF* (February 1929): 39-40.
- 132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2021), 68-72.
- 133 엘마 로젠버거, "서울사회복음센터[태화사회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굿올드북스, 2021), 96-100; "서울지방 공중위생 및 아동보건사업," 102-106; 참조. "Social Evangelist Center, Seoul (Union)," *WMC* (1931-1932): 222-228.
- 134 구례함, "고려여자관사업," 양주삼 편찬, 『한국남감리교회삼십년기념보』, 121-122.

제 2 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

- 1 "우리에게 밥을 나오," 『동아일보』(1926년 4월 24일).
- 2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고즈윈, 2008), 17.
- 3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130.
- 4 모네타 트럭슬, "여자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굿올드북스, 2021), 263.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5 Horace N. Allen,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American Residents in Korea* (Seoul: U. S. Legation and Consulate General, 1899), 2.
- 6 Allen to Pak Chai Soon, Oct. 4, 1901, 『구한외교』 12권, 188-191.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81에서 인용.
- 7 김병화, 『한국사법사』(일조각, 1995), 177-178.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1920년대 선교회·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2009): 126에서 인용.
- 8 工藤忠輔, "朝鮮に於ける公益法人に就いて," 『朝鮮及滿洲』 83(1914), 30.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134에서 인용.
- 9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최재건 옮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484. 원제는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1, 1884-1934*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t. of Education, 1934); 『朝鮮の統治と基督教』(조선총독부, 1923). 안유림, 윗글

136에서 인용.

10 Bliss W. Billings "Viscount Makoto Saito. An Appreciation," 재등자작기념회 편, 『자작 재등실전』 3권(재등자작기념회, 1941), 543-544. 안유림, 윗글, 137, 주 45에서 인용.

11 Ada B. Hall, "Life Sketch of Ada B. Hall," (1945년 추정). Mission Bio Reel #38:1065,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8회 회록」(1929년 9월), 42.

13 김병화, 『한국사법사』(일조각, 1995), 177-178.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126"에서 인용.

14 1925년의 경우,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서울 매일학교가 10개에서 9개로 줄었다. Ada B. Hall, "The Seoul Day Schools," *KWC* (1926): 55.

15 W. A. Noble, Mrs. Noble, & Jessie Marker, "Evangelistic Work, Seoul District," F. E. C. Williams and Gerald Bonwick, eds.,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8), 61.

16 *WFMS* (1938): 119.

17 강익하, 황은순에게 매각된 동대문부인병원을 1943년에 인가받은 "이화학당 유지재단"이 1945년에 되셨다.

18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MEC* (1930): 275.

19 성백걸, 『배화백년사(1898-1998)』(배화학원, 1999), 381-386.

20 J. S. Ryang, "Report of Seoul District for 1929-1930," *MECS* (1930): 55.

21 John Z. Moore, "Report of Pyeng Yang and Yeng Byen Districts 1926-1927," *MEC* (1927): 324.

22 에스더 험버트, "정의고등여학교," 『빛의 50년』, 150.

23 "District Statistic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KWC* (1928): 83.

24 평양 여자성경학원은 1939년 총독부 인가를 받았고, 1941년에 "성화여자성경학교"로 개칭했다. 1946년 9월 남녀공학 "성화신학교"가 되었고 1949년 공산정권이 교수들을 납치한 후 폐교되었다.

25 1938년 무렵 송덕여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남, 녀 고보 교사들이 양쪽에서 가르치며 운영했고(남학생 210명, 여학생 90명) 한국인들이 재정을 책임졌다. 헬렌 보일즈, "영변지방 교육사업," 『빛의 50년』, 166-169.

26 John Z. Moore, "Report of Pyeng Yang and Yeng Byen Districts 1926-1927," *MEC* (1927): 324.

27 펄 런던, "해주 루시스콧기념학교," 『빛의 50년』, 197; Belle Overman, "Eui Chung Girl's School Report for 1925," *KWC* (1925): 26.

28 제인 발로우, "해주지방 전도사업(1901-1937)," 『빛의 50년』, 203.

29 안나 채핀, "만주 선교사업(북만주지방)," 『빛의 50년』, 283.

30 Nellie Dyer, "Mary Helm School, Songdo," *WMC* (1937-1938): 249-250.

31 Chung Choon Soo, "Report of Choonchun District," *MECS* (1927): 56.

32 "Statistical Table No. 5," "Statistical Table No. 6," *MECS* (1927).

33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 중부, 서부, 제2회 연합년회회록」(1932), 183-184.

34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빛의 50년』, 114.

35 롤라 밀러, "동산(수원지방)," 『빛의 50년』, 211.

36 윗글, 211.

37 거트루드 스네블리, "이천지방," 『빛의 50년』, 234.

38 루이즈 모리스, "원주·강릉지방 1911-1938년," 『빛의 50년』, 225.

39 에스더 레어드, "원주기독교여자사회관(원주기독교여자관)," 『빛의 50년』, 217.

40 한나 샤프, "홍성지방," 『빛의 50년』, 242.

41 이 때 새 건물 개관, 학교 창립 35주년, 밀러의 교장 근속 30년 기념식을 가졌다. 롤라 밀러, "동산(수원지방)," 『빛의 50년』, 213-215.

42 에스더 험버트, "정의고등여학교," 『빛의 50년』, 151.

43 펄 런던, "해주 루시스콧기념학교," 『빛의 50년』, 197.

44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563-572.

45 엘리자베스 로버츠, "서울지방 의료사업," 『빛의 50년』, 50.

46 "조선 최초 여의전 십구일 창립대회를 열었다고," 『동아일보』(1928년 5월 20일): 2; Rosetta Sherwood Hall, "The Woman's Medical Training Institute Ella Anthony Lewis' Memorial, Seoul," *KMF* (September 1928): 182-183; "Medical Education for Women," *KMF* (1932): 182.

47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빛의 50년』, 119.

48 A. G. Anderson, "Pyongyang Union Christian Hospital," *MEC* (1926): 247.

49 Sherwood Hall, "Norton Memorial Hospital, Haiju," *MEC* (1928): 60.

50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703.

51 Maren Bording,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KWC* (1928): 19-21; "공주기독교병원 영아부를 새로 설립," 『동아일보』(1926년 6월 7일): 3.

52 Maren Bording,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Work," *KWC* (1927): 23.

- 53 Ellasue Wagner, "Woman's Evangelistic Center, Songdo," *WMC* (1925-1926): 299.
- 54 "Appointments," *MECS* (1926): 43; "Statistical Table No. 6," *MECS* (1928).
- 55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Property," *MEC* (1928): 76.
- 56 마리 처치, "여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굿올드북스, 2021), 275.
- 57 모네타 트럭슬, "여자사업부," 『빛의 50년』, 267.
- 58 Jessie B. Marker, "Seoul District," *KWC* (1929): 51.
- 59 미국 버지니아주 윌링 웨스트의 풀턴(Fulton) 부인과 헤티 리스트(Hettie M. List) 양의 현금(3,500달러)으로 마련했다. 윗글.
- 60 기태부, "감리교협성신학교에 대하여," 『신학세계』 제14권 4호(1929): 70.
- 61 J. S. Ryang, "Report of Seoul District for 1929-1930," *MECS* (1930): 54-56.
- 62 "예수교미감리회조선년회 통계보고," 『예수교미감리회조선년회록』(1925).
- 63 제인 발로우, "해주지방 전도사업(1901-1937)," 『빛의 50년』, 202-204.
- 64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Property," *MEC* (1930): 270.
- 65 마가렛 헤스, "물결(제물포지방)," 『빛의 50년』, 112.
- 66 거트루드 스네블리, "이천지방," 『빛의 50년』, 235.
- 67 앨리스 샤프, "공주지방," 『빛의 50년』, 184.
- 68 한나 샤프, "홍성지방," 『빛의 50년』, 242.
- E. M. Cable, "Kongju District," *MEC* (1909): 84.
- 69 C. N. Weems, "Report of the Songdo District," *MECS* (1930): 57.
- 70 윗글, 59.
- 71 "Wonsan," *MECS* (1911): 25.
- 72 Chung Choon Soo, "Report of Choon Chun District," *MECS* (1930): 49-50.
- 73 "Statistical Table No. 3," *MECS* (1928).
- 74 1939년 만주에는 교역자 50명(여전도사는 6명), 교회 65처(기도처 포함), 성경학교 2개, 신학교 1개(여학생 40명), 유치원 9개가 있었다. "기독교조선감리회 서부, 중부, 동부, 만주 연회통계표(1939),"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5(1931-1940)』(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2-32.
- 75 『남감리교회 서배리아선교회 조선인사업부 연회록(1927-1929)』.
- 76 채부인, "예수께서 보신 여자의 지능과 영능," 『신학세계』 제17권 1, 2합호(1932): 133.
- 77 Rosetta Sherwood Hall, "Woman's Medical Work, Pyeng Yang," *KWC* (1904): 50.
- 78 *WFMS* (1904-1905), 191; 문화재청,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문화재 등록 보도자료(2022년 1월 5일).
- 79 "홀여사의 30년 제근 축하," 『기독신보』(1926년 10월 27일).
- 80 나오미 앤더슨, "평양 지방 의료사업," 『빛의 50년』, 136.
- 81 Mary M. Cutler, "Traveling Dispensary and Health Education," *KWC* (1929): 38-40.
- 82 E. M. Cable, "Kongju District," *MEC* (1909): 84.
- 83 임연철, 『이야기 사애리시』(신앙과지성사, 2019), 23에서 인용.
- 84 "북감리녀선교회 총회," 『기독신보』(1926년 7월 7일): 3.
- 85 Bell Overman, "Report of Eui Chung Girl's School at Haiju," *KWC* (1926): 25; Jeannette Walter, "Chung Eui Higher Common School," *KWC* (1926): 35.
- 86 쿠퍼, "원산보혜여자관약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회 30년 기념보』, 113-114.
- 87 윤춘병,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사』(동부연회역사편찬위원회, 1996), 274-275.
- 88 "경성부내 유아사망률 5년 동안의 통계는 이러하다," 『동아일보』(1926년 8월 24일): 2; Elma T. Rosenberger, "Soy Bean Milk and Feeding Procedure," *KMF* (June 1931): 133.
- 89 Maren P. Bording, "Kongju and Taiden Infant Welfare," *KMF* (March, 1939): 52; 『빛의 50년』, 193.
- 90 마렌 보딩, "공주지방 공중위생사업 및 유아보건센터," 『빛의 50년』, 192-193; Maren Bording,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Work," *KWC* (1927): 25;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KWC* (1928): 23; "A Public Health Aeroplane Trip from North to South in Korea," *KMF* (May 1940): 81-83.
- 91 Elma T. Rosenberger, "Soy Bean Milk and Feeding Procedure," *KMF* (June 1931): 133-134; E. Wagner, "The Center," *KMF* (December 1930): 259.
- 92 Mrs. A. G. Anderson, "Public Health and Child Welfare," *KWC* (1928): 35.
- 93 에스더 레어드, "원주기독교여자사회관(원주기독여자관)," 『빛의 50년』, 219.
- 94 마렌 보딩, "공주지방 공중위생사업 및 유아보건센터," 『빛의 50년』, 194; Maren Bording, "Kongju and Taiden Infant Welfare," *KMF* (March, 1939): 53.
- 95 "Minutes of the Central Council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Vol. II, 1933-1938,"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4(1930-1938)』(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130-132.
- 96 예를 들면, 1933년 호수돈여학교 행정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비의 3분의 2는 한국인이 냈다. Ellasue Wagner and Alice McMakin, "Holston Institute, Songdo," *WMC* (1929-1940): 218.

- 97 WFMS (1937): 112.
- 98 WFMS (1939): 61.
- 99 *Missionary Yearbook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Nashville, TN: Publishing Hous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39): 281-283.
- 100 찰스 스톱스(Charles Stokes, 도역서) 선교사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나부인”이라 불렀다고 회상했다. 최종수, 『한국을 위해 몸바친 나 애시덕 선교사』(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64.
- 101 윗글, 89-90.
- 102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22.
- 103 윗글, 25.
- 104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총회회록 1930,”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4(1930-1938)』(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3-10.
- 105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55.
- 106 윗글, 57.
- 107 지방 대표 140여 명이 참석하여 1931년 6월 3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 제1회 대회,” 『기독신보』(1931년 6월 10일): 4.
- 108 1931년 지방의 연회분담금 총액이 5,209원이었다.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 중부, 서부 연합년회회록(1931),”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0(1931-1934)』(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199.
- 109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선교회의 역사 1897-1990』(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342.
- 110 Hortense Tinsley,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the Ordination of Women,” *KMF* (October 1931): 214.
- 111 “기독교조선감리회 제2회 총회회록(1934),”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4(1930-1938)』(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77-78.
- 112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184.
- 113 윗글, 224.
- 114 “The Basis of Withdrawal,” *KMF* (March 1941): 34.
- 115 E. W. Koons, “The Mariposa Comes to Jinsen,” *KMF* (December 1940): 200-201.
- 116 “The Basis of Withdrawal,” *KMF* (March 1941): 34.
- 117 “The Basis of Withdrawal,” *KMF* (March 1941): 34; Sauer,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1930-1960*, 122-124.

- 118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31; Sauer,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1930-1960*, 93-98.
- 119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112.
- 120 Charles A. Sauer,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KMF* (March 1941): 37-38.
- 121 윗글, 38.
- 122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kmc, 2017), 328-339; 참조. Sauer,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1930-1960*, 143.
- 123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57-158. 저자는 혁신교단이 교회 재산을 매각한 대금의 절반 이상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책, 173.
- 124 *Journal of the Second Annual Session of the Korea Mission Council of the Methodist Church* (January 14, 1941), 2;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25.
- 125 『적산관리법과 관계명령 병이고시』(동경: 대장성 외자국, 1943), 204.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158에서 인용.
- 126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26-127.
- 127 『조선감리회보』(1942년 4월 1일), 10;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26-127.
- 128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27.
- 129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 1921-2021』(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2021), 165-167.

제 3 장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

- 1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161-162.
- 2 윗글, 162.
- 3 윗글, 162.
- 4 참조.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II』(kmc, 1994), 702-708.
- 5 “양주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중 “Gentlemen” 문서(an_025_0090) 참조. <http://db.history.go.kr>.
- 6 “양주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중 “피의자신문조서” 문서(an_025_0080). <http://db.history.go.kr>; Sauer, *Methodists in Korea (Part Three): Divided Years (1945-1950)*, 48.

- 7 “Legal Holding Body,” *AMMK* (November 7, 1963).
- 8 *AMMK* (October 8, 1953); “The Executive Committee,” *AMMK* (June 1, 1954); “The Executive Committee,” *AMMK* (July 2, 1954);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 182-184.
- 9 “여성교사 임명기,” 『조선감리회보』(1948년 7월 25일): 1-2.
- 10 “선교사 임명기,” 『대한감리회보』(1949년 12월 25일): 3.
- 1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국방군사연구소, 1996), 28-29.
- 12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II』, 733.
- 13 남성 선교사는 크리스 젠센, 로렌스 젤러스, 어니스트 키쉬가 있었다. 로렌스 젤러스 지음, 임연철 편역, 『적의 손아귀에서 - 한국전 포로, 어느 선교사가 겪은 죽음의 행군』(밀알북스, 2023).
- 14 “나도 한국사람... 6.25에 젊음 바친 미국인 용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61423.
- 15 *AMMK* (January 15, 1953): 1. 후에 실행위원은 몇 명 더 늘어났다.
- 16 *AMMK* (June 20, 1952): 2.
- 17 *AMMK* (June 17, 1953): 2.
- 18 김흥수,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년대의 기독교 연합사업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3(2010), 81-108.
- 19 최종수, 『한국을 위해 몸바친 나 애시덕 선교사』, 87.
- 20 *AMMK* (June 17, 1953); “연회 임명기,” 『감리회보』(1953년 5월): 4.
- 21 왕매련, 『한국에 온 그리스도의 대사 케이트 쿠퍼』, 양재서 옮김(kmc, 2004), 59.
- 22 윗글.
- 23 *Korea Rehabilitation and Planning Conference* (June 22-30, 1954): 1.
- 24 윗글.
- 25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216-217.
- 26 “MCOR 예산안,”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May 26, 1955),
- 27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February 9, 1955): 1.
- 28 “Officers and Committees,” *AMMK* (Dec. 8, 1954): 1.
- 29 참조. *AMMK* (December 3, 1953): 2.
- 30 참조. *AMMK* (July 2, 1954): 3.
- 31 *AMMK* (December 7-8, 1954).
- 32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May 26-27, 1955).
- 33 *AMMK* (June 17, 1953): 2.
- 34 참조. “한국중앙협의회 사업비 예산,” (June 30, 1966).
- 35 호수돈여자중고등학교, 『호수돈백년사 1899-1999』(홍익전자출판, 1999), 249.
- 36 참조. “Finance Committee Report on Recommendations,” *MCC* (January 29, 1964); 호수돈여자중고등학교, 『호수돈백년사 1899-1999』, 254, 264, 289.
- 37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214.
- 38 참조.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양서원, 1996).
- 39 *AMMK* (October 8, 1953): 2.
- 40 *AMMK* ((June 17, 1953); “Executive Committee,” *AMMK* (July 2, 1954): 2.
- 41 “Property Committee” of the *AMMK* (December 11, 1958).
- 42 “WDCS Transportation Committee Minutes,” *AMMK* (March 26, 1958).
- 43 *AMMK* (December 7-8, 1954): 3.
- 44 “Minutes of the Executive Committee,” *AMMK* (June 9, 1955): 2; “Property Committee Meeting,” *AMMK* (March 27; 1958); “Property Committee,” *AMMK* (June 12, 1958).
- 45 사월, “스웨니 부인 동해안애,” 『감리교생활』(1959년 4월): 71-72.
- 46 “임명기 부록,” 『감리회보』(1956년 4-5월).
- 47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 213-234.
- 48 윗글, 690-691.
- 49 “Legal Holding Body,” *AMMK* (March 3, 1971).
- 50 심순덕, 황우선, 『예수를 닮은 여인, 미스 레어드』(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00), 54.
- 51 최종수, 『한국을 위해 몸바친 나 애시덕 선교사』, 72.
- 52 참조. *AMMK* (June 17, 1953); 윤춘병, 『한국 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감리교본부 교육국, 2001), 169.
- 53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107-108; “Property Committee Meeting,” *AMMK* (November 5, 1957).

제 4 장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의 활동 III(1958-2007년)

- 1 “Recommendation,” *MCC* (Feb. 27, 1958)=“선교사업에 관한 건의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

- 일동(1958년 2월 12일); "Our Recommendation and Desire," AMMK (February 27, 1958)="우리의 주장과 희망,"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일동(1958년 2월 12일); "Laymen's Request with Regard to Missionary Work in Korea," MCC (Feb. 27, 1958).
- 2 MCC (Feb. 27, 1958): 2.
 - 3 참조. MCC (January 29, 1964): 4.
 - 4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교회 성장사』(서울: 감리교 출판부, 1997), 854.
 - 5 "WDCS Askings 여성교부 예산," MCC (May 28, 1965).
 - 6 윗글.
 - 7 "Executive Committee," AMMK (March 16, 1962).
 - 8 "Overseas Property Held by the Women's Division: Joint Statement of the Women's Division and former World Division," *Women's Division Financial Policy* (March 1972).
 - 9 "Executive Committee," AMMK (January 12, 1962).
 - 10 "Korean Methodist Church Central Committee Minutes of Meeting held on June 30, 1966."
 - 11 "The Legal Holding Body," AMMK (March 6, 1963).
 - 12 "The Legal Holding Body," AMMK (September 11, 1964).
 - 13 "The Legal Holding Body," AMMK (November 12, 1964); "The Legal Holding Body," AMMK (January 7, 1965).
 - 14 "The Legal Holding Body," AMMK (November 12, 1964)
 - 15 "Property Committee Meeting," AMMK (April 17, 1958).
 - 16 "Property Committee," AMMK (June 12, 1958).
 - 17 "The Legal Holding Body," AMMK (November 12, 1964)
 - 18 "The Legal Holding Body," AMMK (January 7, 1965).
 - 19 "The Legal Holding Body," AMMK (June 17, 1955); AMMK (July 3, 1957).
 - 20 Minutes of Central Council Meeting (May 28, 1964): 2.
 - 21 "Property Committee," AMMK (June 12, 1958); MCC (January 29, 1964): 4.
 - 22 "Property Committee," AMMK (June 12, 1958).
 - 23 "The Legal Holding Body," AMMK (May 9, 1963).
 - 24 "The Legal Holding Body," AMMK (September 10, 1964).
 - 25 "The Legal Holding Body Minutes," AMMK (March 12, 1964): 2.

- 26 "Legal Holding Body," AMMK (May 9, 1968).
- 27 "Position Paper on Property Transfer" in the "Legal Holding Body," AMMK (April 8, 1970): 3.
- 28 "Legal Holding Body," AMMK (April 10, 1974).
- 29 윗글.
- 30 "Legal Holding Body," AMMK (June 26, 1974).
- 31 윗글.
- 32 "Legal Holding Body," AMMK (April 8, 1970): 3-4.
- 33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제2차 이사회회의록"(1980년 3월 31일).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 303에서 인용.
- 34 윗글, 『태화 100년사』, 305에서 인용.
- 35 윗글, 『태화 100년사』, 310에서 인용.
- 36 참조. "재정이양 재산목록 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11회 총회록 부록』(1970), 19-21.
- 37 "Minutes of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AMMK (March 8, 1974).
- 38 "Property Office Report," AMMK (Nov. 10, 1970); "Legal Holding Body Minutes," AMMK (May 6, 1971).

참고문헌

-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 중부, 서부, 연합년회회록」
- 「남감리교회 서베리아선교처 조선인사업부 연회록」
- 「조선감리회년회록」(「조선예수교감리회 년회일기」, 「북감리회 년회일기」, 「예수교미감리회조선년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회록」
- 구례함. “고려여자관사업.” 양주삼 편찬, 『한국남감리교회삼십년기념보』, 121-122.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구타펠, 미네르바. 『조선의 소녀 옥분이: 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 이형식 옮김. 파주: 살림, 2008. 원제 *The Happiest Gir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 기태부. “감리교협성신학교에 대하여.” 『신학세계』 제14권 4호(1929), 70.
- 김서커스. “은혜만은 나의 생활.” 노블 부인 편저, 『승리의 생활』, 71-76. 조선예수교서회, 1927.
- 김세디. “나의 과거생활.” 노블 부인 편저, 『승리의 생활』, 34-48. 조선예수교서회, 1927.
-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 김은정. “무명(無名)한 자에서 유명(有名)한 여성으로: 초기 개신교 여성의 이름과 선교적 의의.” 『선교와 신학』 58(2022): 63-91.
- 김홍수.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년대의 기독교 연합사업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2010): 81-108.
-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런던, 펄. “해주 루시스룻기념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96-198.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레어드, 에스더. “원주기독교여자사회관[원주기독교여자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16-219.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로버츠, 엘리자베스. “서울지방 의료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2-50.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로즈, 해리.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최재건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원제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1 (1884-1934)*.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t. of Education, 1934
- 로젠버거, 엘마. “서울사회복음센터[태화사회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96-100.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로젠버거, 엘마. “서울지방 공중위생 및 아동보건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02-106.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모리스, 루이즈. “영변지방 1903-193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73-178.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모리스, 루이즈. “원주·강릉지방 1911-193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22-230.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밀러, 롤라. “동산(수원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06-215.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박경식.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박경옥 옮김. 고즈윈, 2008.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김도형 옮김. 한국학술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 총서 동양편 107. 서울: 소명출판, 2008. (상해: 유신사, 1920)
- 발로우, 제인. “해주지방 전도사업(1901-1937).”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01-204.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보딩, 마렌. “공주지방 공중위생사업 및 유아보건센터[영아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88-196.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보일즈, 헬렌. “영변지방 교육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66-172.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보일즈, 헬렌. “평양지방 소학교, 정진소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21-128.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브라운리, 샬롯. “유치원, 보육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91-94.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사월. “스웨니 부인 동해안에.” 『감리교생활』(1959년 4월): 71-72.
- Sauer, Charles A. 편. 『은자의 나라 문에서: 감리교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자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원제 C. A. Sauer, ed., *Within the Gate*. Seoul: The Korea Methodist News Service, 1934.
- 샤프, 엘리스. “공주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84.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샤프, 한나. “홍성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36-242.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성백걸. 『배화백년사(1898-1998)』. 배화학원, 1999.
- 소영현. “일제강점기 기숙사의 공간성과 여학생의 이동성.” 서울역사편찬원,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68-105. 서울역사 중점연구 7; 서울책방, 2020.
- 송현강. 『대전·충남 지역 교회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스네이블리, 거트루드. “이천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33-235.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Stokes, Charles D.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장지철, 김홍수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엮음. 『윌리엄 B. 스크랜턴 서신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심순덕, 황우선. 『예수를 닮은 여인, 미스 레어드』.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00.

-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法人化) 정책 -1920년대 선교회·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2009): 123-161.
- 앤더슨, 나오미. “평양지방 의료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32-136. 굿윌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양주삼. “조선남감리교회소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42-61.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어원. “철원지방여성선교사업.”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15-117.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예지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6-15. 서울역사 중점연구 7; 서울책방, 2020.
- 오리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역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03-105.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대한간호협회, 2011.
- 왕매련. 『한국에 온 그리스도의 대사 케이트 쿠퍼』, 양재서 옮김. kmc, 2004.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I』.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II』.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대한간호협회, 2017.
-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 감리교본부 교육국, 2001.
-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교회 성장사』. 서울: 감리교 출판부, 1997.
- 윤춘병.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사』. 동부연회역사편찬위원회, 1996.
- 이경숙, 이덕주, 엘렌 스완슨, 『한국을 사랑한 메리 스크랜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이덕주. 『한국감리교여성선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 이덕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1921-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93.
- 이덕주,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공옥출판사, 2014.
- 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독립운동의 요람』. 그물, 2015.
- 이덕주, 김홍수, 서영석. 『한국 감리교회 역사』. kmc, 2017.
- 이덕주, 최태욱, 『태화 100년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2021.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1886-1986』.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화의료원 역사편찬위원회. 『이화 의료 이야기: 보구녀관에서 이화의료원까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임연철. 『이야기 사애리시』. 신앙과지성사, 2019.
- 전삼덕. “내 생활의 약력.” 노블 부인 편, 『승리의 생활』, 6-13. 조선야소교서회, 1927.
- 젤러스, 로렌스. 『적의 손아귀에서 - 한국전 포로, 어느 선교사가 겪은 죽음의 행군』, 임연철 편역. 밀알북스, 2023.
- 차선. “춘천지방여자사업.”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11-112.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처치, 마리. “여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74-280.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채부인. “예수께서 보신 여자의 지능과 영능.” 『신학세계』 제17권 1, 2합호(1932), 126-133.
- 채핀, 안나. “만주 선교사업(북만주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82-283.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최병천. “두령바위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새가정』 378(1988. 3): 22-28.
- 최종수. 『한국을 위해 몸바친 나 애시덕 선교사』.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 트릭슬, 모네타. “여자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63-271.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페인, 줄라. “여성 의료교육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246-254.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자료총서 제25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행길. “미리흠여학교역사.”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교회 30주년 기념보』, 106-110. 조선남감리교회 전도국, 1930.
-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양서원, 1996.
- 헐버트, 에스더. “정의고등여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46-

- 152.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헤스, 마가렛. “물결(제물포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07-120.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헤인즈, 아이린. “북쪽 지역의 교회성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40-145.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헤인즈, 아이린. “평양여자성경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편, 『빛의 50년』, 161-165. 굿올드북스, 2021. 원제 Missionaries of 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 Years of Light* (Seoul: YMCA Press, 1938).
- 호수돈여자중고등학교. 『호수돈백년사 1899-1999』. 홍익전자출판, 1999.
- “경성부내 유아사망률 5년 동안의 통계는 이리하다.” 『동아일보』(1926년 8월 24일): 2.
- “공주기독교병원 영아부를 새로 설립.” 『동아일보』(1926년 6월 7일): 3.
- “기독교조선감리회 서부, 중부, 동부, 만주 연회통계표(1939).”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조선감리회년회록 15(1931-1940)』(기독교대한감리회, 1984), 2-32.
-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 제1회 대회.” 『기독신보』(1931년 6월 10일): 4.
- “‘나도 한국사람’ … 6.25에 젊음 바친 미국인 용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61423.
- “남녀교역자의 이력서.” 양주삼 편찬, 『조선남감리회 30년 기념보』, 151-284.
- “녀자계에 깃븐 졸업식 후문.” 『기독신보』(1917년 5월 2일).
- 대한민국 상훈 <https://www.sanghun.go.kr/nation/participation/sangopen/sangInfoOpen.do>(2023년 12월 24일 접속).
- 문화재청.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문화재 등록” 보도자료(2022년1월 5일).
- “북감리녀선교회 총회.” 『기독신보』(1926년 7월 7일): 3.
- “선교사 임명기.” 『대한감리회보』(1949년 12월 25일): 3.
- “양주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중 “Gentlemen” 문서(an_025_0090). <http://db.history.go.kr>.
- “양주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중 “피의자신문조서” 문서(an_025_0080). <http://db.history.go.kr>

- “여전도사의 대불평.” 「매일신보」(1922년 9월 17일).
- “여선교사 임명기.” 「조선감리회보」(1948년 7월 25일): 1-2.
- “연회 임명기.” 「감리회보」(1953년 5월): 4.
- “우리에게 밥을 다오.” 「동아일보」(1926년 4월 24일).
- “인천에도 여의원.” 「동아일보」(1921년 7월 4일): 3.
- “임명기 부록.” 「감리회보」(1956년 4-5월).
- “정명여교의 신축낙성.” 「조선일보」(1924년 11월 28일): 2.
- “재정이양 재산목록 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11회 총회록 부록」(1970), 19-21.
- “조선 최초 여의전 십구일 창립대회를 열었다고.” 「동아일보」(1928년 5월 20일)
- “홀여사의 30년 제근 축하.” 「기독신보」(1926년 10월 27일).
- Board of Missions of the MEC. *Missionary Yearbook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Nashville, TN: Publishing House of the MECS.
- Albertson, M. M. “The L. C. Rothweiler Bible Training School.” *KWC* (1917): 27-35
- Allen, Horace N.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American Residents in Korea*. Seoul: U. S. Legation and Consulate General, 1899.
- Anderson, A. G. “Pyongyang Union Christian Hospital.” *MEC* (1926): 246-247.
- Anderson, Mrs. A. G. “Public Health and Child Welfare.” *KWC* (1928): 34-36.
- Appenzeller, H. G. “Reports of Pastors.” *MEC* (1899): 25-26.
- Appenzeller, Alice R. “The Need of Social Work Among the Women of Seoul.” *KMF* (April 1918): 77-79.
- Bair, Blanche. “Blind People in Seoul.” *KMF* (February 1929): 39-40.
- Baker, Frances J. *The Story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69-1895*. Revised Ed.; New York: Eaton & Mains, 1898.
- Beaver, R. Pierce, *All Loves Excelling: American Protestant Women in World Mission*. Eerdmans, 1968.
- Bernheisel, Chas. F. “Another Twenty-Fifth Anniversary.” *KMF* (August 1918): 177-178.
- Bigger, J. D. “Evolution of Medical Work in Pyongyang.” *KMF* (March 1925): 62-63.
- Bording, Maren.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Work.” *KWC* (1927): 22-25.
- Bording, Maren. “Kongju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KWC* (1928): 19-21.

- Bording, Maren P. “Kongju and Taiden Infant Welfare.” *KMF* (March, 1939): 52-53.
- Bording, Maren. “A Public Health Aeroplane Trip from North to South in Korea.” *KMF* (May 1940): 81-83.
- Cable, E. M. “Kongju District.” *MEC* (1909): 83-88.
- Cable, Myrtle and Alice Sharp, “Evangelistic Work Kong Ju District.” *KWC* (1909): 69-79.
- Campbell, J. P. “Communication from Mrs. Campbell.” *MECS* (1897): XV- XVII.
- Campbell, J. P. “Woman’s Work.” *MECS* (1898): 21-22.
- Campbell, J. P. “General Report of Work in Korea under the Woman’s Foreign Mission Board, together with Report of Carolina Institute for Year Ending Sept. 30th, 1901.” *MECS* (1901): 19-22.
- Campbell, J. P. “Seoul.” *WFMSS* (1909), 44
- Campbell, Barbara E. *United Methodist Women in the Middle of Tomorrow* (Women’s Division,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United Methodist Church, 1975).
- Campbell, Barbara E. *Along the Journey: Vignettes of Predecessor Women’s Mission Organizations*. The Centennial Assembly Souvenir.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1985.
- Carroll. “Miss Carroll’s Report.” *MECS* (1905): 43-46.
- Chung, Choon Soo. “Report of Choonchun District.” *MECS* (1927): 55-57.
- Chung, Choon Soo. “Report of Choon Chun District.” *MECS* (1930): 49-50.
- Cobb, George C. “Report V—Tal Sung Church.” *MEC* (1899): 36-37.
- Collyer, C. T. “Condensed Report of the Songdo Circuit for the Year 1901.” *MECS* (1901): 22-24.
- Cooper, Kate. “Evangelistic Work, Wonsan District.” *WMC* (1923-1924): 307-308.
- Cooper, Kate. “The Bible Woman.” *Korea Magazine* 1 (January 1917): 6-10.
- Cutler, Mary M. and Margaret J. Edmunds. “Po Ku Nyo Kwan.” *KWC* (1904): 7-12.
- Cutler, Mary M. “Traveling Dispensary and Health Education.” *KWC* (1929): 38-40.
- Dyer, Nellie. “Mary Helm School, Songdo.” *WMC* (1937-1938): 249-250.
- Ernsberger, Emma. “Report VI: Baldwin Dispensary and Chapel, East Gate.” *KWC* (1902): 14-18.
- Erwin, Cordelia. “In Memory. Miss Ruby Rachel Kendrick.” *KMF* (August 1908): 118-119.
- Fowler-Willing, Jennie, Mrs. George Heber Jones. *The Lure of Korea*.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0.
- Hall, Rosetta Sherwood. “Woman’s Medical Work, Pyeng Yang.” *KWC* (1904): 48-50.

- Hall, Rosetta S. and Mary M. Cutler. "Koang Hyoe Nyo Won (Woman's Hospital of Extended Grace)." *KWC* (1913): 97-101.
- Hall, Sherwood. "Norton Memorial Hospital, Haiju." *MEC* (1928): 60-67.
- Hall, Ada B. "The Seoul Day Schools." *KWC* (1926): 55-58.
- Hall, Ada B. "Life Sketch of Ada B. Hall." (1945년 추정). Mission Bio Reel #38:1065,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Hall, Rosetta Sherwood. "The Woman's Medical Training Institute Ella Anthony Lewis' Memorial, Seoul." *KMF* (September 1928): 182-183.
- Hall, Rosetta Sherwood. "Medical Education for Women." *KMF* (1932): 182.
- Hammond, Sadie. "Cincinnati Branch." *HWF* (July 1883): 39-40.
- Hatch, Hazel. "Little Soonai and The School of Eternal Light." *KWC* (1924): 43-44.
- Hess, Margaret. "The Voice, Chemulpo District." *KWC* (1925): 7-10.
- Hillman, Mary M. "Mrs. M. F. Scranton." *KMF* (January 1910): 11-14.
- Hobbs, Edna VanFleet. "Charlotte Brownlee: A Pioneer." *KMF* (December 1939): 256-257.
- Hounshell, C. G. "Seoul Circuit." *MECS* (1905): 26-27.
- Isham, Mary, *Valorous Ventures*.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36.
- Jones, G. H. "Seoul District." *MEC* (1910): 34-43.
- Koons, E. W. "The Mariposa Comes to Jinsen." *KMF* (December 1940): 200-201.
- Lewis, E. A. "Evangelistic Work, Mead Memorial Church and South Korea District." *KWC* (1903): 26-28.
- Marker, Jessie B. "Seoul District." *KWC* (1929): 50-51.
- Miller, Lula A. "Korean Voices from Suwon." *KWC* (1924): 11-13.
- Morrison, Alta I. "Nurses' Training School." *KWC* (1910): 24-25.
- Moore, John Z. "Report of Pyeng Yang and Yeng Byen Districts 1926-1927." *MEC* (1927): 322-327.
- Moose, Mrs. J. R. "Mrs. Moose's Report." *MECS* (1904): 53-54.
- Moose, Mrs. J. R. "Report of Mrs. J. Robt. Moose." *MECS* (1909): 78-81.
- Myers, Mary D. "The Social Evangelistic Center for Women." *WMC* (1921-1922): 315.

-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New York: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20.
- Nichols, Lillian and Ida Hankins. "Holston Institute, Songdo." *WMC* (1921-1922): 316-317.
- Noble, Mattie W. "Evangelistic Work, Pyeng Yang." *KWC* (1903): 47-50.
- Noble, Mattie W. "Report of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Three Day Schools, Pyeng Yang." *KWC* (1907): 44-49.
- Noble, W. A., Mrs. Noble, & Jessie Marker. "Evangelistic Work, Seoul District." F. E. C. Williams and Gerald Bonwick, ed.,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60-61.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8.
- Overman, Belle. "Eui Chung Girl's School Report for 1925." *KWC* (1925): 26-27.
- Overman, Belle. "Report of Eui Chung Girl's School at Haiju." *KWC* (1926): 24-26.
- Pak, Esther 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KWC* (1903): 13-14.
- Paik, L.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Yonsei University Press, 1971.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7).
- Pierce, Nellie. "Bible Woman's Training School, Evangelistic Work Mead Memorial Church and South Korea District." *KWC* (1903): 15-22.
- Reed, Lillie M. "In the Steps of Great Physician." *MV* 7.2 (February 1917): 52-53.
- Reid, C. F. "Superintendent Report." *MECS* (1897): III-X.
- Robins, "Henrietta P. Day, Normal, and Blind Schools and Evangelistic Work on Pyeng Yang District." *KWC* (1911): 48-53.
- Rosenberger, Elma T. "Soy Bean Milk and Feeding Procedure." *KMF* (June 1931), 133-134.
- Ross, J. B., W. T. Reid, Gilberta Harris. "Medial Work." *MECS* (1911): 56-61.
- Rothweiler, Louisa C. "Our Work in Korea." *KMF* (October 1909): 166-169.
- Ryang, J. S. "Report of the Conference Board of Missions." *MECS* (1927): 52-54.
- Ryang, J. S. "Report of Seoul District for 1929-1930." *MECS* (1930): 54-56.
- Sauer, Charles A.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KMF* (March 1941): 37-39.
- Sauer, Charles A.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 Sauer, Charles A. *Methodists in Korea (Part Three): Divided Years (1945-1950)*.

- Scranton, W. B. "Notes from Korea." *GAL* (1888): 373.
- Scranton, Mary F. "New England Branch." *HWF* (1884): 188-189.
- Scranton, M. F. "Sang Dong and Southern District." *KWC* (1906): 8-9.
- Scranton, M. F. "Woman's Work in Korea." *KR* (January 1896): 2-9.
- Sharp, Alice H. "Evangelistic Work and Country Schools in Kong-Ju District." *KWC* (1912): 55-59.
- Snavely, Gertrude E. "Evangelistic Work and Day Schools on the Haiju District and Island Circuits of the Seoul District." *KWC* (1911): 40-47.
- Strawn, Lee-Ellen. "Korean Bible Women's Success: Using the Anbang Network and the Religious Authority of the Mudang." *Journal of Korean Religions* 3.1 (April 2012): 118-149.
- Thomasson, Gus W. "The Moving Spirit of Ruby Kendrick Memorial." *MV* 7.8 (August 1917): 248-249.
- Tinsley, Hortense.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the Ordination of Women." *KMF* (October 1931): 213-214.
- Walter, Jeannette. "Chung Eui Higher Common School." *KWC* (1926): 34-37.
- Wagner, Ellasue C. "Report of Miss Wagner." *MECS* (1907): 48-52.
- Wagner, Ellasue C. "Social Evangelistic Center, Songdo." *WMC* (1923-1924): 301-303.
- Wagner, Ellasue. "Woman's Evangelistic Center, Songdo." *WMC* (1925-1926): 299-300.
- Wagner, E. "The Center." *KMF* (December 1930): 259-261.
- Wagner, Ellasue and Alice McMakin, "Holston Institute, Songdo." *WMC* (1939-1940): 218-219.
- Wasson, A. W., J. Campbell, J. R. Moose, J. L. Gerdine. "Report of Committee on Education." *MECS* (1909): 90-94.
- Wasson, Alfred W.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 Weems, C. N. "Report of the Songdo District." *MECS* (1930): 56-59.
- Williams, F. E. C. "Chunan District." *MEC* (1920): 38-39.
-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anual for Missionaries and Missionary Candidates*.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3.
- Yui, Ling-Tsu. "Report of Work Among Women at Chat Kol, Seoul." *MECS* (1901): 28-29.
- "Appointments." *MEC* (1915): 29.

- "Appointments," *MECS* (1926): 43.
- "The Basis of Withdrawal." *KMF* (March 1941): 33-35.
- "District Statistic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KWC* (1928): 83.
- "Editorial Notes." *KMF* (June 1918): 115-116.
-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HWF* (December 1884): 121-139.
- "Finance Committee Report on Recommendations." *The Minutes of Central Council Meeting* (January 29, 1964).
- "Laymen's Request with Regard to Missionary Work in Korea." *Central Council Minutes* (Feb. 27, 1958).
- "MCOR 예산안." *Minutes of the Rehabilitation Committee* (May 26, 1955).
- "Minutes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KWC* (1917): 5.
- "Our Recommendation and Desire." *AMMK* (February 27, 1958)="우리의 주장과 희망,"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일동(1958년 2월 12일)
- "Overseas Property Held by the Women's Division: Joint Statement of the Women's Division and Former World Division." *Women's Division Financial Policy* (March 1972).
- "Recommendation." *MCC* (Feb. 27, 1958)="선교사업에 관한 건의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 일동(1958년 2월 12일)
- "Statistical Table No. 5." "Statistical Table No. 6." *MECS* (1927).
- "Statistical Table No. 6." *MECS* (1928).
- "Statistical Table No. 3." *MECS* (1928).
-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Property." *MEC* (1928): 76.
-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MEC* (1930): 275.
- "Statistics Korea Annual Conference, Property." *MEC* (1930): 270.
- "Statistics of Woman's Work." *MECS* (1910).
- "Statistics of Medical Work." *MECS* (1910).
- "Summary of Work in the Korea Conference for Year Ending March 1916." *KWC* (1916): 192.
- "Wonsan." *MECS* (1911): 25-28.

“64 합의문” The Agreements of 64

The reorganization of the Methodist Board of Missions in 1964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Women's Division and the total Board. It changed program administration and director memberships; initiated staff guarantees for women; and established new patterns of funding mission program/projects, and mission education.

Changes were implemented by submitting legislative proposals to the 1964 General Conference based on the “Agreements”. These principles (as legislation), were confirmed by the General Conferences of 1968 (church union), 1972 (total restructure of all general agencies), 1976, 1980, 1984, and 1988. They were all specifically highlighted and reconfirmed within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during an internal reorganization 1982-1984 (See Plan to Achieve Structural and Administrative Flexibility, adopted October 1983, pages 8-9).

The Agreements were/are:

1. Program administration of women's Division home and overseas mission work, along with designated education and cultivation functions, are lodged in the National and World Divisions, and Mission Education and Cultivation unit of the Board;
2. Membership in each of the new divisions was to be 50% women, not counting bishops.

A separate General Conference action in 1972, which for the first time provided for women members of the Board in addition to those elected through UNITED METHODIST WOMEN channels, necessitated a restatement

of this agreement: membership of each division is to be 50% women, the majority of whom are also members of the Women's Division. The 1982-1984 reorganization (above) voids the “majority” membership provision.

3. Women's Division continues its ownership of property in which World and National Divisions carried on work; and ownership of the Service Center.
4. Guarantees were written to require that 40% of the total Board staff be women, with additional guarantees for women in the two high levels of executive responsibility. The 1964 statements have been rewritten, but retain the 40% formula (¶ 1410).
5. The Women's Division continues to provide funds to the divisions and units now administering its work.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Agreements” continue to determin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actice:

1. The Women's Division does not have direct administration of national or world mission projects/programs.
2. All Women's Division directors hold two division memberships: Women's Division AND National Division OR the World Division.

The Board reorganization of 1982-84 provided that in addition to division membership, all directors also hold membership on a program department OR a Board Committee.

¶ 1424 (1988 DISCIPLINE) authorizes the Women's Division to name persons from its Executive Committee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World and National Divisions; and Mission Education and Cultivation Program Department.

3. ¶ 1409.2 and ¶ 1410.2 of the 1988 DISCIPLINE outlines staff guarantees for women.
4. World and National Divisions submit all matters related to Women's Division-owned property to the Women's Division Property Committee for approval before being submitted to either division. As property-owner, the Women's Division has major expenditures annually for maintenance, repair, and new construction.
5. Each year the World and National Divisions, Mission Education and Cultivation Program Department and Board of General Administration bring budget requests to the Women's Division Committee on Appropriations. Final recommendations for funding these units are approved by the Division as parts of the Division's annual budget.
6. The Women's Division has several permanent funds designated for world and national missions which are administratively released to the respective units through the Docket process.

For a fuller explanation, see *United Methodist Women: In The Middle of Tomorrow*, pages 147ff, 166ff; and Women's Division "10-Year Review", Appendix D, *Journal*, October 1975, pages 18-19, 30.

Financial Policy of Women's Division 여성국의 재정 정책

Overseas Property Held by the Women's Division (Joint Statement of The Women's Division and former World Division)

A lengthy statement was adopted which says in part:

It has long been the policy of the Women's Division with regard to overseas property to which the Division (or one of its predecessor organizations) hold title that such property be transferred to duly constituted legal property holding bodies in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It is the policy of the Women's Division and the former World Division now Mission Contexts and Relationships and Community and Institutional Ministries that when property to which the Women's Division owns title is transferred to an overseas holding body, the action of transfer includes a provision that if at some future time the property no longer serves the interest of women overseas and/or if the overseas women are no longer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perty transferred, the decision as to future use of the property will revert again to the joint action of the Women's Division and Community and Institutional Ministries.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whatever recommendations may be provided by the overseas church or institution involved.” (FP, 1528-1529)

March 1972

메리스크랜턴여성센터 및 글로벌여성리더십센터의 창립 안내 편지

December 6, 2006

Bishop Shin Kyung Ha, President

Council of Bishops

Korean Methodist Church

16th Floor

64-8 Tae Pyung Ro 1 ka,

Choong Ku

Seoul, Korea 110-602

Dear Bishop Shin:

Greetings to you in the name of Christ who comes to us as the Prince of Peace in this season of Advent.

It was good to meet you at the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in Jeju Island in July this year. I was very impressed by the hospitality of Korean WSCS and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hosting women from all around the world. I also heard of your superb leadership in the World Methodist Conference which led to a success unmatched by any Methodist Conferences in the past. So,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in all that you have accomplished this year.

I am writing to let you know of an exciting venture that Women's Division is embarking on in Korea. Women's Division takes great pride in starting Ewha School for Girls 120 years ago. Over the years; we have supported Ewha, both the High School and the University in various ways. Today, both of those schools have grown far beyond what

Women's Division has ever dreamed of. Our relationship has become more like sisters and partners from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of the past.

This year, our partnership with Ewha High School has been concretized when she purchased our property in Chung Dong with an agreement to build the Mary Scranton Center for Women on the site. Ewha has also agreed to foster our partnership by allowing us to use their school facilities for Women's Division programs held in Korea. This is a history making venture that our two institution have created together in order to continue the legacy of 120 years.

With the money generated from the sales, Women's Division will continue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Methodist women, ecumenical women's groups and other Asian partners to continue our mission with women children and youth.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omen's Division will create an International Women's Center in Korea. Rev. Hea Sun Kim and Rev. Yani Yoo, both of whom you know well, will manage the programs of the center as staffs of the Women's Divisio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has grown to a prominent leadership in God's mission around the world. We are so grateful that Women's Division has this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women in Korea. I ask for your blessing and support in our new endeavor in achieving our common goal as faithful stewards of God' lov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We will keep you posted of the upcoming progress of Women's Division's international ministries in Korea. In the mean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the Women's Division.

Many blessings on your and your work in this joyous season.

Sincerely,

Jan Love

Deputy General Secretary

Women's Division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cc. Dr. Dwight Strawn, Ms. Eun Young Choi, Rev. Hea Sun Kim, Rev. Yani Yoo,

부록 4

미국 감리교회 여성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

소속 선교부 약어

WFMS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WMC 남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

MEC 미감리교회

UMC 연합감리교회(1939/1968~)

MECS 남감리교회

※ 굵은 글씨는 30년 이상 사역한 경우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Scranton, Mrs. Mary F.	1885-1909	WFMS	1909년 별세(양화진)
Scranton, Mrs. W. B.	1885-1922	MEC	M. F. Scranton의 며느리
Bunker, Mrs. D. A.	1886-1926	MEC	북장로회 선교사(A. Ellers)였다가 1888년 결혼
Howard, Meta L.	1886-1890	WFMS	의사선교사
Rothweiler, Louisa C.	1886-1899	WFMS	1921년 별세
Ohlinger, Mrs. F.	1887-1893	MEC	1919년 별세
McGill, Mrs. W. B.	1889-1906	MEC	
Sherwood, Rosetta Hammond(허을)	1890-1930	WFMS	의사선교사, 1891년 결혼(Mrs. W. J. Hall), 1951년 별세, 국민훈장 모란장(2024)
Margaret Bengel	1890-1909	WFMS	1893년 결혼(Mrs. G. H. Jones)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Hardie, Mrs. R. A.	1890-1935	MECS	캐나다 대학 YMCA의 파송으로 내한하여 1898년 남감리교회 소속
Lewis, Ella A.(유익선)	1891-1927	WFMS	간호사선교사
Paine, Josephine O.(폐인)	1892-1909	WFMS	1909년 별세
Cutler, Mary M.(거달리)	1892-1939	WFMS	1948년 별세
Noble, Mrs. W. A.	1892-1935	MEC	
Busteed, Mrs. J. A.	1892-1897	MEC	
Frey, Lulu E.(부라이)	1893-1920	WFMS	1921년 별세
Hulbert, Mrs. H. B.	1894-1907	MEC	
Harris, Mary W.	1895-1920	MEC	1894년 결혼(Mrs. E. D. Follwell)
Reid, Mrs. C. F.	1896-1901	MECS	1901년 별세
Swearer, Mrs. W. C.	1896-1940	MEC	
Collyer, Mrs. C. T.	1897-1909	MECS	
Pierce, Sarah Ellen "Nellie"	1897-1937	WFMS	1905년 결혼(Mrs. H. Miller); 1944년 별세
Harris, Lillian	1897-1902	WFMS	의사선교사, 1902년 별세
Campbell, Mrs. Josephine P.(강모인)	1897-1920	WMC	1920년 별세
Hinds, Fammie(한인수)	1898-1933	WMC	1900년 결혼(Mrs. M. C. Fennwick)
Cobb, Mrs. G. C.	1898-1910	MEC	
Sherman, Mrs. H. C.	1898-1900	MEC	
Cram, Mrs. W. G.	1898-1922	MECS	
Ernsberger, Emma	1899-1920	WFMS	의사선교사, 1934년 별세
Becker, Mrs. S. A.	1899-1919	MEC	1912년 결혼
Cable, Mrs. E. M.	1899-1940	MEC	
Carroll, Arrena	1899-1919	WMC	1899년 결혼(Mrs. Collyer)
Moose, Mrs. J. R.	1899-1924	MEC	
Pak, Mrs. Esther K.(박에스터, 김점동)	1900-1911	WFMS	첫 한국인 의사선교사, 1911년 별세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Hillman, Mary R.	1900-1928	WFMS	1928년 별세
Hammond, Alice J.(사애리시)	1900-1939	WFMS	1903년 결혼(Mrs. R. A. Sharp), 국민훈장 동백장(2020)
Estey, Ethel M.(에시치)	1900-1923	WFMS	1929년 별세
Albertson, Millie May(알비순)	1900-1918	WFMS	1918년 별세
Miller, Lula A.(미라)	1901-1938	WFMS	
Miller, Sarah H.	1901-1903	WFMS	
Knowles, Mary H.	1901-1917	WMC	1906년 결혼(Mrs. J. B. Ross), 1917년 별세
Harbough, Sadie B.	1901-1928	WMC	1906년 결혼(Mrs. Hirst)
Hounshell, Mrs. C. G.	1901-1908	MECS	
Edmunds, Margaret J.	1902-1908	WFMS	간호사선교사, 1906년 결혼
Robbins, Henrietta P.(라빈수)	1902-1936	WFMS	
Hounshell, Josephine	1902-1907	WMC	1907년 결혼(Mrs. L. O. McCutchen)
Gerdine, Mrs. J. C.	1902-1936	MECS	
Guthapfel, Minerva L.	1903-1912	WFMS	건국포장(2015)
Critchett, Mrs. C.	1903-1909	MEC	
Chew, Mrs. N. D.	1903-1916	MEC	
Becker, Mrs. A. L.(백아덕)	1903-1948	MEC	
Wagner, Ellasue C.(왕래)	1904-1940	WMC	
Marker, Jessie B.(마커)	1905-1940	WFMS	
Deming, Mrs. C. S.	1905-1938	MEC	
Wasson, Mrs. A. W.	1905-1925	MECS	
Ivey, M. M.	1905-1918	MECS	1920년 별세
Erwin, Cordelia(어원)	1905-1934	WMC	
Snavelly, Gertrude E.	1906-1940	WFMS	
Haynes, E. Irene(헤인수)	1906-1940	WFMS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Williams, Mrs. Frank E. C.	1906-1940	MEC	
Nichols, L.	1906-1947	WFMS	
Myers, Mary D.(마의수)	1906-1934	WMC	
Norton, Mrs. A. H.(노돈)	1906-1926	MEC	
Hallman, Sarah B.	1907-1919	WFMS	간호사선교사, 1912년 결혼 (Mrs. S. A. Beck)
Taylor, Mrs. C.	1907-1922	MEC	
Kendrick, Ruby	1907-1908	WMC	1908년 별세
Batey, M. I.	1907-1913	WMC	1911년 결혼(Mrs. E. L.Peerman)
Hitch, Mrs. J. W.(허아각)	1907-1927	MECS	
Stokes, Mrs. M. B.(도마연)	1907-1940	MECS	
Thompson, Mrs. J. A.	1907-1914	MECS	
Taylor, Mrs. H. C.	1907-1922	MEC	
Tuttle, Ora M.	1908-1922	WFMS	
Rufus, Mrs. W. C.(류부수)	1908-1914	MEC	
Morrison, Alta I.	1908-1910	(WFMS)	(자원 간호사)
Loeber, Mrs. C.	1908-1910	MEC	
Billings, Mrs. B. W.	1908-1948	MEC	
Johnstone, M. C.	1908-1913	WMC	1913년 결혼(Mrs. E. H. Kagin)
Cooper, S. Kate(거포계)	1908-1957	WMC	1978년 별세
Mayes, Mrs. W. C.	1908-1910	MECS	
Gamble, Mrs. F. K.(감보리)	1908-1927	MECS	1908년 결혼(Beatrice Jenkins)
Van Buskirk, Mrs. J. D.	1908-1932	MEC	
Reppert, Mrs. R. R.	1909-1913	MEC	
Lawton, Mrs. B. R.	1909-1916	MEC	
Edwards, Laura(애도시)	1909-1940	W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Buie, Hallie(부의)	1909-1940	WMC	
Lowe, Elsie	1909-1912	WMC	1912년 결혼(Mrs. L. H. Snyder)
Weems, Mrs. Clarence Norwood (위입세)	1909-1965	MEC	
Shaffer, Olga P.	1910-1916	WFMS	
Scharpff, Hanna(쇄읍)	1910-1940	WFMS	1964년 별세
Haenig, Hulda A.	1910-1915	WFMS	1927년 별세
Benedict, Ruth E.(변혜덕)	1910-1941	WFMS	
Beiler, Mary	1910-1921	WFMS	1921년 결혼(Mrs. A. C. Biddle)
Miller, Mrs. I. M.	1910-1914	MECS	
Tinsley, Hotense(천실라)	1910-1934	WMC	1940년 별세
Smith, B. A.(시미혜)	1910-1953	WMC	
Alice D. Noyes	1910-1918	WMC	1947년 별세
Harris, Gilberta	1910-1916	WMC	간호사선교사
Higgins, Mrs. D. F.	1910-1913	WMC	
Deal, Mrs. C. H.(재일의)	1910-1928	MECS	
Stewart, Mary S.	1911-1935	WFMS	의사선교사
Anderson, Naomi	1911-1940	WFMS	간호사선교사, 1943년 별세
Walter, A. Jeannette(우백태)	1911-1933	WFMS	
Pye, Olive F.(파이)	1911-1931	WFMS	
Hillman, Amanda F.	1911-1914	WFMS	
Harmon, Grace L.	1911-1914	WFMS	1914년 결혼(Mrs. McGary)
Dillingham, Grace L.(단영함)	1911-1935	WFMS	
Weller, Mrs. O. A.	1911-1917	MEC	
Wachs, Mrs. V. H.	1911-1926	MEC	
Tuckei, A. B.	1911-1923	WMC	
Jackson, Carrie U.(차선)	1911-1949	W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Anderson, Naomi Almeda(안도선)	1911-1940	WFMS	간호사선교사, 1943년 별세
Hankins, Ida(신길아다)	1911-1940	WMC	1964년 별세
Reed, L. M.	1911-1916	WMC	1916년 결혼(Mrs. Smith, A.L.)
Bowman, Mrs. N. H.	1911-1913	MECS	
Summers, Laura	1911-1913	WMC	
Anderson, Mrs. A. G.	1912-1940	MEC	
Barlow, Jane	1912-1940	WFMS	
Owings, Mae	1912-1914	WFMS	
Oliver, Bessie O.(오리부)	1912-1957	WMC	
Turner, Mrs. V. R.	1912-1934	MECS	
Vesey, Mrs. F. G.(예시)	1912-1920	MECS	
Brownlee, Charlotte. G.(부래운)	1913-1940	WFMS	
Hess, Margaret I.(헤시)	1913-1940	WFMS	
Krook, Mrs. Ruby L.	1913-1914	WFMS	
Gaylord, Edith F.(계일로)	1913-1934	WFMS	
Graham, Agnes(구레함)	1913-1929	WMC	
Powell, Mrs. B. A.(방우일)	1913-1915	MECS	
Bair, Blanche R.(배의레)	1913-1938	WFMS	1938년 별세
Chaffin, Mrs. Anna B.(채부인)	1913-1962	WFMS	1911년 결혼(Mrs. V. D. Chaffin), 1977년 별세, 양화진 안장
Hardie, Eva	1914-1919	WMC	
Hulbert, Jeannette C.	1914-1950	WFMS	
Trissel, Maude V.(지리설)	1914-1940	WFMS	
Wood, Lulu A.	1914-1930	WFMS	
Pearce, Allene	1914-1918	WMC	
Edge, S.	1912-1914	WFMS	간호사선교사, 해주 구세병원 뒷동산 에 안장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Anderson, Mrs. E. W.(안열)	1914-1949	MECS	
Anderson, Mrs. L. P.	1914-1949	MECS	
Appenzeller, Alice R.	1915-1950	WFMS	1950년 별세
Raab, Rosa M.(우리비)	1915-1919	WFMS	
Salmon, Bessie. C.(사을문)	1915-1923	WFMS	
Church, Marie E.(최치)	1915-1947	WFMS	1931-46년 스웨덴에서 활동
Battles, D. M.	1915-1921	WFMS	간호사선교사
Gray, Ellie(구례의)	1915-1920	WMC	
Hardie, Bessie	1916-1919	MECS	
Appenzeller, Mrs. H. G.	1917-1987	MEC	1987년 별세(양화진)
Lowder, Rosa May	1917-1929	MECS	간호사선교사
Roberts, Elizabeth S.(우라부시)	1917-1949	WFMS	
Overman, L. B.(오보만)	1917-1934	WFMS	
Appenzeller, Mary Ella	1917-1931	MEC	1920년 결혼(Mrs. J. V. Lacy)
Amendt, Mrs. Charles C	1917-1950	MEC	
Appenzeller, Mrs. Henry. D.	1917-1953	MECS	
Raabe, Rosa M.(우리비)	1915-1917	WFMS	
McCubbins, Grace	1917-1920 (1929)	WMC	간호사선교사, 1920년 결혼(Mrs. J. B. Ross)
Stites, Mrs. Frank M	1917-1923	MECS	1925년 별세
Miller, Ethel(민예도)	1918-1940	WFMS	간호사선교사
Van Fleet, Edna M.(반불이)	1918-1935	WFMS	1935년 결혼(Mrs. Thomas Hobbls)
Harrington, Sylvia R.	1918-1921	WFMS	
Randle, Pauline G.(우란걸)	1918-1925	WMC	1925년 재내한 후 병으로 별세
Mingledorff, Mrs. Ozie Claud(민걸도)	1918-1924	MECS	
Grove, Nelda L.	1919-1932	WFMS	
Hill, Mrs. S. P.	1919-1927	MECS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Turner, Carre	1919-1924	WMC	1924년 결혼(Mrs. J. Townsend)
Young, Mary Elizabeth	1919-1940	WFMS	
Dicken, Ethel Mae	1919-1926	WFMS	1926년 결혼(Mrs. Fitts)
Grove, Nelda L.	1919-1932	WFMS	
Carter, Mrs. T. J.	1919-1942	MECS	
Fisher, Mrs. James Earnest	1919-1929	MECS	
Lewis, Mrs. R. H.(류의수)	1919-1940	MECS	
Royce, Edith M.(노의시)	1920-1930	WFMS	
Hatch, Hazel A.(하혜숙)	1920-1932	WFMS	
Butts, Ethel H.(백익수)	1920-1940	WFMS	
Rogers, Mayme Marie	1921-1936	WFMS	
Rosenberger, Elma T.(노선복)	1921-1940	WFMS	간호사선교사
Smith, Ada	1921-1928	WFMS	
Morris, Harriet P.	1921-1959	WFMS	
Hall, Ada B.(허을녀)	1921-1948	WFMS	
English, Marguerite G.(왕길리)	1921-1930	WFMS	
Shaw, Mrs. William E.(서위렴)	1921-1960	MEC	1971년 별세
Sauer, Mrs. Charles A.(사월)	1921-1962	MEC	1972년 별세
Andrews, Mrs. Thurman	1921-1923	MEC	
Hanson, Annie J.(한선)	1921-1923	WMC	
Furry, Alise(표어리)	1921-1926	WMC	간호사선교사
Cocke, Mabel	1921-1924	WMC	
Maynor, Mrs. Velma Hartly(미이나)	1921-1939	MECS	
Bray, Linda	1921-1924	WMC	
Mauk, Mary V.(목마리아)	1921-1926	WMC	
Shearhouse, Mrs. C. G.(사라시)	1921-1925	MECS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Cate, Mrs. W. R.(케이덕)	1921-1926	MECS	
Found, Mrs. N.	1921-1929	MEC	1971년 별세
McQuie, Ada(귀에다)	1922-1948	WFMS	
Kostrup, Bertha A.(고수도)	1922-1940	WFMS	
Bording, Maren P.(보아진)	1922-1938	WFMS	1916년 필리핀 선교사
Conrow, Marion Lane(간의로)	1922-1938	WFMS	
Miller, Marie	1922-1923	WFMS	
Carlson, Mrs. C. Fridolf(갈선)	1922-1927	MEC	
Hidy, Mrs. Kloria W.	1922-1924	WFMS	의사선교사
McMakin, Alice(맥매조)	1922-1940	WMC	
Lee, Ruby K(이보석)	1922-1940	WFMS	
Oldfather, J.(오파도)	1923-1950	WFMS	
Hulbert, Esther L.(홀법)	1923-1940	WFMS	
Cherry, J. Mabel(최리해)	1923-1940	WMC	
Goodlett, Mrs. Mary E.(구마리아)	1923-1935	WMC	
Houser, E. Blanche(후서)	1923-1929	WMC	
Kinsler, Marion	미상	WMC	1920년대 태화에서 활동
Howard, Annie Clara(허길래)	1923-1964	WMC	
Light, Margaret	1923-1930	WMC	1925년 결혼(W. W. Nash)
McManis, Mrs. S. E.(맹만수)	1924-1930	MEC	
Rosser, Helen	1924-1960	WMC	간호사선교사
Black, Nannie G.(부락기)	1924-1949	WMC	
Moore, Sadie Maude(모세득)	1924-1969	WFMS	1982년 별세
Stover, Myrta O.(서도보)	1925-1937	WFMS	
Troxel, Moneta J.(도락설)	1925-1940	WFMS	
Noble, Mrs. Alden E.	1925-1929	ME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Smith, Euline E.(시울인)	1925-1965	WMC	웬스 선교사와 결혼(Mrs. C. N. Weems)
Smith, Olive L.(심희애)	1925-1929	WMC	
Hunter, Alice	1926-1932	WFMS	
Laird, Esther J.(나애시덕)	1926-1966	WFMS	
Boyles, Helen E.(박일숙)	1926-1950	WFMS	
Hall. Mrs. Sherwood(하약)	1926-1940	MEC	의사선교사
Diggs, Ruth(지익수)	1926-1938	WMC	
Baker, Catherine L.(백가림)	1927-1940	WFMS	1907년 중국 선교사
Block, Berneta(부우락)	1927-1940	WFMS	의사선교사
Dyer, Nell A.(태래예)	1927-1953	WMC	
Hartley, Leah	1927-1929	WMC	
Dameron, Lenore Josephine(태모론)	1927-1938	WMC	
Billingsley, Alice Margaret(필련사)	1927-1940	WMC	
Price, Mrs. Roy(엽아수)	1927-1931	MECS	
Swinney, Mrs. R. D.(서운이)	1927-1940	MECS	
Poinier, Louise(반의열)	1928-1932	WFMS	
Leadbeater, S. Evelyn(노피도)	1928-1936	WFMS	의사선교사
Nelson, Maude(라일선)	1928-1940	WMC	간호사선교사
Boehning, Mrs. H. H.	1928-1940	MECS	
Norris, Mrs. John M.(라리수)	1928-1940	MECS	
Peters, Mrs. Victor W.(한홍복)	1928-1976	MECS	1943년 결혼(*한국인)
Lund, Pearl B.(라운덕)	1929-1940	WFMS	
Banning, Elsie N.(반영)	1929-1938	WFMS	
Loucks, B. H.	1929-1940	WFMS	
Payne, Zola(변솔라)	1929-1939	WFMS	
Jensen, Mrs. Anders Kristian(전선)	1929-1940	ME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Demaree, Mrs. E. W.(대모리)	1929-1940	MECS	
Emmerich, Mrs. E. B.	1929-1934	MECS	
Grace, H. Wood	1930-1954	WFMS	
Raney, Salena	1930-1938	WFMS	
Wallis, Ann	1930-1938	WMC	
Foster, Susie Peach(보서다)	1930-1938	WFMS	
Paulson, Mildred	1931-1938	WFMS	
Rowland, M. E.(노란도)	1931-1940	WMC	간호사선교사
Roland, E.	1931-1940	WMC	
Beaird, Marjorie(배마리아)	1931-1940	WMC	
Stewart, Mrs. S. A.(서투원)	1932-1939	MECS	
Dacus, Evelyn(지애련)	1933-1938	WFMS	
George, Evelyn	1933-1940	WMC	
Alt, Beety(오을태)	1937-1940	WMC	
Cook, Ruth(변미정)	1937-1975	WMC	1937년 결혼(Mrs. M. O. Burkholder)
Morris, O. Louis(Mrs. Charles M. Morris)	1927-1940	WFMS	1903-1927 남편과 영변 선교. 남편 순직 후 WFMS 선교사
Dalbey, H. Elizabeth	1938-1940	WFMS	
Merselis, Lois	1938-1938	WMC	
McHugh, Patricia	1938-1940	WMC	
Shaver, Mrs. Isaac Leroy	1939-1940	MECS	
Speidel, Mrs. Gerald(서배달)	1939-1940	MEC	
Moore, Mrs. James H.(모야굽)	1947-1983	UMC	캐나다선교사 S. H. Martin의 딸
Judy, Mrs. Carl W.(주덕)	1948-1984	UMC	브래넨(L. C. Brannan) 선교사의 딸
Martin, Margaret	1948-1966	UMC	
Rogers, Frances	1948-1951	UMC	1949년 결혼(Mrs. L. Zellers)
Bundy, Marian(태위뢰)	1948-1951	UMC	1950년 결혼(L. P. Taylor)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Turner, Mrs. Archer R. (천아취)	1948-1951	UMC	
Dent, Adrah	1948-1962	UMC	1949년 결혼(Mrs. D. Payne)
Evans, Emily V.	1949-1951	UMC	2012년 별세
Evans, Lola	1949-1951	UMC	
Goff, Maude Geraldine(고명도)	1949-1966	UMC	1949년 결혼(Mrs. Kwak)
Jones, Nancy	1949-1951	UMC	
Martin, R. A.	1949-1951	UMC	
Maw, Helma Beidges(모우숙)	1949-1982	UMC	
Spitzkeit, Mrs. James W.(서광도)	1949-1978	UMC	
Evans, Lola	1949-1951	UMC	
Townsend, Mollie E.(도마리)	1950-1956	UMC	
Piper, Mrs. Florence R.	1951-1957	UMC	(Mrs. Willis J. Piper)
Crane, Kathleen(구계영)	1952-1987	UMC	
Fulton, Frances S.(허상희)	1952-1970	UMC	
Ratliff, Olive "Jackie"	1952-1957	UMC	간호사선교사, 2013년 별세
Billings, Peggy Marie(변영숙)	1953-1963	UMC	
Moss, Barbara L.(모보배)	1953-1958	UMC	의사선교사
Wilson, Emma W.	1953-1964	UMC	
Witchell, Mary	1953-1956?	UMC	선교사협의회에 1953년에 선교사로 나옴.
Raber, Mary	1953-1956?	UMC	선교사협의회에 1953년 선교사로 나 옴.
Blom, Betty M.	1954-1957	UMC	
Denman, Mrs. Emma Nell	1954-1957	UMC	
Jeffery, Mrs. Finis B.(채부리)	1954-1983	UMC	
Kingsley, Marian Ethel(왕매련)	1954-1975	UMC	간호사선교사
Larwood, Mrs. T. R.	1954-1955	U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Ratliff, Mrs. M.	1954-1957	UMC	
Schowengerdt, Mrs. D. L.	1954-1989	UMC	
Shaw, Marion B.(서매련)	1954-1964	UMC	
Stockton, Elsie L.(서덕톤)	1954-1965	UMC	
Stoffer, Esther J.(서덕애)	1954-1957	UMC	
Stokes, Mrs. Charles D.(도익서)	1954-1983	UMC	
Swinney, Irene T.(서애린)	1954-1959	UMC	
Wayland, Emma Nell	1954-1957	UMC	
Whitaker, Faith(위신잔)	1954-1957	UMC	
Harper, Elva D.(하에숙)	1954-1978		(Mrs. Charles H. Harper) 부산사회 관 관장
Aebersold, Mrs. John(이요한)	1955-1975	UMC	
Elrod, Mrs. J. Mcree	1955-1960	UMC	
Gledhill, Vivian Ethel(구영희)	1955-1960	UMC	
Kuntz, C.	1955-1958	UMC	
Sidwell, Mrs. G. L.	1955-1967	UMC	
Simister, E. W.	1955-1960	UMC	
Stewart, Ruth G.(서여수)	1955-1996	UMC	의사선교사, 2021년 별세
Stuntz, Jane A.	1955-1958	UMC	
Tieszen, Helen(지혜련)	1955-1989	UMC	
Weiss, Mrs. Ernest W.(위은남)	1955-1975	UMC	
Ogle, Mrs. George Eving(오명걸)	1955-1975	UMC	
Matthews, Mrs. E.(마태진)	1956-1989	UMC	
Montgomery, Lillian B	1956-1959	UMC	
Rice, Roberta G.(나옥자)	1956-1975	UMC	의사선교사
Riggs, Mrs. Robert G.(이라복)	1956-1968	UMC	
Sauer, Mrs. Robert(사로덕)	1956-1968	U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Shaw, Juanita R. (서화순)	1956-1968	UMC	
Sneed, Betty J.	1956-1959	UMC	
Theis, Mrs. J. J.	1956-1989	UMC	
Harris, Susan	1957-1960	UMC	
Oliver, Hoyt	1957-1960	UMC	
Thatcher, Grace H.	1957-1958	UMC	
Yarborough, Marjorie	1957-1960	UMC	
Bale, Mrs. Marie F. M. D.	1957-1969	UMC	
Hale, Mrs. Lyman L. (하일만)	1958-1986	UMC	간호사선교사
Harvey, Mrs. J.	1958-1959	UMC	
Hull, Jane	1958-1959	UMC	
Lowman, D.	1958-1961	UMC	
Mattson, Mrs. Donald S. (마도선)	1958-1966	UMC	의사선교사
Pickett, Rachel A. (피은주)	1958-1961	UMC	
Powell, Jane Marie (박혜련)	1958-1963	UMC	
Speakman, Mrs. D. E.	1958-1962	UMC	
Carpenter, Ruth	1959-1960	UMC	
Laney, Mrs. James. T.	1959-1964	UMC	
Pinkston, Mrs. R. S.	1959-1963	UMC	
Roth, Mrs. Rober F.	1959-1975	UMC	
Bobo, Sylvia (보보은)	1960-1965	UMC	
Carey, Joan (김미혜)	1960-1965	UMC	
Gist, Luch	1960-1962	UMC	
Jameson, Gloria	1960-1963	UMC	
Huheey, Gertrude	1960-1960	UMC	
Pak, Mrs. Barbara	1960-1962	U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Poitras, Mrs. Edward W. (박대인)	1960-1963	UMC	
Reynolds, Barbara Pak (이영애)	1960-1962	UMC	
Sievert, Anneliese	1960-1971	UMC	
Strawn, Sonia R. (이선희)	1960-1989	UMC	(Mrs. D. J. Strawn)
Young, Mrs. Roy. O.	1960-1961	UMC	
Baumgardner, Emma	1961-1961	UMC	
Brandt, Adeline	1961-1966	UMC	
Eichelberger, Sally Jo (안산조)	1961-1964	UMC	
Firl, Barbara	1961-1962	UMC	
Johnston, Lela R. (조순탄)	1961-1970	UMC	
Reynolds, Ruth E. (이미애)	1961-1964	UMC	간호사선교사
Adams, Mrs. Woodward A. (아담수)	1962-1963	UMC	
Harmon, Mrs. Tom A. (하문도)	1962-1967	UMC	
Kraft, Elizabeth (구랍트)	1962-1966	UMC	
Morris, Frieda	1962-1963	UMC	
Powers, Phylis June (권혜정)	1962-1989	UMC	
Reniger, Elaine Joyce	1962-1967	UMC	
Tefft, Virginia J.	1962-1963	UMC	
Cassidy, Margaret (계신탭)	1963-1973	UMC	
Holcomb, Mrs. Rorbert S. (허균)	1963-1968	UMC	
Holtzclaw, Linda	1963-1964	UMC	
Hiler, J. Florence	1963-1965	UMC	간호사선교사
Johnson, Mrs. Hobart (전선환)	1963-1968	UMC	
Robinson, Lenna Belle (노연복)	1963-1974	UMC	의사선교사, 대통령 훈장
Burtch, Marilyn	1964-1967	UMC	
Ferrell, Mrs. Gene B. (배진덕)	1964-1968	U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Hafkesbring, Reberta	1964-1966	UMC	
Kim, Mrs. Young Soon(김용순)	1964-1965	UMC	
Lorenzen, Mrs. Bonnie	1964-1969	UMC	
Lovell, J. Louise	1964-1967	UMC	
Page, Bonnie(배보경)	1964-1969	UMC	
Soon, Mrs. Kim Young(순금영)	1964-1968	UMC	
Dresback, Susan	1965-미상	UMC	
Balkcom, Mrs. O. H.	1965-미상	UMC	
Birney, Sue	1965-1968	UMC	
Craig, Jean F.(갈계은)	1965-1970	UMC	
Huffman, Judith(허은찬)	1965-1967	UMC	
Wood, Carol(우송혜)	1965-1968	UMC	
Bowker, Rosalie(백진희)	1966-1983	UMC	
Loomis, Helen	1966-1968	UMC	
Newman, Patricia	1966-1969	UMC	
Preszler, Shirley	1966-1971	UMC	
Woo, Mrs. Shirley	1966-1971	UMC	
Jackson, Veronica	1967-1967	UMC	
Huston, Esther(유은희)	1967-1971	UMC	
Johnson, Susan	1967-1970	UMC	
Miller, Ruth Ann	1967-1971	UMC	
Ruebsamen, Mrs. Marvin	1967-1973	UMC	
Sheldon, Mrs. Susan	1967-1977	UMC	
Dohl, Mrs. Helen	1968-1971	UMC	
Miller, Mrs. R. E.	1968-1971	UMC	
Nickel, Carolyn	1968-1972	UMC	

이름(한국명)	한국 사역 기간(귀국)	선교부	비고
Willison, Mrs. John David	1968-1970	UMC	
Bertholf, Mrs. Lloyd	1969-1970	UMC	
Buck, Mrs. Arden	1969-1970	UMC	
Campbell, Jolynne	1969-1972	UMC	
Jones, Roberta	1971-1977	UMC	
Grayson, Mrs. James(김정현)	1971-1987	UMC	
Durst, Mrs. Walter(도월소)	1972-1979	UMC	
Mun Son Young, Mrs. D.	1975-미상	UMC	
Pak, Sue Ellen	1966-1969, 1979-1989	UMC	(Mrs. D. Pak)
Hamilton, Mrs. Ian	1980-1983	UMC	
Hanson, Mrs. M.	1980-1981	UMC	
Crossler, Jannie	1981-1983	UMC	
Jang, Barbara Smith	1981-1990, 2000- 2003	UMC	
Kim, Nan Won	1982-1983	UMC	
Kim, He Won	1982-1984	UMC	
Lee, Chan Woo	1982-1983	UMC	
Morgan, Mrs. Loretta	1982-1983	UMC	
Ash, Carrie	1984-1986	UMC	
Crosby, Cathy	1984-1986	UMC	
Lee, Eun Joo(이은주)	1984-1986	UMC	
Miles, Mrs. Lois	1986-1986	UMC	
Pak, Rene(박종연)	1987-1988	UMC	
Lee, Kyung Hee(이경희)	1987-1988	UMC	
Choi, Nora(최노라)	1988-1989	UMC	
Sheperd, Helen M.(목혜원)	1992-2002	UMC	간호사선교사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라는 이름도 생소할 때 나는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MW) 직원으로 2007년 한국에 파송되어 이 재단의 21세기 선교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다.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는 과거의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재단의 프로그램 사무실로 출범하였다. 몇 년 전 센터의 10년사를 출간하며 느꼈지만, 100년사를 글로 쓴다는 것은 지난날을 오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지혜와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기록이기에 이 책도 우리의 내일을 위해 출판하기로 했다.

1885년부터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회(WFMS)는 한국에서 선교를 위해 학교, 병원, 교회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하였지만 일제강점기인 1924년이 되어서야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으로 등록되었다. 유지재단 100년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선교 역사는 1885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140년을 모두 포함한 책일 수밖에 없다.

선교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간 선교사들과 한국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 땅에 이루려고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모두 바친 여성 선교사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몸 바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 여성들까지 포용한 믿음의 파트너들과 후원자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믿음의 역사이다. 그 감동의 역사를 이 책에 담으려고 헌신을 다한 저자 유연희 박사와 아낌없이 편집에 참여하신 박정혜 이사장과 김윤희 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혜선 사무총장 및 이사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한국교회사의 문외한인 내가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100년사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 충분히 짐작했다. 방대한 사료와 선행 연구자들의 저작들, 한국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흩어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솟아나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속절없이 허우적거릴 것임을 알았다. 정말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이렇게 100년사가 나오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나는 여성 선교사들의 사역을 담아내고 싶은 욕심과 유지재단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과제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여성 선교사들이 헌신하며 선교 재산을 일구고 재단을 설립하고 성실하게 꾸려나간 역사를 목도하는 과정은 나를 겸허하게 만드는 시간 이었고, 이 책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영예로운 일이다. 여성 선교사들의 사역은 훌륭한 학자들이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더 연구하여 조명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세계선교부의 아시아 지역선교사로 파송 받아 일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한국과 아시아에서 희생하고 섬긴 여성 선교사들에 대해 잘 모른 채 편하게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그들은 질병, 부상, 상실 등 개인적인 아픔과 근대사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이어갔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학교, 여성병원, 여자사회관, 교회와 여선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지인들을 동원해 모금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그토록 큰 헌신과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과 유지재단의 역할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유연희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낸 선교 헌금은 한국 여성의 척박한 처지를 변화시키는 단비가 되어 영혼 구원은 물론 물리적인 삶의 질적 향상에 일조했다. 선교헌금이 만들어낸 재산은 유지재단 인가 후에는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됨으로써 근대 여성 선교에 기반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유지재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유지재단 100년 역사서를 통해 독자들은 여성과 남성 선교사, 전도부인,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작은 몸짓이 되고, 앞으로 유지재단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 서문 중에서

